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01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8월 30일)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황룡사 비견될 금당지 경주 흥륜사지서 확인

국가유산청, 9월 26일 흥륜사지 현장서 설명회

과거 '신라의 미소' 출토 사찰
국내 가장 높은 규모 2중 기단
햇볕 막는 차양칸, 발굴로 확인
"신라 사찰 금당 연구에 중요"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경주 흥륜사지 발굴 전경. 황룡사에 비견될 만한 대형 금당지가 확인됐다.

경주 황룡사에 비견될 만한 대형 금당지가 경주 흥륜사지에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경주시(시장 주낙영)와 함께 실시 중인 사적 '경주 흥륜사지'의 발굴조사에서 경주 황룡사의 금당과 견줄만한 규모의 2중 기단에 차양칸을 갖춘 '대형 금당지'를 확인했다"고 9월 25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발굴조사의 성과를 공개하는 현장설명회를 9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최한다.

1963년 1월 21일 사적으로 지정된 경주 흥륜사는 신라 사찰 중에서 가장 일찍 세워진 사찰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기록된 설화를 보면, 신라 13대 미추왕 3년에 성국공주(成國公主)의 병을 고구려의 고승 아도(阿道)가 고쳐 주었는데, 그 보상으로 왕이 사찰 건립을 허락하여 사찰이 세워졌다고 한다. 그는 매우 검소하여 억새를 얽어 움막집을 짓고 이곳에 거처하면서 불도를 강설하니, 마침 하늘에서 꽃이 떨어졌기에 흥륜사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경주 흥륜사는 과거 '신라의 미소' 수막새(보물)가 출토된 사찰로, 최근 발굴조사에서 '영묘지사(靈廟之寺)', '영묘사(靈廟寺)' 등의 명문기와가 출토되면서 선덕여왕 4년(635)에 창건된 영묘사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한, 지난해 흥륜사지 서쪽 하수관로 설치 공사 관련 발굴조사에서 다량의 고려시대 청동공양구가 출토돼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신라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사용된 금당의 기단이 드러났는데, 상·하층의 2중 기단과 내·외진을 갖춘 직사각형의 대형 건물 구조로 확인됐다. 특히, 아래층 기단에서는 햇볕을 가리기 위한 시설의 주춧돌인 차양초석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2중 기단에 차양칸을 갖춘 금당은 경주에서는 황룡사 중금당(584년), 사천왕사 금당(679년)을 제외하고는 확인된 사례가 없을 만큼 경주에서 보기 드문 구조"라며 "신라 사찰 금당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금당 건물은 적어도 3단계 이상의 변화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창건기인 삼국시대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금당지에서 출토된 삼국시대 연화문 수막새로 보아 그 존재가 짐작되며, 특히 금당 앞 폐와무지(건물에 사용된 기와를 버린 구덩이)에서는 삼국 말~통일 초에 사용된 연화문 곱새기와(지붕마루 끝의 장식기와)가 출토돼 삼국시대에 이미 금당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8세기 전반에는 금당 북동쪽 모서리에 가구식(여러 개의 석재를 짜 맞추어 조립해 만든 모습) 계단석을 설치한 대형 기단 건물로, 9~12세기 사이에는 넓은 차양칸을 갖춘 대형 건물로 변화된 것이 이번 발굴을 통해 확인됐다.

또한, 현재 금당지 내부에서 확인된 내진 성토층은 기단석에서 초석까지 높이가 230cm로, 황룡사 중금당의 기단 높이인 110cm에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높은 규모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기단을 갖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경주시와 함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발굴조사의 성과를 구체화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유적의 진정성 있는 보존과 활용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외로 유출됐다 100년만에 환지본처한 3여래 2조사 사리의 가치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길 발원하는 천일기도가 9월 21일 회암사에서 봉행된 가운데 천일기도 동참 불자들이 불조사리를 친견하고 있다.

"회암사, 선명상·불교 중흥 중심으로"

양주 회암사, 9월 21일 불조사리 친견 천일기도 입재

진우 스님 증명법사로 입재식
"선명상 퍼져나갈 공간" 기대
2027년 6월 17일에 회향 예정

100년만에 원 소장처인 회암사로 환지본처한 3여래 2조사 사리를 모시고 그 가치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길 발원하는 천일기도가 시작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입재식 증명법사로 법석에 올라 회암사의 중흥과 선명상 세계화를 발원했다.

양주 회암사는 9월 21일 경내 대법당에서 '회암사 불조사리 친견 천일기도'를 봉행했다.

회암사 불조사리는 석가여래, 정광여래, 가섭여래, 지공 조사, 나옹 조사 등 3여래 2조사의 사리로 일제강점기에 무단으로 반출됐다가 100여 년 동안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돼 있었다. 2004년 사리의 존재가 처음으로 불교계에 알려지고 2009년부터 반환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진척되지 않고 잊혀졌다가 2023년 보스턴미술관 측과의 협상이 이뤄지며 100년 만에 환지본처 할 수 있었다.

교구장 호산 스님은 축사에서 3여래 2조사 사리귀환에 대한 감격을 전하며 회암사가 세계적인 기도처가 되길 발원했다. 호산 스님은 "총무원장스님의 증명법사 법문 인연으로 회암사가 700여 년 전처럼 전국의 중심도량이 되고,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으로서 기도처가 될 수 있길 발원한다"면서 "회암사지를 세계적인 명상센터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큰 원력을 갖고 1000일 기도 입재를 하는 만큼, 사부대중 모두가 불교 중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입재식에서는 진우 스님이 증명법사로 나서 법문을 설했다. 특히 진우 스님은 회암사가 선명상 정신을 알리는 중심지가 되길 기대했다. 스님은 "세계 그 어느 사적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최고의 역사적 풍미를 자랑하는 회암사가 최고의 사찰로서 다시 한 번 영광의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한다"면서 "세계에 선명상 정신이 널리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가꿔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입재식에서는 회암사 주지 임명장 수여식도 거행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공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여법한 관리 운영을 당부했다. 이날 주지로 임명된 인공 스님은 티베트 게룩파 종파로 1998년 수계했다. 게룩파 드레퐁사원에서 11년 논장 수학한 후 2009년 봉선사에 입산, 통도사 강원입승에 이어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천일기도 입재식에 동참한 강수현 양주시장은 "수행과 깨달음의 결정체인 성스러운 진신사리를 양주 회암사에 모시게 돼 감격스럽다"면서 이를 계기로 회암사가 불자뿐 아니라 양주 시민들에게도 마음의 안식처를 주는 의지처로서 자리매김하길 기대했다. 환지본처를 위해 애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불교계에 깊은 감사를 전한 강수현 양주시장은 "100년 만에 다시 오신 3여래 2조사 진신사리 친견을 시작으로 한국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널리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입재한 천일기도는 2027년 6월 17일까지 이어진다. 100일간 10차에 걸쳐 기도가 이어지며 2차 입재는 12월 30일 봉행된다. 천일기도는 매일 새벽 5시, 오전 10시, 오후 2시 대법당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동참 가능하다. 사리는 매주 금·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친견할 수 있다. 단체 30명 이상 접수 시 상시 친견도 가능하다.

양주 회암사=임은호 기자

자연의 맛 나눔의 마음 Taste of Nature Heart of Sharing

2024년 제15차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

사찰의 자연발효음식

2024.10.4(금)~10.5(토)





2024년 제15차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 일정표

시 간	10월 4일(금)	10월 5일(토)
07:00~09:00	사찰음식 전시 및 경연대회 세팅	
09:00~09:30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식 및 평가 09:00~10:10 육화당	
09:30~10:00		금비라 졸업식 09:30~10:00 야외무대
10:00~10:30	비빔밥 퍼포먼스 10:20~11:00 대적광전 앞	차명상 ① 10:00~10:30 야외무대
10:30~11:00		차명상 ② 10:30~11:00 야외무대
11:00~11:30	육법공양 11:00~11:30 금탑 앞	육법공양 11:00~11:30 금탑 앞
11:30~12:00	사찰음식 실습특강(성견스님)	사찰음식 실습특강 (법송스님)
12:00~12:30	11:30~12:20 야외무대	11:30~12:20 야외무대
12:30~13:00	차명상 ① 12:30~13:00 야외무대	탁발순례 12:30~13:10 도량 내
13:00~13:30	차명상 ② 13:00~13:30 야외무대	무아차회 13:10~14:10 금탑 앞
13:30~14:00	탁발순례 13:40~14:20 도량 내	
14:00~14:30		시상식 준비 · 공연 리허설
14:30~15:00	무아차회 14:30~15:30 금탑 앞	14:10~15:00 야외무대
15:00~15:30		1부 :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상식
15:30~16:00		2부 : 비천무 공연 / 우담화합창단 공연
16:00~16:30		15:00~16:30 야외무대
16:30~17:00	판매 종료	행사 · 판매 종료

사찰의 발효음식, 김치만들기 체험 : 10월 4~5일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1일 6회)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 주관 |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 운영위원회 | 후원 | 경기도 수원특례시

“화두 타파 육바라밀행으로 중생구제”

조계사, 9월 25일 ‘선명상 법회 3’
진우 스님 대중들에 ‘이뭣꼬’ 화두
“괴로움 벗어나는 수행법 간화선”
30일까지 영진 스님 등 법사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진우 스님이 조계사 특별법문에서 이뭣꼬 화두를 던지고 마음 평안을 강조했다.

“화두를 깨친다는 것은 부처님법을 모두 아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고, 화두 타파하면 근심, 걱정, 괴로움이 한 점 없게 됩니다. 걸림 없는 행동으로 육바라밀을 행하면 완벽한 깨달음으로 중생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조계사 특별법문 법사로 나서 대중들에게 ‘화두’를 갖고 일념할 것을 당부했다. 2024 불교도 대법회를 앞두고 선명상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설하며 분별심을 내려놓고 감정을 다스릴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진우 스님은 서울 조계사가 9월 25일 개최한 ‘조계사 선명상 특별법회 시즌3 : 선명상의 꽃 간화선’에서 법상에 올랐다. 이날 스님은 분별심을 내려놓고 감정을 다스릴 것을 강조하면서 선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깨달음의 핵심에 대해 “손톱만큼도 불편함이 없는 평안”이라고 강조한 진우 스님은 “분별심이 새기는 감정 덩어리가 없어야 괴로움이 사그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있기에 기분이 좋고 나쁜 고락의 과보가 반복된다”면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두 가지 생각과 감정을 놓아버리는 것이 명상의 진면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정만 다스릴 수 있어도 삶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설명한 스님은 “우리가 선명상을 해야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고 깨침에 있어 최고의 수행법은 간화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화선의 화두는 부처님처럼 마음을 깨치고 내는 소리이니, 화두를 깨친다는 것은 부처님 법을 모두 알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법회동참 대중들에게 이뭣꼬(是甚麽) 화두를 던진 진우 스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적멸이 되고 이것이 계속 되면 선이 된다”면서 “괴로움이 없고 생로병사도 없으며 윤회도 삼독심도 없는 평안하게 유지되는 마음이 화두 타파며 그것이 곧 간화선”이라고 말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육바라밀을 강조하기도 했다. 스님은 “내가 하는 행동이 보시행, 지계행, 인욕행, 정진행, 선정행, 그리고 지혜행”이라면서 “여섯 가지를 깨친 이들이 하는 보살행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사는 진우 스님을 시작으로 백담사 무금선원 유나 영진 스님(9월 26일),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9월 27일), 미국 일리노이주 Palmo 센터 대표 직메 린포체(9월 29일), 상원사 용문선원장 의정 스님(9월 30일)의 특별법문 및 선명상 실참을 이어갈 예정이다.

진우 스님 “갈항사지 석탑 환지본처 협력”

9월 23일, 송언석 의원 · 김충섭 김천시장 예방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국보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1962년 지정)의 김천시 이전 계획안을 보고 받고 환지본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진우 스님은 9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과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김충섭 김천시장의 예방을 받고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김천 이전 추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사진〉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남면 오봉리 옛 갈항사터에 동·서로 세워져 있던 두 탑으로 2단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도굴해 반출을 시도했지만 발각돼 1916년 경복궁으로 옮겨져 관리되다가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함께 이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김천시는 이전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3일 ‘국보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김천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다. 11월 중 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2005년에는 갈항사지 주변 토지를 매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발굴조사와 학술대회를 개최, 국가유산 사적 지정 후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송언석 의원은 “최근 석탑이 국립대구박물관으로 이전 추진하려는 것을 보류시킨 상태”라면서 “석탑이 원위치인 김천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원장스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동진 김천시 경제관광국장로부터 이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진우 스님은 절차와 규정들에 큰 관심을 보이며 “성보가 본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적극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은 “갈항사지 석탑은 김천 유일 국보로, 성보인 만큼 종단의 주도가 절실하다”면서 “석탑 이전과 함께 갈항사지터가 잘 가꿔진다면 선명상센터 건립 등도 추진해 김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 10일, 제231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종회의원 현무 스님의 대표발의로 ‘갈항사지 삼층석탑 김천 이전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임은호 기자

제232회 중앙종회 정기회 11월 5일 개회

하반기 구성, 예산안 등 다뤄

제232회 중앙종회 정기회가 11월 5일 개회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 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기 2568년도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특별위원장·종책모임 회장단 제7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제232회 중앙종회 정기회는 11월 5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19일까지로 안건접수는 10월 29일, 종책질의는 10월 31일 마감한다.

정기회에서는 △제18대 중앙종회 후반기 원 구성의 건 △종법 제·개정의 건 △종무보고의 건 △종책질의의 건 △불기 2569(2025)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임은호기자

여야 대표 만난 진우 스님 “국민 위한 정치를”

추석 전후 두 대표 예방서 강조
“의료대란 중재 나설 것” 약속도



진우 스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예방을 받고 “국민 위한 정치”를 당부 했다.

추석을 전후해 조계종 총무원을 찾은 여야 대표에게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당부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의료 대란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의료대란 이해관계 조정하는 데 대화 타협이 아닌 충돌을 해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럴 때 종교계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종지협이나 불교계 차원에서 노력해보겠다.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이고,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부와도 대화를 시도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진우 스님은 이재명 대표와 정치인들에게 ‘중도’에 대해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정치라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래 왔고, 현실 자체가 상대적이라 어쩔 수 없으나, 잘 융합해야 한다. 무엇보다 불교의 중도가 구현되면 서로 불이익도 없다”며 “여든 야든 어느 지도자가 되든 융합과 융섭을 잘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를 마친 9월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진우 스님은 “국민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정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국민들의 평안을 생각하며 정치해 달라”면서 “집권 여당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좀 더 절실한 마음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비공개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총무원장 스님의 말씀을 새겨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의료대란 관련 이야기에 대해서도 “의료대란과 관련해 여야 의정 협의체의 대화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했다”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신중일 · 임은호 기자

조계종 법계위원에 정우 대종사 위촉

총무원장 진우 스님 9월 25일 위촉장 전달

조계종 법계위원에 구룡사 회주 정우 대종사가 위촉됐다.〈사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정우 대종사에게 법계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종단의 원로 스님을 법계위원으로 모시게 돼 영광”이라며 “종단의 막중한 위치에 있는 위원회이기에 큰스님들이 돌봐줘야 종단 위상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정우 스님은 홍법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8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1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통도사 주지, 군종특별교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 회주 소임을 보고 있다.



법계는 스님들의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이자 종단 위계서열의 기본이다. 법계위원은 총무원장 제청으로 종사급 이상 비구스님 가운데 중앙종회 동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위촉한다. 각 법계의 품서와 특별전형, 포상법계, 법계무효 등을 관장하며 임기는 3년, 연임할 수 있다. 임은호 기자



“마음 평안 줄 선명상, 불교의 현대적 표현”

선명상대회 초청 해외 지도자들
9월 26일 간담회서 ‘선명상’ 기대감
“고통 원인은 훈련되지 않은 마음”
선명상 세상 평화 웰빙 기여 기대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024 국제선명상대회 해외 명상지도자들은 9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명상 수행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통의 원인은 훈련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명상과 수행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 줄 것입니다.”

9월 28일 개최되는 ‘2024 국제선명상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해외 명상 전문자들이 9월 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회의 의미를 전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미국 우파야선 센터 주지이자 호스피스 및 임종 돌봄 분야 선구자 로시 조안 할리팩스, 달라이 라마 통역자이자 자비계발 수행법(CCT) 개발자 툽텐 진파, 틱낫한 스님이 세운 국제수행센터 플럼빌리지 명상 지도자 팝루 스님,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티베트 불교 가르침을 전하는 직메 린포체가 참석했다. 이번 국제선명상대회에 큰 기대감을 표한 이들은 불교 가르침이 현대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제는 불교를 현대적 의미로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한 툽텐 진파 박사는 “불교의 가르침을 잘 활용하면 세상의 평화와 웰빙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낡은 언어, 보호해야 할 유산으로서의 불교가 아니라 오늘의 언어로 불교를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 한 방편으로 명상을 제시한 그는 “명상은 세상을 보는 시각을 보는 과정이며, 불교적 수행으로 통찰을 내면화하는 것”이라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내 감정의 지평을 잘 이해하게 되면 개인 차원을 넘어 공적인 영역에서도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고통의 원인으로 지목한 직메 린포체는 “고대 가르침인 불교를 현대에 적용, 실천 가능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마음 훈련”이라면서 “불교 지혜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날 해외 명상 지도자들은 9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는 2024 국제선명상대회에 대한 큰 기대감를 표했다.

‘5분 명상’에 기대를 표한 로시 조안 할리팩스는 “수만명이 함께 한 호흡으로 집중, 명상 한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면서 “한 번의 호흡이라도 그 속에 온전히 깃들 수 있다면 기적이다. 개인의 삶을 넘어 모두에게 확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명상’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세계에 알리는 데 진력하고 있는 조계종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팝루 스님은 “은사 틱낫한 스님은 사회 참여와 명상 수행은 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면서 “수만명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국제선명상대회라는 고귀한 자리를 만들어준 조계종에 찬탄을 보낸다”고 말했다.

직메 린포체도 “전 세계가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큰 성과 속에서도 정서적 건강을 도모하거나 인성을 다듬는 것에 소홀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국제선명상대회에서 공개될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청도 운문사 역사·문화 ‘한자리에’

9월 25일 역사문화관 개관식
연면적 647㎡ 1층 전통 양식
‘운문사 중수공덕비’ 제막식도


운문사는 9월 25일 경내에서 ‘운문사 역사문화관’ 개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손문철 대구지사장

청도 운문사(주지 은광 스님)의 역사와 문화, 성보유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역사문화관이 개원했다.

운문사는 9월 25일 경내에서 ‘운문사 역사문화관’ 개관법회를 봉행했다.

4900㎡ 부지에 연면적 647㎡의 1층 전통양식으로 조성된 운문사 역사문화관은 운문사역사관과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과 50석 불교문화강의실, 작품 수장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상설전시실은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의 행장과 육필 원고와 서예작품 등이 전시돼 있으며, 기획전시실에서는 내년 2월 2일까지 운문사 승가대학 동문스님들의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팔공총림 방장 의현 스님이 법문을 통해 “6.25전쟁 당시 스러져가는 법당 하나 남아 있는 폐허에서 회주 명성 스님께서 일생을 다 바치고 헌신하여 이토록 아름다운 화엄세계를 건립했다”고 설했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축사에서 “운문사 역사문화관 건립으로 회주스님의 업적과 함께 비구니 승가의 문화적 전통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장을 마련됐다”고 축하했다.

운문사 주지 은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운문사 역사문화관을 불교와 철학, 예술과 문화를 함께 도모하고 재미와 신명, 진지함과 기발함이 숨 쉬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개관식에 앞서 한국 비구니계의 정신적 지주이자, 운문사를 한국 최대의 비구니 강원과 대가람으로 키워낸 명성 스님의 공적을 기리는 ‘운문사중수공적비’ 건립 제막식도 함께 열렸다. 신중일 기자

진우 스님 “업장 소멸하려면 선명상하라”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콘퍼런스서
‘선명상과 현대물리학’ 주제 강의
“苦樂서 벗어나는 게 선명상 목적”

“선명상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며, 업장이 사라지고, 일체 괴로움이 함께 사라집니다. 이를 우리 모두에게 성취하면 세상은 불국정토가 될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24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제5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콘퍼런스 기조강연에서 선명상의 필요성과 실천법을 전했다.

‘선명상과 현대물리학’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기조강연에서 진우 스님은 현대물리학의 첨단 이론인 양자역학과 불교의 상관관계를 살폈다.

진우 스님에 따르면 양자 중첩은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양자 얽힘은 의상 스님의 ‘화엄경 법성게’와 맞닿는다.

진우 스님은 “입자는 색이면서 공이다. 입자는 물질로도 파동으로도 나타난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면서 “마음도 어떤 때에는 마음이라고 규정지을 수는 있는데, 어떤 때는 마음이라고 할 수 없는 성품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성품을 단박에 박살내고 깨우치는 것이 선명상이고 그 정점에 있는 수행법이 일체 화두를 타파하는 간화선”이라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 수행의 목적이 일체 괴로움에서 벗어남에 있음을 거듭 밝혔다. 스님은 “업장을 없애는 것이 나의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다. 괴로움을 없애려면 일단은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락(苦樂)의 윤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과 명상이 같은 맥락이자 뿌리임을 강조한 진우 스님은 “‘K-선명상’을 세계화시키는 것이 제 목표다. 이를 통해 우리의 고유한 부처님 법이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24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제5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콘퍼런스 기조강연에서 선명상의 필요성과 실천법을 전했다.

이에 앞서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제5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개막식을 중강당에서 개최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많은 현대인들의 고통과 번뇌의 경험에서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 바로 명상 수행”이라며 “이번 서울국제명상엑스포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환하게 열어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윤재웅 총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엑스포에서는 종립대학인 동국대만의 차별화된 명상법을 안내하기 위해 불교의 선, 명상을 강의하는 교수진과 국내외 명상전문가가 함께 한다”며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불교 전통 명상법을 표준화하여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9월 26일까지 동국대 서울 캠퍼스 일원에서 개최된 제5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는 11명(해외 5명, 국내 6명)의 세계적인 명상 분야 지도자들이 참여해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명상 콘퍼런스’를 비롯해 나에게 맞는 명상법을 찾아보고, 세계 각국 명상을 경험해볼 다양한 ‘체험부스’ ‘좌선실 명상체험’ 등이 진행됐다. 신중일 기자

BBS불교방송 제11대 사장에 서진영 원장

제125차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BBS불교방송 이사회(이사장 덕문 스님, 이하 불교방송)가 제11대 불교방송 사장으로 대한불교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추천한 사장 후보인 서진영 자의누리 경영연구원장〈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BBS불교방송 이사회는 9월 26일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열린 제125차 회의에서 진흥원 추천 사장 후보 2명인 서쌍교 후보(SBS보도본부 부국장)과 서진영 후보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이 같이 결의했다. 제11대 사장의 임기는 9월 26일부터 4년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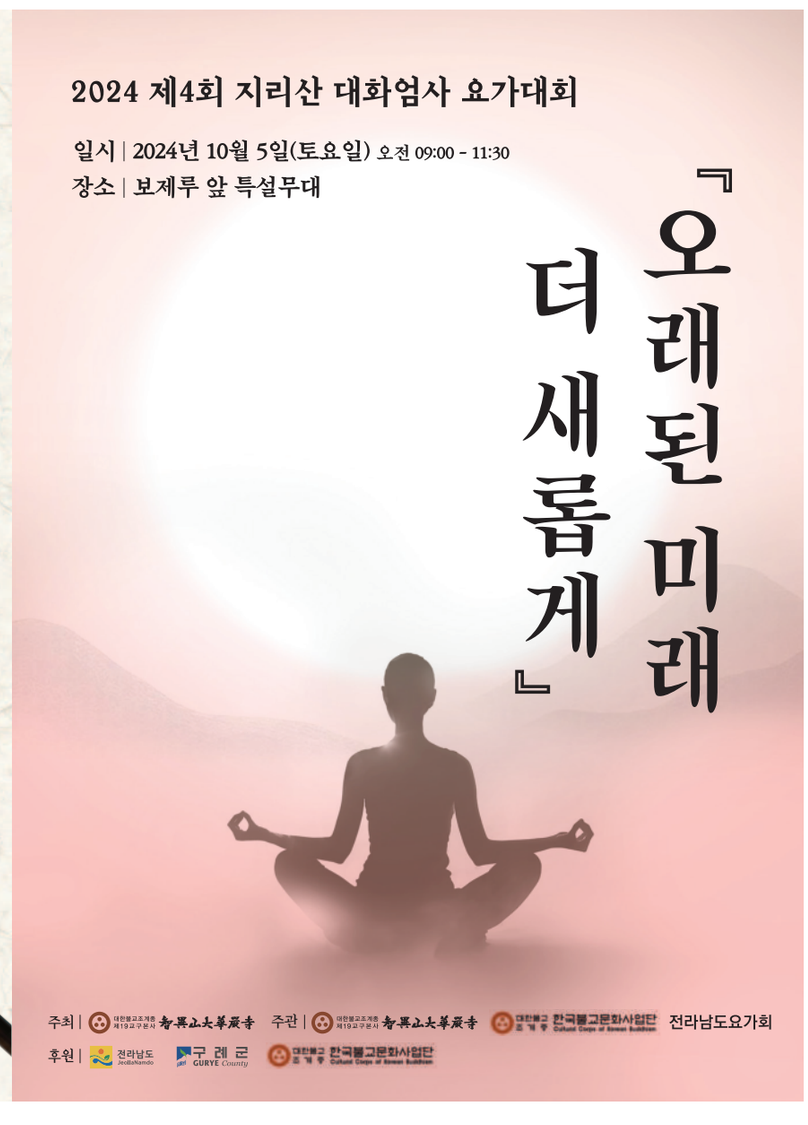
서진영 제14대 불교방송 사장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와 동 경영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유학과 철학 박사를 취득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대우교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전임교수, 한국경영학회 상임이사,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위원 및 재허가 심사위원, KBS-1라디오 ‘라디오 시사고전’ 진행자 등을 역임했다. 현대자동차, 삼성그룹, 우리홈쇼핑, BBQ그룹 등 국내외 기업 전략 및 인사평가 컨설팅을 수행했다. 현재 자의누리 경영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법명은 일심(一心)이다.

사장 선출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서진영 신임 사장은 “임직원이 자부심을 갖고 행복한 직장과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청취율 향상, 직원 복지 강화 등 BBS 경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이사장 덕문 스님은 “서진영 신임 사장과 임직원과 이사진, 청취자와 시청자 모두가 하나돼 불교방송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진관사, 가을 밤 '명품공연'으로 채우다

9월 21일 '진관사 달오름 음악회-진관미학'

최여완·장하은 등 청년음악가 6팀
이화국악관현악단, 가릉빈가합창단
행사 전 비천무·사자춤 특별공연도
전통과 현대 어우러진 풍성한 무대


진관사가 가을밤에 뜬 둥근 보름달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물들였다. '진관사 달오름 음악회-진관미학'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2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장대비에 무더위가 한풀 꺾인 가운데, 진관사가 가을밤에 뜬 둥근 보름달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물들였다.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가 9월 21일 경내 대웅전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진관사 달오름 음악회-진관미학'을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국악과 재즈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풍성한 무대로 대중들에게 힐링과 평안을 선사하고 진관사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이번 음악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 등 불교계 스님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용민·배현진·박주민·이재정·진선미·김영우·고동진·신동욱 국회의원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또한 찬디마 아베이라쓰나 스리랑카 장관, 아밋 쿠마르 인도 대사, 볼프강 앙거홀처 오스트리아 대사, 안네 카리한센 오빈 노르웨이 대사 등 11개국의 외교사절과 2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이날 음악회는 어린이들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막을 올렸다. 진관사 가릉빈가 어린이 합창단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반달'과 국악 동요 '모두가 꽃이야'를 불러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어 가야금 연주자 주보라는 신곡 '소풍'으로 빼어난 연주 실력을 뽐냈다. 정가 보컬리스트 최여완의 '저기 저 꽃'은 김가현의 소금 연주와 함께해 가을밤 정취를 더했다.

재즈 보컬리스트 서민아의 '머시(mercy)', 루카 마이너의 '플라이 미 투 더 문'은 고즈넉한 천년고찰을 아름다운 재즈 선율로 물들였다. 관객들은 사찰을 가득 메운 재즈에 취해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밴드2' 출신의 기타리스트 장하은, 락 보컬리스트 김한겸의 기타 연주와 노래로 꾸며진 무대는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이화국악관현악단(지휘 원영석)은 동서양 조화의 아름다움을 음악으로 표현해냈다. 김민주의 첼로 연주와 함께 '희문', '달빛항해'가 대웅전 앞마당에 장엄하게 울려 퍼져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끝으로 주보라·최여완·서민아의 '아름다운 나라'로 음악회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진관사 달오름 음악회-진관미학은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이 공연 연출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은 인사말에서 "박 이사장이 진관사에 온 지 10년째 되던 해에, 사찰에 '문화의 재발견'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했다"며 "이에 그날 바로 진관사 문화위원장으로 위촉했고, 오늘 이렇게 성대한 음악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마음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진관사에 오신 여러분들은 종교와 문화를 넘어 모두가 '꽃'같은 존재"라며 "오늘 야심차게 진관미학(음악회)을 준비했는데 모두 편안히 감상하시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축사를 통해 "진관사는 대한민국과 세계의 명사들이 현대적인 언어와 정서로 힐링 받는 한국의 '영빈관'으로 볼 수 있다"며 "오늘 '진관미학' 행사를 통해 마음을 힐링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마음껏 향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진관사는 한국의 보물 중의 보물"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악회에 앞서 내빈들을 맞이하는 특별공연이 진행됐다. 진우 스님, 상진 스님, 오세훈 서울시장 등 내빈들은 달을 형상화한 등을 들고 경내 일주문에서 극락교·해탈문까지 펼쳐진 사자춤, 풍물놀이, 비천무 공연을 감상했다.

성북구사찰연, '왕실다례' 첫 재현 나선다

사찰서 이뤄진 '진전다례'
10월 6일, 서울 흥천사서

사찰에서 행해진 왕실다례인 '진전다례'를 성북구사찰(사암)연합회가 처음으로 재현에 나선다.

성북구사찰사암연합회(회장 원경 스님, 심곡사 주지)가 9월 23일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찰음식 축제마당&왕실다례 재현' 행사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심곡사와 성북구사찰연합회가 10월 6일 서울 흥천사에서 왕실다례인 '진전다례'를 최초로 재현해 눈길을 끈다. 불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전통문화의 다양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전은 진(眞)이라 불리는 국왕의 초상화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는 전각이며, 술 대신 차를 올려 '진전다례(眞殿茶禮)'라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396년(태조 5년) 신덕왕후의 정릉 옆에 왕실 원당인 흥천사가 창건됐는데, 이곳에 조선 태조의 아버지 '환왕'을 위한 진전을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기록을 바탕으로 심곡사 다인(茶人)들로 구성된 감로다도회가 오전 10시 50분부터 흥천사 극락보전에서 진전다례 재현에 나설 예정이다. 다례 재현이 끝나면 오후 12시 10분까지 경내 상부 주차장 무대에서 판소리(이창준), 거문고(이다경), 전통 무용(구슬주머니), 국악기 연주(연 앙상블) 문화 공연이 이어진다.

김세영 성북구사찰연합회 종무실장은 "사찰에서 이뤄지는 왕실다례 재현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흥천사는 지금도 신덕왕후 다례제를 지내는 왕실 사찰 인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불교와 전통문화를 동시에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북구사찰연합회장 원경 스님은 "지역 주민들이 불교문화와 정신을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성북구사찰연합회는 사찰음식축제마당과 왕실다례 재현행사를 특별히 마련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채로운 사찰음식을 한 자리에서 체험·시식할 수 있는 '제2회 사찰음식 축제마당'도 흥천사 일대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성북구 사찰 7곳(심곡사, 흥천사, 관음사, 경국사, 운선암, 보덕선원, 방생선원)이 함께 힘을 모아 사찰음식의 진수를 선보인다. 김민재 기자

한·스복지재단 신임 이사에 곽홍규 회장

도심 스님, 9월 24일 임명
"자생력 위해 힘 써달라"



곽홍규 재스리랑카 한국경제인협의회장이 한국-스리랑카문화사회복지재단 신임 이사로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도심 스님은 9월 24일 곽홍규 신임 이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도심 스님은 "한국-스리랑카문화사회복지재단은 종단의 첫 해외 사업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며 "운영 및 홍보 측면에서 종단이 물심양면 도울테니 자생력 있는 복지타운 구성을 위해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곽홍규 신임 이사는 "문화재단 감사 난다 라타나 스님의 입적으로 빈자리가 크지만 노력하겠다"면서 "스리랑카에서 가장 좋은 복지타운이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종단 내외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곽 이사는 동국대 영문학과를 졸업 후, 주식회사 효성에서 근무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16~20기 위원으로 활동했다. 스리랑카 한인회 회장, 아시아 한인회 총연합회 부회장, 스리랑카 한인불교 신도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한국-스리랑카문화사회복지재단은 2004년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당시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설립됐다. 2008년 스리랑카 말레에와 비앙고다 지역에 스리랑카 조계종 복지타운을 건립해 쓰나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수용했다. 김가령 기자

봉은사, 1230주년 개산대재 맞아 전통문화축제

10월 3~11일, 불사·문화행사 개최
생전예수재 49일 회향기도 봉행도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가 개산대재 1230주년을 맞아 10월 3~11일 경내에서 역대조사 다례재를 비롯한 세대통합 전통문화축제 '1230주년 봉은사 개산대재 전통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축제의 시작인 10월 3일에는 경내 대웅전에서 역대조사 스님들의 업적을 계승하고 뜻을 기리는 '역대조사 다례재'를 연다. 10월 5일은 판전의 주요 소장 문화재 〈화엄경판 인경본〉을 정대(頂戴)하고 봉은사 도량과 법계도를 요잡(繞匝, 부처를 중심으로 주위를 돌아다니는 일)하는 '정대불사'를 진행한다. 또한 10월 10~11일 양일간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52호 '봉은사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회향을 불교 전통방식으로 봉행한다.

더불어 진행되는 전통문화축제는 '체험, 전시, 공연' 등이 집합된 문화의 장이다. 전통 차 문화를 체험하는 '찻자리 및 다식체험'이 준비됐으며 '한복체험 및 인생네컷'에서는 전통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다. '사찰음식 홍보행사'에서는 사찰음식 시식과 떡메치기 체험이 가능하다. 전통지화와 전통민화 등 전통기념품을 만들 수 있는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다채로운 전통문화 전시도 마련된다. 사찰의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은 '전통사찰 사진전시회'를 비롯해 중국 리야오쯔 선생의 '세계의 옛 마을 서화 순회전'이 열리며 '찻사발 전시전'도 열린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봉은사와 MOU를 체결한 지자체 5곳(담양군, 장성군, 해남군, 평창군, 부여군)이 참여하는 '도농상생 직거래장터'도 열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통문화 공연에서는 조선시대 왕실이 봉은사 방문을 재현한 '왕실의 산책'과 '봉산탈출' '난타공연' '마당놀이' '태권도 시범공연 및 전통무용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한 봉은사는 10월 9일에 경내 교육관에서 '나청호 대선사 학술세미나'를 열고 을축년(1925년) 대홍수로 목숨을 잃을 뻔한 재난민 708명을 구한 나청호 대선사의 업적을 기릴 계획이다.

봉은사 측은 "1230주년 봉은사 개산대재 전통문화축제는 나와 내 가족, 주위 생명의 가피를 기원하는 행사"라며 "풍요로운 가을날 지역주민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선사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가령 기자

2024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4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신청자격
1.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신청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모바일앱(Play스토어) 〈내곁에 국민연금〉 설치 ▶ 로그인(간편인증) ▶ 우측상단 증명발급 선택 ▶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선택 ▶ 화면 맨 하단 팩스발급 선택 ▶ 팩스번호 입력 후 확인 선택 ▶ 요청하신 팩스번호로 발급 완료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방문 발급
4)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전화신청(팩스로 받을 수 있음)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10월 1일(화) ~ 10월 31일(목)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 → 지원금 입금(상반기 7월, 하반기 12월 지원 예정)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1.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미제출된 스님
※ 신규 지원신청하신 분들은 차기년도부터 해당되며, 기지원자 스님은 보험료 납부종료 시까지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지원 혜택이 가능함
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3. 분한신고미필 및 결계 미등재 스님
4.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보험료 미납하신 스님
7. 군 복무 중인 스님
8. 기타
※ 위 항목에 해당되시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중도에 변동사항 발생 시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1인당 월 36,000원(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문의처
1. 문의처 : 02-2011-1980~1, 1726~7
2. 기 타 :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게재

불기2568(2024)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성 화


계첩을 받는 학생대표들.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는 9월 24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2024 Young Camp(영캠프): 주인공'을 개최했다. 영캠프의 하이라이트로 진행된 수계법회에서는 2500여 동국대 재학생들이 참여해 불자로 거듭났다.


전계대화상 돈관 스님이 오계를 설하고 있다.


스님이 학생에게 연비의식 일환으로 단주를 전하고 있다.


학생들이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2500여 동국인, '청년 불자'로 거듭나다

동국대 건학위, 'Young Camp' 개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계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계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계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2500여 동국대 재학생들이 참된 불자가 될 것을 서원하며 불·법·승 삼보에 귀의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위원장 윤재웅)는 9월 24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2024 Young Camp(영캠프): 주인공'을 개최했다.

'영캠프'는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염원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로, 대학생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청년 불자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의 지원으로 추진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동국대 불교동아리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축제로, 지난 5월 발족한 학생기획위원단이 주도해 의미를 더했다. 학생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함으로써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힙한 불교, 젊은 불교'의 이미지를 구현해냈다.

이날 영캠프의 하이라이트는 2500여 재학생들이 참여해 진행된 수계법회였다. 이날 수계법회 전계대화상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3사7증엔 호산·경우·원명·성행 스님 등 법인 이사·감사스님들이 참여했다.

법상에 오른 전계대화상 돈관 스님은 계의 중요성을 수계 대중에 설했다. 돈관 스님은 "계는 어렵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계는 자기를 찾아가는 길잡이며, 이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부처님과의 약속이 수계"라면서 "수계는 어두운 이 밤을 밝히는 등불이며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뗏목이다. 먼 길을 가는 나그네의 양식이며, 병든 이에게는 좋은 약이고, 혼탁한 물을 깨끗이 맑히는 구슬과 같으니 수계 대중은 명심해 받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돈관 스님은 수계 대중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고 자비심을 가져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복덕을 지어라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고 청정한 행을 지켜라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술과 같은 중독성 물질을 가까이하지 말고 맑은 지혜를 길러라는 오계를 설했다.

계를 수지한 학생들은 "지난 오랜 세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게으른 마음으로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에 몸과 말과 생각을 가다듬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겠나이다"라고 지난 잘못을 참회하며, 불·법·승 삼보에 귀의했다.


비텐스 스님들의 축하공연.

자승 대종사 염원서 시작된 프로젝트
2500여 재학생들 수계 받으며 완성돼
돈관스님 "수계, 바른 삶 실천의 약속"
수계 학생들 "참된 불자로 거듭" 다짐


뉴진 스님의 디제잉 공연.

계를 수지한 학생들은 수계법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동국대에 입학해 불교를 접했다는 윤산(컴퓨터 공학과 1학년) 씨는 "학과 불교동아리 회원이어서 수계법회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거짓말하지 말고 생명을 해치지 말고 자비심을 가지라는 이사장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됐다. 앞으로도 참된 불자가 될 수 있도록 정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관(自觀)'이라는 법명을 받은 류용현 단장은 "이번 여름 내내 영캠프를 준비하며 정말 기대하고 설렜다. 여기에 직접 이사장스님께 계첩을 받게 돼 정말 기쁘다"면서 "스스로 변화된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선재(善財)'라는 법명을 수지한 최윤정 부단장은 "오늘은 '다붓다붓' 동아리 회장보다는 한 명의 불자로서 뜻 깊은 경험이 되지 않았나 싶다"면서 "요새 고민들이 많았는데 수계를 받으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영캠프 대미는 청년 불자들을 위한 페스티벌로 장식했다. 비텐스 공연으로 시작된 페스티벌은 개그맨 윤성호 씨와 유튜버 섭이가 사회를 맡아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미니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뤄졌으며, 윤성호 씨의 부캐 뉴진 스님의 디제잉 공연도 진행됐다.

24인조 걸그룹 트리플 에스, 가수 케이윌, 힙합듀오 다이나믹듀오가 무대에 올라 축제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한편, 동국대 서울캠퍼스 불교동아리들은 올해 창립됐다. 지난 3월 20일 사회과학대학 불교동아리 '템플애플'을 시작으로 5월 11일 동국대 미래융합대학 불교동아리 '퓨처핸접' 창립으로 14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을 완료했으며, 5월 30일에는 동국대 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 '동국청년불자회'가 창립했다. 현재 2500여 명 회원이 각 단과대학·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템플스테이
선명상과 함께하는 휴식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템플스테이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Korean Temple Food Center

지역	사찰명	프로그램명	진행 일자	주요 프로그램
서울	국제선센터	1. 내 마음에 선함 2. K-명상 K-템플스테이 3. K-meditation K-templestay	프로그램 별 상이	선명상 (추식론, 그리고 일상수행을 위한 마음 다루는법)
	봉은사	상월선원 템플스테이	매월 넷째주 / 금~일	9시간 참선 정진
	석불사	나, 지금 여기 내 마음 바라보기_선명상	매월 1회	아침 명상, 한강 명상
	화계사	'선명상 템플스테이' _'일상생활속의 마음챙김'	매월 2회	선명상 이론 및 실습
	금강정사	마음챙김 -선명상 템플스테이	매월 둘째주, 넷째주 / 토~일	차 한잔 오감명상, 별보기 명상
	대광사(성남)	내 마음 주인되기 선명상 템플스테이	매주 토~일	고구려북 선명상, 풋음처유 선명상
	법룡사	선명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별 상이	붓다볼 명상, 바디스캔 명상
	봉녕사	'마음놀이 숨바꼭질' 선명상 템플스테이	매주 토~일	와선명상, 붓다볼 명상
	봉선사	선명상 템플스테이	매주 토~일 (체험형)	비밀의 숲 명상, 108배 명상
경기	봉인사	1. 연달을 향상하는 선명상 템플 스테이 2. 나를 사랑하는 자비명상집중 템플스테이 3. 몸건강을 위한 디톡스요법 참한공 치크라 요가 4. 힐링의 숲에서 선명상 템플 스테이 5. 스님과의 상담이 있는 명상 템플스테이	매주 토~일	몸과 마음 알아차리기 선명상
	용주사	마음의 평화를 위한 선명상 템플스테이	매월 셋째주 / 금~토	둘레길 숲명상, 호흡명상체조
	연주암	마음의 빗장을 열고 내 안의 나에게 주는 '쉼표' 셋 '선명상 체험'	매월 둘째주, 넷째주 / 토~일	선명상
	육지장사(양주)	선명상을 통해 나를 알아차리는 시간: 禪-차 템플스테이	매주 금~일	108배 명상, 보행명상
	흥국사(고양)	선명상스테이	매주 토~일	숲치유 오감명상, 힐링터치
인천	연등국제선원	"마음의 문고리를 잡다" 선명상 템플스테이	상시 운영	인도 출신 주지 스님의 선명상 지도
	전등사	내안에 나를 마주하다- 전등사 "맞-선" 템플스테이	매주 토~일	좌선명상, 하타요가
강원	낙산사	[선명상 템플스테이] 적멸을 위하여	9/14~9/15	파도명상, 소리명상 또는 걷기명상
	백담사	백담사 마음하나 선명상 템플스테이	매월 1회 (토~일)	별빛달빛참선, 숲명상
	삼화사	무릉계곡 선명상 템플스테이	매월 1회 (금~일)	무릉계곡 트래킹 명상, 해돋이 명상
	용연사	선명상 템플스테이	매월 중순 1회	걷기명상
	월정사	[선 명상] 템플스테이: 오롯이 바라보기	매주 토~일	상잉볼 명상, 숲 명상
제주도	약천사	참나를 찾아가는 선 명상(숨비명상)	매주 일~화	숲걷기명상, 호흡관찰 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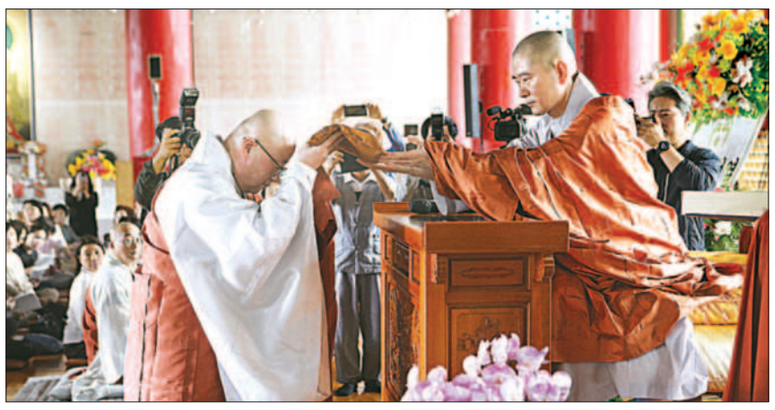
* 일정 및 프로그램은 각 사찰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각 사찰에 문의 바랍니다.

지역	사찰명	프로그램명	진행 일자	주요 프로그램
충남	지장정사	내 마음 바로보기 선명상 템플스테이	매월 2회 / 토~일	알아차림 명상, 깔걸음 명상, 차 명상
	학림사	생각을 쉬어가는 절 나는 무엇인가?	상시 운영	선방 좌선, 소참법문, 전심법요 보설 강설
	한국문화연수원	선명상 템플스테이 -심승지 명당 기운을 얻어	상시 운영 (단체)	단다라 명상, 힐링 호흡 명상
충북	법주사	행복을 찾아가는 선명상	매주 토~일	상잉볼 소리 명상, 천년의 숲 걷기 명상
	용화사(청주)	차와 함께하는 선명상스테이	매주 금~일	기초 차명상, 차담 명상
	석종사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템플스테이	매월 둘째주, 넷째주 / 화~수	참석 체험, 문답 시간
전남	대흥사(해남)	선.선.선(禪.茶.線) 템플스테이: 지금 당장 행복하자!	매월 셋째주 / 토	행선/참선/다선 명상
	백양사	참사람 선명상 템플스테이(단일형)	9/21 마인드 와이핀, 명상차	걸기 명상
	불갑사	참 나를 찾아 가는 길 -마음사용설명서	매월 넷째주 / 토~일	
	승광사 (순천)	매월 한 번 참선스테이	매월 셋째주 / 토~일	소리명상, 자애관 명상
	쌍봉사	禪명상 - 수행과 마음의 평화	매월 2회 (단체 접수)	자비 명상, 꽃 명상
	용흥사(담양)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매주 토~일	선명상
	무위사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이	9/13 ~ 9/19	선명상
전북	선운사	1. 도솔제 걷기명상 2. 차발 걷기명상	매월 첫째주, 셋째주 / 토~일	아침 걷기 명상, 상잉볼 명상
경남	문수암	비분(비라보기) 선명상 템플스테이	매주 수~목	선명상 이론 및 실습
	대원사(산청)	깊은숨 깊은쉼 선명상	매월 첫째주 / 토~일	선방좌선, 차명상
경북	심원사(성주)	선명상 템플스테이 - 쉬어가는 마음으름	상시 운영	가야산 숲길 명상, 해돋이 명상
	자비선사	1. 내마음 보기 자비수선명상, 2. 자비경선 걷기선명상, 3. 참마음을 찾아서 자비선명상	매주 토~일	자비선명상 이론 및 실습
	장육사	지금 이순간! - 선명상스테이	매월 셋째주 / 토~일	선명상
	직지사	내 마음 깊이 살펴보기 [선 禪]-명상체험형	매주 금~일	호흡 명상, 선무도
	축서사	쉬고 쉬고 또 쉬고 (7일 참선 집중 수행)	매월 첫째주, 셋째주 / 일~토	선방좌선, 큰스님 친견
대구	동화사	'일심'이! 선명상 특별 템플스테이	매월 둘째주 / 금~일	좌선 명상, 선무도
부산	범어사	선명상 템플스테이	매주 토~일	선명상
	홍법사	선명상 - 나는 누구인가?	매월 첫째주 / 월~화	호흡명상, 화두명상

현진 스님, 전계·전강…"중생에 다가가라"

9월 22일, 동화사서 법회 봉행
제자 33명에게 전계 및 전강해
제자들 "정법, 세상에 전할 것"
의현 대종사, "영겁 인연 결실"

대구 동화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팔공총림 동화사 율주 영은 현진 스님의 전계전강 법회가 9월 22일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에서 봉행됐다.

"충천(衝天)의 대장부 기질을 지닌 수행자여! 부처의 마음에 부합하지 않는 말이면 말하지 말고, 부처의 법다운 위의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 비원(悲願)의 굳건한 두 다리로 당당히 무명조림(無明稠林)에 가려있는 중생에게 다가가라"

팔공총림 동화사 율주 영은 현진 스님의 전계전강 대법회가 9월 22일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에서 봉행됐다.

전계전강법회는 부처님과 조사의 혜명을 대대로 잇는 '부종수교 전불심인(扶宗樹敎 傳佛心印)'의 장이다.

전계·전강사 현진 스님은 1973년 원명 대종사를 은사로 입산해 1989년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영축총림 통도사 승가대학, 은해사 종립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직지사 승가대학 강주, 조계총림 송광사 승가대학 강주, 영축총림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를 역임했고 현재 팔공총림 동화사 율원 율주다.

현진 스님의 전법 강맥은 석가모니 부처님·아난 존자(阿難 尊者)·경허 성우(鏡虛 惺牛)·한암 중원(漢巖 重遠)·탄허 택성 (呑虛 宅成)·여천 무비(如天 無比)이며, 전계 율맥은 석가모니 부처님·우바리 존자·남산 도선(南山 道宣)·원조 영지(元照 靈芝)·자장(慈藏)·혜관(慧寬)·보담(寶曇)· 석교(石橋)·상월 인환(霜月 印幻)·범일 보성(梵日 菩成)이다.

전계·전강을 받은 제자는 △현진(보현사 주지) △도연(황룡사 주지) △정헌(동국대 강사) △혜천(감응사 주지) △향산(고운사 화엄학림 전문반 재학) △현정(통도사 율원 교수사) △능인(수덕사 강원 교수사) △인법(수덕사 강원 학감) △연학(수덕사 강원 교수사) △진휴(동화사 강원 학장 대행) △효진(극락암 주지) △해공(동화사 율원 율감) △청와(대안사 주지) △인공(회암사 주지) △무진(내원사 주지) △시륜(동화사 율원 연구반 재학) △선주(동화사 율원 교수사) △효담(통도사 강원 교수사) △성만(정법사 기도) △명안(통도사 강원 교수사) △원덕(동화사 율원 연구반 재학) △눌주(법장사 주지) △정일(통도사 연수국장) △현장(통도사 회계과장) △서명(초기불교 승가대학원 전문반 재학) △명원(정법사 총무국장) △증엄(동화사 율원 연구반 재학) △여운(해인사 강원 교수사) △법일(동화사 포교국장) △금후(동화사 강원 교수사) 스님 등 전강 제자 31명과 혜범 스님(동화사 호법국장)과 현종 스님(동화사 재무국장) 등 전계 제자 2명을 포함해 총 33명이다.

현진 스님은 이날 전계전강 제자에게 부처님과 조사의 혜명을 잇는 수행자로 살아 갈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두 손에는 언제나 환희라는 씨줄과 융화의 날줄로 짠 보배그물을 들고서 어리석음이란 파도 속으로 들어가는 중생을 향해 힘껏 던져 일깨우라"며 "그리하여 대자(大慈) 대비(大悲) 대희(大喜) 대사(大捨)의 길을 넓혀가는 걸음을 멈추지 말지니 삼세 모든 부처님과 조사가 그러했듯이 금일 법석의 대중들도 그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전계전강 제자들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계법의 등불과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선정과 지혜, 자비를 성취할 수 없음을 알았다"며 "영은 현진 스님의 큰 은혜로 부족하나마 눈을 떠 조사와 조사가 전하신 부처님의 법과 율을 오늘 저희 전계전강 제자들이 받았다"고 감사했다. 이어 "저희 제자들은 위로는 부처님의 제자로 아래로는 스승님의 제자로서 전해주신 가르침에서 물러나지 않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세상에 꽃피울 수 있도록 부단히 수행하고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전계전강식에는 동화사 방장 의현 대종사와 주지 혜정 스님,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홍법사, 선차의 세계 널리 알린다

10월 5~6일, 제28회 세계선차아회 개최

홍법사 선차대회 중심으로
아시아 차인들 참여 행사

세계 선차 문화의 중심으로 홍법사가 발돋움한다.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제28회 세계선차아회'가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홍법사는 매년 세계선차아회를 열고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에 선차를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선과 차가 만나는 자리 '선차아회(禪茶雅會)'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차와 불교문화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아시아 대표 다도인들이 참석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다도 문화를 통해 선의 진수를 나누는 자리로 확장됐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홍법사는 매년 세계선차아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여유롭게 행사를 누리고 즐기며 차를 통해 선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제28회 세계선차아회는 개막식에서 각국의 선차 행다가 발표된다. 10월 5일 오후 2시 홍법사 야외 무대에서 개막식을 열고 선차 행다 시연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한국, 중국, 일본, 홍콩에서 참여하는 각국의 대표 시연단이 참여해 각 20분씩 선차 행다를 발표한다.

개막식에 앞서 오전 10시 30분에는 세계 석학의 '다론(茶論)', 좌담회가 진행되며 이어 개막식전 공연으로 천연염색 퍼포먼스와 선·차·악, 붓글씨 퍼포먼스 등이 펼쳐진다. 오후 6시부터는 한국의 무상 선사와 중국 조주 선사, 일본 무라다슈코에게 올리는 헌다 의식 및 평안등 점등식과 사찰음식 홍보행사, 등불춤과 피리연주, 싱잉볼 등 다채로운 축하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선차 학술대회는 '동아시아 선차 문화의 만남'을 주제로 10월 6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는 세계석학 10인이 참여하며 불교와 유교, 도교의 문화를 품고 있는 차에 대한 의미를 고찰한다.

최석환 한국국제선차문화연구회장은 "무엇보다 홍법사가 선차 문화의 선양에 앞장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선차아회는 대중이 함께 참여하며 체험하는 시간이다. 특히 학술대회를 통해 선차 문화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세계선차아회는 2013년 11월 송광사에서 시작됐다. 이어 양평 용문사, 상원사에서 열렸으며 중국으로 옮겨가 국제무대로 확장됐다. 지난 2017년에 홍법사에 열렸으며 이후 7년 만에 다시 홍법사에서 진행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聯, 팔관회 명상걷기대회 음악회

9월 20일, 북항친수공원서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가 9월 20일 부산항 북항친수공원에서 '2024 팔관회 명상걷기대회 음악회'를 봉행했다.〈사진〉

폭우로 인해 명상걷기대회는 취소됐으며 팔관회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 음악회가 열렸다.

음악회에는 가수 조장혁, 상월청년합창단, 밴드 나인즈, 자전거 탄 풍경, 불자가수 권미희 등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보였다. 음악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임원스님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팔관재계를 설명하고 참가자들을 위한 경품 추첨을 진행했다. 경품에는 김치냉장고, 스타일러, 음식물처리기, 태블릿, 스마트 워치, 백화점 상품권 등 푸짐한 상품이 마련돼 많은 호응을 이끌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정오 스님은 "비록 지금 비가 오지만 시간과 공간을 잊어버리고 음악을 즐기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명상"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4 팔관회 본행사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금정총림 범어사 일원에서 봉행된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반야선원, 베트남 불자 위한 도량으로

9월 22일 베트남 불자 첫 법회



금정총림 범어사 직할 포교원 반야선원(주지 안도 스님, 이하 반야선원)이 베트남 불자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9월 22일 반야선원에서 베트남 불자들이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법회는 부산 경남의 많은 베트남 불자들이 법회를 진행할 법당을 찾고 있다는 사연을 듣고 마련된 시간이다.

법회에는 반야선원 주지 안도 스님, 실천승가회 일문 스님, 베트남 각려호 스님 및 베트남 불자 80여 명이 법회에 동참 했다. 이번 법회를 시작으로 베트남 불자 법회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 반야선원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반야선원 주지 안도 스님은 "비록 생김새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베트남에서 불자 여러분들은 모두 부처님의 아들 딸이며 우리의 형제이자 식구이다"며 "여러분들을 위해 반야선원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을 것이니 언제든 편히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전등사서 강화 역사문화를 만나다

제24회 삼랑성역사문화축제
10월 5~13일 전등사서 열려

삼랑성역사문화축제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장윤 스님)는 10월 5~13일 강화도 전등사에서 제24회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발자취'다. 10월 5일 오전 10시 '삼랑성 전국학생 미술대회'를 시작으로 오후 1시에는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의 역사 강좌 '우리가 몰랐던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진실', 오후 2시에는 전등사 대웅보전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준비돼 있다.

오후 7시부터 방송인 전제향의 사회로 '전등사 가을음악회'가 열린다. 10월 6일 오후 1시에는 호국영령을 위한 '영산대재'가 봉행된다.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축제 추진위원장)은 "많은 인천지역민들과 관람객들이 축제를 즐기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032-937-0125 임은호 기자





선운사, 고창 지역문화 진흥 이끌다

9월 21~22일 경내 일원서
'제16회 선운문화제' 봉행
수륙무차평등대재 등 진행
11월 30일까지 야간 개장

조동제 전북지사장


제16회 선운문화제의 마지막 날인 9월 22일 진행된 산사음악회의 모습.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가을을 맞아 9월 21~22일 양일간 경내에서 '제16회 선운문화제'를 열고 수륙무차평등대재와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선운문화제는 선운사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알리고, 지역문화의 중심으로서 사찰의 새로운 문화적 가치 창조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원로 법현 스님, 종회의원 태효 스님 등 선운사 본말사 스님들과 정찬원 선운사 총신도회장, 심덕섭 고창군수, 김관영 전북지사, 서거석 전북교육감, 윤준병 국회의원, 정청래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수륙무차평등대재는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전북무형문화재 18호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봉행됐다. 첫날인 21일에는 시련, 대령, 사자단 의식, 오로단, 중단의식이 진행됐으며 이튿날인 22일에는 상단권공의식과 관욕의식, 하단권공의식과 봉송의 순으로 이어졌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법요식에서 "선운사는 2021년에 550여 년의 전통을 이은 수륙무차평등대재를 복원하고 해마다 열리는 선운문화제에서 설행하며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해가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선운사와 선운문화제에 방문해 지역사회 발전과 전통문화 가치 증진, 한국불교 도약의 장 마련의 기회를 얻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축사에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선운문화제를 통해 대중들이 종교를 초월한 지혜의 삶을 찾고 함께 세계 일화 세상을 일구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축사를 전했다. 김 도지사는 "선운사는 선운사복지재단을 통해 따듯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일조하고 있다"며 "선운문화제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찾아온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에서 선운사는 동국대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 수디프타 스님 등 4명의 외국인스님들에게 선운사 장학금을 전달했다.

선운문화제의 마지막 날인 9월 22일 진행된 산사음악회는 선운사보은합창단의 음성공양으로 막을 열었다. 1부는 상월비보이단 '이에이트 크루', 상월청년합창단, 조계종 연예인전법단 가수 목비, 국악가수 최예림과 '이에이트 크루'의 콜라보 공연들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봉은국악협주단과 국악인 박애리 등 국악 공연과 동국대 한국음악과 학생들의 공연이 이어졌다.

더불어 제21회 선운산 꽃무릇 창작시 공모전 시상식이 열려 일반부 금상 서은옥씨등 일반부와 중고등부 입상자들이 수상했다.

한편, 선운사는 많은 지역민들이 선운사의 가을밤을 만끽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30일까지 밤 9시까지 야간 산문을 개방하고 있다.

진호 스님, 1100여 장병 불자로 이끌다

9월 21일 호국연무사서 법회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이 논산 호국연무사에서 1100여 명 육군 장병을 부처님 제자로 이끌었다.

진호 스님은 9월 21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를 방문해 육군 장병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는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청성과 청법가, 청사와 개도, 법문, 참회와 연비의식, 계첩 수여와 후원금 전달, 사홍서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법석에 오른 진호 스님은 "여러분께 수계를 하는 것은 부처님 가피로 안전하고 올바른 장병생활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오늘 수계 받은 장병 여러분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병영생활을 마치고 제대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팔에 연비를 받은 장병들은 오계를 봉독한 뒤, 수계첩을 받고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났다. 진호 스님은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훈련장병들의 병영생활을 지원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원융종 명진 스님을 비롯해 진도 약사사 주지 체효 스님 등과 원융종 신도가 동참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재)일붕선교종, 종도 하계연수교육

9월 24~25일 교원연수원서



재단법인 일붕선교종(총무원장 혜일 스님)이 9월 24~25일 양일간 충남 아산 도고 교원연수원에서 '2024년 종도 하계연수교육'을 열고 종단 발전을 논의했다.〈사진〉

이날 자리에는 종정 대륜 스님, 원로의원 경원 스님, 승원 스님, 총무원장 혜일 스님, 종회의장 도정 스님, 호계원장 동청 스님, 교육원장 지언 스님, 문화원장 제법 스님, 감사원장 법광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종정 대륜 스님은 "멀리서 오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이 자리에 모인 종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종단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간략하게 법문했다. 이어 총무원장 혜일 스님은 "우리 종단은 일붕 서경보 존자님의 가르침을 이어 대중포교에 나서는 한편, 불사 원만 성취와 법사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함께 절차탁마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담양 용흥사 불교대학 첫 발 내딛다

9월 22일, 1기 입학식 봉행



담양 불교를 이끌어갈 제1기 용흥사 불교대학이 힘찬 첫걸음 내딛었다.

담양 천년고찰 용흥사(주지 덕유 스님)는 9월 22일 경내 대웅전에서 용흥사 불교대학 제1기 입학식을 봉행했다.〈사진〉 용흥사 불교대학은 담양불교를 이끌어갈 불교 인재양성을 목표로 창립했다.

입학식에는 총 31명의 신입생이 참석한 가운데, 학장인 용흥사 주지 덕유 스님과 강사로 참여하는 연화어린이집 원장 형진 스님, 지우 스님, 덕안 스님, 선문 스님 등이 동참했다.

용흥사 불교대학은 1년 과정으로, 지난 7월 2일 조계종 교육원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신입생 모집을 모집해 이날 31명의 제1기 신입생이 탄생했다. 교과과정은 1학기 기초과정으로 △불교입문(강사 형진 스님) △부처님의 생애(강사 덕유 스님) △불교기초교리(강사 덕안 스님) △불교의 수행법(강사 선문 스님) △불교의 의례와 문화(강사 지우 스님)이 진행되며, 2학기 심화과정에서는 초기경전, 반야심경과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용흥사 주지 덕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25년 전 아무것도 없던 용흥사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원력으로 오늘날 모습을 갖추었다. 불교대학도 시작은 미미하지만 수많은 노력과 인연공덕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 교육기관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 열심히 공부에 정진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수덕사, 경허 스님 175주년 탄신다례

9월 26일 경내 대웅전서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이고 선맥(禪脈)의 토대를 다진 경허 스님의 탄생 다례재가 봉행됐다.

조계종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가 경내 대웅전에서 경허 스님 175주년 탄생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탄신다례는 21위의 역대대사 다례와 함께 설행했다.

다례재에는 덕숭총림 방장 우송 달하 대종사,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학술원 원장 정묵 스님, 종회의원 정범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들과 김종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스님의 유훈과 탄신을 기렸다.

설정 스님은 "경허 선사는 '평상심이 곧 깨달음'임을 중생에게 전하고 자비를 베풀어 부처님의 정법을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신 선지식이었다. 그분을 닮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허 스님은 1849년 전주에서 태어나 의왕 청계사에서 출가한 뒤 끊어진 한국불교의 선풍을 다시 일으키고 만공 스님, 혜월 스님, 수월 스님 등 수많은 제자를 배출한 뒤 1912년 입적했다.

한편, 경허록만공법어편찬위원회(상임위원장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이하 경편위)는 2022년 10월부터 진행해 온 경허록 및 만공법어 연구·출판 사업이 올해 12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결과물로 경허록과 만공법어 정본, 두 선사 관련 자료집 등 총 4권의 책이 발간된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화엄사, 도광·도천 대종사 행장기 봉헌

9월 25일 각황전 · 부도전서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는 9월 25일 경내 각황전과 부도전에서 '리산당 도광 대종사 원적 40주기 및 도천당 도천 대종사 원적 13주기'를 맞아 두 스님의 행장기를 봉헌하고 합동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화엄사 문장 종국 스님은 "바쁜 일정에도 두 스님 추모다례재에 참여해 주신 대중스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화엄 문도들은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화합하며 열심히 수행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봉헌된 도광·도천 대종사 행장기는 원로스님들의 고증과 허권 화엄선재불교연구소장 등의 노력으로 대중에게 공개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 영미권 현지화… 美 출신 불교도 증가

서구문화 융화 불교 인기↑
북미 포교사 70% 현지출신
"불교 가르침은 모두 동일,
사람들 자비 · 관용에 이끌려"

박영빈 객원기자


온라인으로 법회를 진행하는 헨리 아담스 스님. 사진출처=교도통신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돼 전해오던 불교가 점차 영미권 현지사회와 동화되고 있다. 최근 불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미국 출신의 포교사와 출가자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말하는 영미권이 바라보는 불교의 장점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9월 15일 일본의 '교도통신(共同通信)'은 미국사회 속에 융화되고 있는 불교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실리콘밸리에 가까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 산마테오의 정토진종 본원사파의 사찰 '산마테오 불교회'는 110년에 걸쳐 현지에서 불교를 전해왔다. 매주 일요일 아침 봉행되는 법회에는 온라인 참석자를 포함에 약 30여 명이 모인다. 법당의 내부는 전통 사찰보다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예불 때 오르간이 사용되는 등 아시아에서는 보기 드문 방식으로 법회가 진행된다.

산마테오 불교회의 주지 헨리 아담스 스님은 "나라가 바뀌어도 불교의 가르침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아담스 스님은 혼간지파가 일본에서 세계로 파견하는 포교사 스님인 '개교사(開教使)' 중 한 명이다. 평범한 백인 기독교 가정 출신 아담스 스님은 1995년, 교환 유학생으로 1년간 체재한 인도에서 구걸하는 빈민층이 가득한 거리를 목격하고 빈곤에 대한 깊은 생각에 빠졌다. 스님은 "그때 사람의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알고 불교에 흥미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후 대학원 등에서 불교를 더욱 깊게 배우고 일본에서 수년간 국제교류원으로 일했다.

스님은 "아미타부처님의 본원에 몸과 마음을 맡긴다는 정토진종의 사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불교로 개종하게 된 계기를 말했다. 이후 외국인이라도 개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교토의 본산에서 수년간의 공부 끝에 2008년에 출가, 이후 2013년 산마테오 불교회의 첫 백인 개교사로 취임했다.

정토진종 본원사파 측은 "현재 북미지구 개교사의 70%가 미국 출신"이라며 "이전에는 주로 일본인이 개교사를 맡았지만 점차 미국출신의 개교사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내 불교신자들의 모습도 바뀌고 있다. 불교도가 다수였던 이민자 가정 1~2세대 이후 젊은 세대들은 미국사회에 스며들어 불교와 친근감을 느끼는 세대의 비율이 떨어졌다. 반대로 기독교 등에서 불교로 개종하는 미국인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아담스 스님은 "미국인들에게 불교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미국사회에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이미지는 관용과 자비의 모습인 것이다.

불교로 개종한 한 미국인 여성은 성소수자로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지만, 교회에서 동성파트너와 이별할 것을 수차례 강요받아 개종해 불교도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교토에서 출가한 유대교 출신 스테이시 리어던 스님은 "불교란 신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아를 깨뜨린다는 것에 끌렸다"며 개종 이유를 말했다.

아담스 스님은 "불교가 탄생한 2500년 전 인도, 정토진종이 열린 가마쿠라 시대의 일본, 그리고 21세기의 실리콘밸리. 시대가 바뀌어도 불교는 사람을 위해 계속 있었다"며 "불교의 가르침은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진리"라고 강조했다.

日, 불보살 따르는 '권속' 특별전 '인기'

교토 류코쿠대학 박물관서
일본 중요문화재 한자리에


제작 당시의 문화상이 담긴 '보현십나찰녀도'. 사진출처=미술관 내비

불교미술에서 불보살을 따르는 신중인 '권속'에 주목하는 특별전이 일본에서 열려 화제다. 지난 9월 21일 일본 '교토신문(京都新聞)' '미술관내비(美術展ナビ)' 등은 교토 류코쿠대학박물관에서 개최되는 전시 '권속, 부처님을 따르는 이들(眷属―ほとけにしたがう仲間たち―)'에 대해 보도했다.

'권속'은 불교에서 신앙의 중심 불보살을 따라 불법을 수호하고, 수행자를 돕는 신중들이다. 약사여래불의 권속 12야차 신장, 준제보살의 난타와 발난타 용오아형제 등이 대표적이다.

교토 시모교구의 정토진종 혼간지파 종립 류코쿠대의 류코쿠박물관(龍谷大学ミュージアム)은 특별전 '권속: 부처님을 따르는 동료들' 전시가 성황리에 종료됨에 따라 추계특별전으로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전시에는 일본 불교미술의 보고로 불리는 나라국립박물관(奈良国立博物館) 소장 이십팔부중상(二十八部衆像), 고야산 콘고부지(金剛峰寺)가 소장한 국보 부동명왕팔대동자상(不動明王三童子像) 등 일본 국보 혹은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전시는 총 4장으로 △권속이란 무엇인가? △불법을 지키는 신들 △부처님을 섬기는 아이들 △끝없는 권속의 세계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전시에 이어 100여 점이 넘는 권속상과 불화들이 대거 전시되며 일본의 전통종교 '신도(神道)'의 권속 등도 소개된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전시가 대중의 인기를 끄는 이유로 다양하고 자유로운 권속들의 모습을 짚었다. 작가와 시대, 지역 등에 따라 변화하는 권속들의 모습이 대중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특히 14세기에 그려진 '보현십나찰녀상(普賢十羅刹女像)'은 〈법화경〉의 보현보살과 나찰녀 10명을 묘사했는데, 나찰녀들이 일본 궁녀 복식을 입어 당시 의복문화를 알 수 있는 중요 자료로 꼽힌다.

류코쿠박물관 측은 "이번 전시는 추계전시를 확대한만큼 명작으로 꼽히는 여러 권속의 그림과 조각을 모았다"며 "불교미술에서 다채롭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권속을 다시금 부각하는 이번 특별전에서 도상들의 생동감과 다양성에 주목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불교 사원, 호스피스 케어센터 운영

지역병원 연계, 협력 체계 구축
부처님 가르침으로 환자 안정


태국 호스피스 · 완화케어센터에 입원한 말기 환자에게 법문을 전하는 스님. 사진출처=더 네이션

지난 9월 21일 태국 영자신문 '더 네이션(The Nation)'은 태국불교 사원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를 소개했다.

태국 동북부 나콘랏차시마 주의 왓 파 논 사아트 사원의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는 '웰다잉(Well-dying)'을 불교의 가르침으로 풀어 환자가 평화로운 임종을 맞도록 도와주고 있다. 센터에서는 암 말기 환자, 취약계층, 간병인이 없는 노인, 아픈 스님에게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고 있다.

왓 파 논 사아트 사원의 주지 프라 생프라흐 판야카모 스님은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가 병원과 사찰 간 협력의 장이 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중증 말기 환자의 경우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10만 바트(한화 약 4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든다. 호스피스센터에 온다면 환자는 중환자실 비용을 절감하며 심리적 안정까지 가능하다"면서 "병원은 의료인의 번아웃을 예방해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어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긍정적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는 출가자와 재가자 등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74명이 말기 환자와 임종이 임박한 환자를 돌보고 있다. 센터는 7천만 바트(한화 약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센터 방문이 어려운 재택의료 환자와 노인을 위한 온라인 법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민재 객원기자

티베트 숙셉 사원, 안거센터 지원 요청

중간보고회서 현황공유, 지원독려
운동·명상 등 양질 수행환경 제공


숙셉 사원의 여성 출가자들이 안거 센터 건립을 돕고있다. 사진출처=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

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TNP)가 후원하는 숙셉 비구니 사원이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참배로 완공 소식과 안거센터 건립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9월 16일 해외불교 전문매체인 '부디스트도어 글로벌(Buddhistdoor Global)'은 숙셉 비구니 사원 근황을 보도했다.

인도 히마찰프라데시주의 캉그라 지구에 본부를 두고 있는 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TNP)는 티베트 여성협회와 티베트 망명정부 종교문화부의 후원으로 설립됐다. 티베트와 히말라야 지역의 티베트 난민 출신 비구니들과 티베트 불교 문화권의 여성 출가자들에게 교육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티베트 불교의 4대 종단 중 하나인 닝마파에 속한 숙셉 비구니 사원은 원래 티베트의 수도 라싸의 교외에 소재하고 있다. 1959년 중국의 탄압으로 파괴된 후, 인도로 망명 온 스님들이 힘을 모아 2010년 12월에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 재개원했다. 다람살라 숙셉 비구니 사원에는 현재 약 100명의 여성 출가자가 거주하며 이들은 9년간 불교철학, 토론, 티베트어, 영어 등을 교육받는다.

TNP는 "무문관 수행을 위한 전문 안거 센터는 불교 수행에 필수 요소이지만 현 사원에는 안거를 위한 공간이 없다"며 "현재 숙셉 사원의 여성 출가자들이 무문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람살라에서 멀리 떨어진 츠푸 동굴이나 네팔로 이동해야한다. 출가자가 사원 안에서 양질의 교육과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본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시공덕을 쌓아달라"고 기부를 독려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인도성지순례는 정성을 다하는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입니다.

부처님이 성불하신 날 성도재일을 보드가야 대탑에서
성도재일 기도 법회와 인도 7대 성지순례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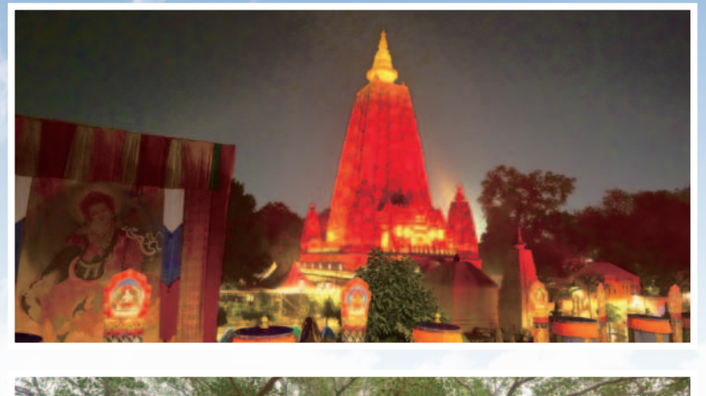
2025년 1월 04일 출발 ~ 1월 14일 도착 (11일 일정)

인도성지 중에서 케사리야 대불탑 뿐만 아니라 - 부처님 출가의 길로 추정되는 곳들에 세워진 난단가르 대불탑(인도 최대의 불탑)과 아쇼카대왕의 석주들인 - 바이샬리 아쇼카석주 - 아레라즈 아쇼카석주 - 라우리야 원형의 아쇼카 석주등 부처님의 생애를 조명하며 새로운 성지들을 찾아가는 일정으로 순례의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 일 정 : 인천 – 델리 – 바라나시 – 보드가야 – 라즈기르 – 영축산 – 나란다대학 – 바이샬리 아쇼카석주 – 아레라즈 아쇼카석주 – 라우리야 원형의 아쇼카석주 – 쿠시나가르 – 룸비니 – 기원정사 – 아그라 – 델리 – 인천
▶ 동참금 : 299만원

기타 인도성지 출발일정입니다.
▶ 10월 20일 출발 ~ 10월 29일 도착 (인도성지 10일 일정)
▶ 11월 17일 출발 ~ 11월 26일 도착 (인도성지 11일 일정)
▶ 12월 05일 출발 ~ 12월 15일 도착 (인도성지 11일 일정)

중남미 6개국 여행 20일 2025년 3월 8일 ~ 3월 27일
▶ 인천 – 아틀란타 – 리마(페루) – 쿠스코 – 마추픽추 – 쿠스코 – 라파즈(볼리비아) – 우유니 – 라파즈 – 리마 – 리오(브라질) – 이과수(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 파타고니아 엘칼라파테 – 보고타(경유) – 멕시코 시티 – 칸쿤(멕시코) – LA(경유) – 인천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대행 선사 '뜻으로 푼 경전', 어떤 의미 가졌나

최원섭 연구원,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서 고찰

대행 선사 '뜻으로 푼' 경전 번역
"佛法을 시대 맞게 이야기" 원칙
원문 의미 중시한 '주석적인 의역'
"'뜻으로 푼 화엄경' 발간 고대해"

안양=신중일 기자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뜻으로 푼 불교 경전 번역의 의미와 특징을 고찰한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9월 21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제20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묘공 대행의 경전 번역' 주제 발표를 통해 대행 선사의 경전 번역의 특징과 의의를 살폈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대행 선사는 1987년 간행한 〈신행요전〉을 통해 〈뜻으로 푼 천수경〉 〈뜻으로 푼 반야심경〉을 유통시켰고, 1999년 〈뜻으로 푼 금강경〉을 발간했다.

직역 위주의 한글번역이 주류였던 시대,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경전 번역은 큰 파장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대행 선사가 '뜻으로 푼' 경전 번역을 지속한 이유는 선사가 대중에게 불교를 전하는 데 한 가지 확고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시던 법을 지금 시대에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맞게 이야기하라(1989년)"는 것이다.

이 같은 원칙이 경전 번역에서는 상세하고 자세하게 뜻으로 풀이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게 최 연구원의 주장이다. 최 연구원은 "경전 번역은 대행 선사에게는 한문 원전의 글자보다 그 글자에 담긴 의미가 더 중요했다"며 "애초에 대행 선사에게 번역이란 곧 의역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행 선사는 〈금강경〉을 32분과를 나누는 형식을 그대로 따르지만, 분과의 이름을 우리말로 풀어 밝힌다. '제4 묘행무주분(妙行無住分)'은 '안과 밖이 둘이 아닌 행이 아니라면 묘행과 중용이 아니니라'로, '제10 장엄정토분(莊嚴淨土分)'은 '둘이 아닌 공심, 즉 한자리인 것이니'로 번역한다.

최 연구원은 "이 같은 주석적 번역 방식은 글자 하나로도 함축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한문을 소리 위주의 언어인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항상 일어나는 일"이라며 "이러한 대행 선사의 번역 방식을 '주석적인 의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9월 21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제20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묘공 대행의 경전 번역'을 발표하는 모습.

그러면서 최 연구원은 미완으로 남겨진 〈뜻으로 푼 화엄경〉의 발간을 제안했다. 대행 선사는 생전 〈화엄경〉을 70% 정도 풀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화엄경〉이 발간된다면 한국불교 주요 대강백에 이어 〈화엄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최초의 비구니스님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계절발표회에는 김치온 동방문화대학원대학 연구교수가 '법보(法寶)의 일체중생 불성설과 혜소(慧沼)의 반박에 대한 연구'도 발표됐다. 이날 김 교수는 발표 논문을 통해 '일체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법보(627~705) 스님과 '중생마다 종성이 다르다'는 혜소(651~714) 스님의 논쟁을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발표회의 좌장은 박인석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맡았으며, 논평자로는 박재용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오진영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장진영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장, 박보람 충북대 교수가 참여했다.

2023년부터 시작한 한마음선원 지원 소개에서는 여섯 번째로 대구지원장 혜공 스님이 대구지원 도량 현황과 불사 과정을 소개했다.

발표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에서 대행 선사의 경전 번역의 의미에 대해서 되짚었다.

혜수 스님은 "대행 선사께서는 신도들이 의미도 모르면서 어려운 한자로 된 경전을 독송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셨다"면서 "그래서 선사께서는 경전을 누구나 다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원을 세우고 경전을 번역하셨다"고 술회했다.

이어 "대행 선사의 원력으로 지금 우리 사부대중은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하게 매일 예불 시간에 〈천수경〉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있다. 경전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마음 안으로 다들어가게끔 하고 바깥으로 끄달리지 않게 하는 선사의 뜻에 따라 선원 대중은 정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나면 희석될까 하는 염려도 갖게 된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열심히 공부하고, 듣고, 정진해 수행력을 높여서 가는 것이 세상에 좋고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발표회에 참여한 대중은 어려운 공부도 마다 않는 경지에 있다. 마지막까지 발표를 잘 듣고 공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주사, 보물 품은 성보박물관 개관

9월 24일, 유물 총 66점 전시
198억 원 투입, 3년여 간 불사
지상 2층 · 지하 1층 규모 조성
성보 체계 · 효율적 관리 나서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주지 정덕 스님)는 9월 24일 성보박물관 개관식을 봉행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법주사가 성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성보박물관을 개관했다.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주지 정덕 스님)는 9월 24일 '법주사 성보박물관' 개관식을 봉행했다.

법주사는 지난 2020년 불교문화유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성보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설계를 거쳐 2021년 11월 착공해 3년여 공사를 통해 개관했다.

총 공사비가 198억 원이 투입된 대작불사인 법주사 성보박물관은 연면적만 3125㎡에 달한다. 박물관은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수장고, 전시실, 다목적실,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됐다.

법주사 성보박물관에는 보물 제1259호 '법주사 괘불탱', 보물 제848호 '법주사 신법천문도병풍', 보물 제1858호 '법주사 동종' 등 보물 3점과 '법주사 선조대왕 어필 병풍', '법주사 가경구년명 동종' 등 충청북도 문화유산 2점을 포함해 총 66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아울러 최근 폐관한 보은군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의 693종 843점의 유물도 법주사 성보박물관으로 옮겨 함께 전시·보관한다. 또한 법주사 괘불탱은 높이 14.5m, 폭 6.5m 크기로 179kg에 달하는 무게로 파손 위험이 있어 원본 크기로 디지털 빔을 통해 구현한다.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은 "법주사는 국보 3점과 보물 15점 등 많은 성보를 간직한 사찰이다. 그동안 성보박물관이 없어 성보의 보존·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관을 계기로 불교문화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시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축사에서 "법주사는 성보사찰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많은 성보를 간직하고 있는 대표적 사찰"이라며 "성보박물관 개관을 통해 다양한 성보를 보존·관리하고 전시함으로써 지역민과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관식에는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 전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 각연 스님, 각진 스님, 석중 스님, 설몽 스님, 현진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과 연경희 법주사 신도회장, 신학균 포교사단 충북지역단장, 송수헌 충북불교단체협의회장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정선용 충북행정부지사, 최재형 보은군수, 윤대성 보은군의회의장 및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문화사업단, 사찰음식 숏폼 영상 공모전

10월 20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총 63명 선정, 상금 700만원
'삼소식' 주제 가산점 부여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이 9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사찰음식 숏폼(Short Form)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사찰음식을 소개하고, 식습관 인식 제고·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기획됐다.

공모 주제는 사찰음식과 관련한 자유주제이며, '사찰음식 삼소식' 주제로 응모 시 심사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삼소식은 즐겁게 먹기(笑食), 적게 먹기(小食), 채소 먹기(蔬食)이다.

참가자들은 SNS(인스타그램·유튜브 등)에 작품을 업로드하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 등 필수 해시태그를 입력해야 한다. 이후 공모전 홈페이지에 SNS 링크와 작품 원본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작품 접수 기간은 10월 20일까지다.

작품 출품 규격은 60초 이내 세로형의 숏폼 영상이다. 공모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찰음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개인 또는 4인 이하로 구성된 팀으로 신청 가능하다. 출품작 수는 개인(팀) 당 최대 3개 이내로 제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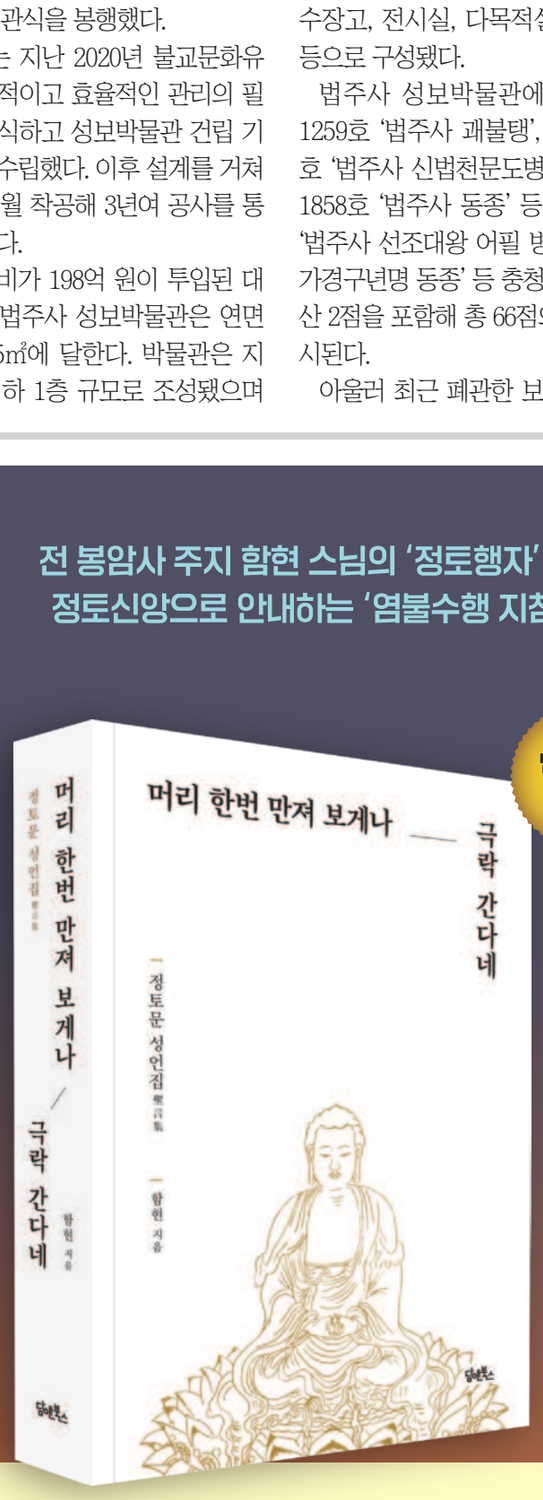
심사는 11월 초 1차 온라인 심사를 진행한다. 1차 심사에 통과한 참가자는 2차 오프라인 심사로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7명, 장려상 10명, 인기상 40명으로 총 63명의 수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며, 총 상금은 700만원에 달한다.

접수 방법 및 양식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http://www.kbuddhism.com) 또는 사찰음식 숏폼 영상 공모전 접수 홈페이지(http://www.templefoodcontes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기자

전 봉암사 주지 함현 스님의 '정토행자' 공표
정토신앙으로 안내하는 '염불수행 지침서'

정토문 성언집(聖言集)
머리 한번 만져 보게나 / 극락 간다네



담앤북스 최신간

함현 지음 | 150x210 | 432쪽 | 18,000원

"나는 공성(空性)의 오두막인 극락정토를 장엄하는 살림꾼,
아미타부처님의 본원(本願)을 깊이 믿고 널리 권하는
정토의 종지기가 될 것입니다."

이보게 함현!
이제 머리나 한번 만져 보세나.
머리를 돌려 스스로를 보아야 하네.
눈빛을 되돌려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네.
그래야 출가의 첫 뜻을 저버리지 않고
진정으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지 않겠는가.
_본문 중에서

| 도솔 함현 兜率 涵玄 |
속리산 법주사에서 월암당 이두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송광사, 백양사, 극락선원, 대승사, 동화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종립특별선원 문경
봉암사 주지, 지리산 선화사 주지를 역임했다. 북한산 도솔원에서
수행정진을 마치고 현재 충청북도 청주 관음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문의 (02)765-1251 가까운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담앤북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25~10/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성자와범부가함께읽는금강경(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6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2	화:마음의불꽃을식히는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7	초기불교입문:초기불교그핵심을담다	각묵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3	해탈장엄론(고귀한가르침의여의주)	감뽀빠/진우기	운주사	8	낡은옷을벗어라:법정스님미출간원고68편수록*법정스님원적10주기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4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9	불멸(1)영원한지금의메시지*개정판	이각 지음	지혜의눈
5	도표로읽는불교입문	이자랑,이필원	민족사	10	구루빠드마쌈바와기원문(연꽃에서화생한불사의화신불)	중암선혜 역저	금빛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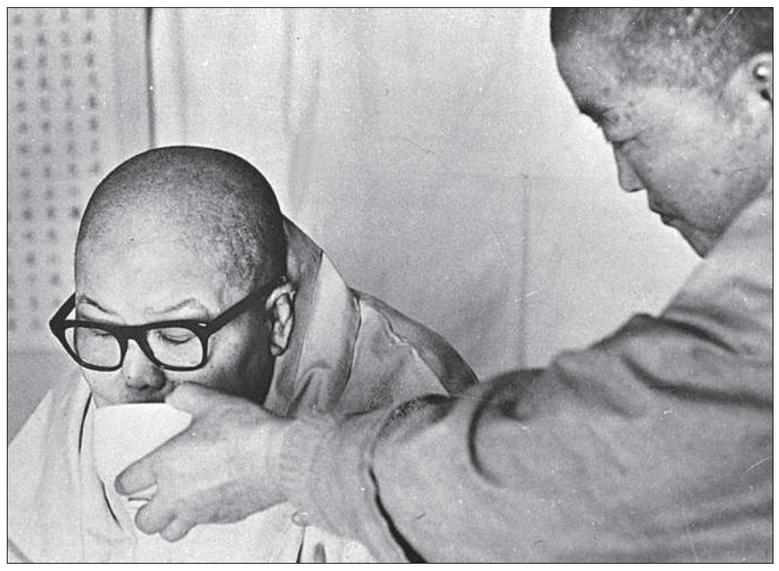
책세상

‘신여성 1세대’에서 한 시대의 선지식으로



꼭꼭 묻어둔 이야기
나의 스승 일엽스님
구술 · 월송 스님,
정리 · 조민기
민족사 / 1만8천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일엽 스님을 시봉하는 경희 스님.

근대한국불교 비구니 선지식 일엽 조명
한국 최초 여성잡지 〈신여자〉 창간 등
신여성 1세대 · 문인 · 여성해방운동가로
출가 전, 사회적 이슈로 많은 주목 받아
목사의 딸, 만공 스님 법문 듣고 출가해
견성암 비구니 총림 선원 설립 대작불사
30년 동안 오직 견성암 ‘입승’ 소임만



베스트셀러 〈청춘을 불사르고〉 출간 뒤 일엽 스님의 모습.

일엽 선사(1896~1971), 근대 한국 불교사에서 비구니 선지식으로 선명하게 남아 있는 이름이다. ‘견성암 비구니 총림 선원 설립’이라는 역사적인 불사를 이뤄냈으며, 그의 입적은 최초의 비구니장으로 엄수됐다.

스님의 일대기가 출간됐다. 책 〈꼭꼭 묻어둔 이야기〉는 일엽 스님을 오랫동안 곁에서 모셨던 손상좌 월송 스님의 기억을 받아 적은 것으로, 일엽 스님의 출가자로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출가 전의 이야기도 농도 있게 소개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일엽’이라는 이름은 스님이 출가하기 전부터 그의 속명 앞에 이미 붙어 있던 이름(필명)이었으며, 그 이름은 어려웠던 시대를 누구보다 어렵게 지나간 이름이었다. 오늘날과 비교해 볼 때 ‘여성’이라는 이름이 많은 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며, 많은 것들로부터 뒤로 물러나 있어야 했던 시대에서 그는 그런 시대가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책의 초반부, 즉 출가 전인 김원주의 이야기에서는 ‘연애’ ‘결혼’ ‘사랑’ ‘이혼’ ‘신여성’ ‘스캔들’ 등 스님의 일대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등장한다. 책을 모두 읽고 나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읽은 듯 하기도 하다. 그것은 ‘출가자 일엽’을 오롯이 이야기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김원주는 남다른 길을 걸었다. 빼어난 감수성과 문학적 재능을 갖춘 그녀는 이화학당을 졸업한 후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1920년 귀국 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잡지 〈신여자〉를 창간한다. ‘신여성 1세대’, 사회적 이슈를 일으키고 문인으로, 여성해방운동가로 활약했다. 젊은 날의 김원주는 가십과 루머, 스캔들을 몰고 다니며 감탄과 비난의 주인공이었다. 특히 이혼과 〈신여자〉의 폐간 이후 자유연애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목사의 딸이었던 김원주는 만공 스님이라는 스승을 만나면서 불교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난다.

만공 스님의 법문을 들은 김원주는 처음으로 정신이 해방되는 자유를 느꼈다. 비로소 삶의 의문이 풀리고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됐다. 녹야원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초전법륜을 만난 다섯 수행자의 기쁨과 비견될 만한, 온 천지가 새롭게 보이는 놀라운 세상을 마침내 만난 것이다. 만공 스님의 감로법은 사자후가 되어 김원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삶과 정신의 의지처로 삼았다. 또한 일생일대의 가르침을 주고, 불연과 발심을 이끌어 준 만공 스님과의 인연은 출가로 이어진다.

일엽이라는 필명은 그때부터 다른 가계, 불가(佛家)의 이름이 된다. 김원주를 출가자 ‘일엽’으로 이끌어 준 이는 스승이자 연인이었던 백성욱 박사다. 김원주는 백성욱 박사와 이별 후 재혼과 이혼을 거쳐 마침내 출가한다. 만공 스님이 주석하고 있던 수덕사에서 세간의 인연을 끊어낸다. 만공 스님은 김원주를 일엽으로 받아들였고, 전법게를 내렸다. “일엽이 백련처럼 성품이 바뀐 후에 세상에 나서라”

오랜 세월, 글로 세상과 소통했던 일엽 스님은 스승의 뜻에 따라 주저 없이 절필하고 승가 안에서 아무런 소임 없이 출가자로서의 길만을 걸었다. 일엽 스님이 30년 동안 놓지 않았던 것은 오직 하나, 견성암의 ‘입승’이었다.

만공 스님의 열반 15주년이 되던 1961년, 일엽 스님은 스승을 기리는 글을 썼다. 그로부터 다시 14년 후, 일엽 스님은 손상좌 월송 스님과 함께 보따리 속에 넣어두었던 원고들을 정리했다. 그 원고들은 〈어느 수도인의 회상〉(1960), 〈청춘을 불사르고〉(1962), 〈행복과 불행의 갈피에서〉(1964)로 출간됐다. 오랫동안 세간에서 잊힌 일엽 스님의 글이 발표되자 세간에서는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그리고 잊힌 줄 알았던 많은 스캔들이 다시 대중의 입에 오르내렸다.

“노스님 큰일 났어요! 웬 남자가 노스님을 빙자하고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스님의 사생아라고 하며 책을 팔고 다닙니다. 이 노릇을 어쩌면 좋아요.” 억울함을 견딜 수 없어 눈물을 흘리는 손상좌들을 본 일엽 스님은 말했다. “호들갑 떨 것 없다. 김일엽이라는 이름 석 자가 뭐라고? 그 이름이 대체 뭐길래? 그 이름 가치가 얼마나 된다더냐? 나를 빙자하여 한 사람이 이 힘든 생을 버티고 한 남자가 장사하고 돈을 벌어 그걸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내가 한 사람을 구제한 것이 아니냐?”

일엽 스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스님은 이미 ‘시비(是非)’를 여읜 경계에 있었다. 세간에서 치열하게 살았듯 출세간에서도 역시 본분에 철저했다.

일엽 스님이 입적하자 온갖 소문들이 무성했다. 소문의 대부분은 스님 생전에 불티나게 팔렸던 가짜 자서전에서 비롯된 이야기들이었다. 묵묵히 진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월송 스님과 환희대 문중은 소문이 아니라 꼭꼭 묻어두었던 일엽 스님의 진짜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소문을 해결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묻혀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 수행자 일엽 스님을 제대로 조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책 〈꼭꼭 묻어둔 이야기〉는 일엽 스님의 손상좌 월송 스님이 들려준 일엽 스님의 이야기를 정리한 것으로, 세간이 아닌 출세간에서 바라본, 손상좌 월송 스님의 시선에서 시작된, 수행자 일엽 스님에 대한 책이다. 소문과 가십의 주인공이며 시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이 시대와 자신의 넓은 간극을 어떻게 견디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며,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인연을 바꾼 후 치열하게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이어간 한 시대의 선지식을 그린 이야기다. 꼭꼭 묻혀있던 이야기다.

꼭꼭 묻어둔 이야기, 나의 스승 일엽스님

당대 스캔들 메이커 ‘김일엽’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선사禪師 ‘일엽’으로!

一葉

1세대 신여성 김일엽.
최초 동아일보 여성 기자, 최초 여성잡지 〈신여자〉 창간, 그리고 자유연애.
스승 만공스님 만나 27년간의 절필과 선수행을 통해 최초 비구니 선사가 된 일엽스님.

승복을 입고 다닌 동국대 최초의 비구니인 월송스님이 밝히는 일엽스님의 비화.
세간의 오해에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은 스승에 대한 소문 속 진실.
반세기가 지나서야 꼭꼭 묻어둔 이야기를 세상에 꺼낸다.



구술 월송스님, 글 조민기 | 263쪽 | 18,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명상도서 모음

명상, 망설이는 사람들을 위해



명상의 힘
스와미 사라다난다 지음, 김재민 옮김
판미동 / 1만9천원

명상 발심 돕는 정보기법 소개
전통 요가 명상법 중심으로 해
명상 자세 호흡법 스트레칭 등
마음가짐 · 삶의 태도 폭넓게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저는 사람들이 명상하고 싶어 해도 명상하는 것 자체가 편하지 않기 때문에 수련하기를 망설이거나 단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명상 수련을 망설이거나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한 책이 출간됐다. 책 〈명상의 힘〉은 명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 몸과 마음 모두를 준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법들을 소개한다. 이 과정은 요가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 책에 수록된 통찰과 실천 방법들은 명상이나 묵상 또는 마음챙김을 하는 모든 수련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은 명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초반의 장애물과 불편함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 뿐만 아니라 이미 명상수행을 하고 있지만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데 신체적·정신적 장애물에 직면한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책은 어려운 명상 철학이나 고급 명상 기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정보는 다른 많은 스승들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호흡의 힘〉, 〈차크라의 힘〉에 이은 시리즈 세 번째 책 〈명상의 힘〉은 저자가 40년 넘게 요가와 명상을 지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한 요가 전통에 한정되지 않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명상법을 소개한다. 저자는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와 불안 해소를 위해 명상에 관심을 가지지만 육체적·심리적 불편감 때문에 명상 실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오랜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명상할 때 흔히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법 및 수련에 도움이 되는 크고 작은 조언을 망라했다. 편안히 앉아서 명상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정리해 놓았다. 책에는 전통 요가의 명상법을 중심으로 아유르베다·마음챙김·좌선 등을 아우르면서, 명상 자세와 호흡법, 몸을 풀어주는 요가 동작과 스트레칭, 꾸준히 수련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까지 폭넓게 담겨 있다.

다채로운 일러스트와 사진을 담아 시각적으로도 풍성한 〈명상의 힘〉은 추상적인 개념과 수련법을 생생한 이미지로 전달하여 독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다. 평정한 마음과 건강한 삶의 방식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해준다. 초심자와 명상을 꽤 오랫동안 수련해 온 사람 모두에게 유용한 책이다.

저자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여정을 자기 자신과의 대화이자 훈련으로 여기며, 이러한 관점을 일상에서도 이어가도록 권한다. 명상에 도움을 주는 일상적 방법으로는 삶의 태도 돌아보기, 수련일지 작성하기, 내면의 반응 관찰하기,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 등이 있다. 또한 삶을 간소화하고 먹는 것과 먹는 법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등 생활방식에서도 명상 중 경험하는 평온함이 일상으로 확장되고, 건강한 일상이 다시 명상 수련의 진전으로 이어져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조언한다. 이처럼 명상과 일상을 하나로 연결하는 이 책은 단순히 명상 기법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 스와미 사라다난다는 세계적인 요가 수행자 스와미 비슈누 데바난다의 제자로, 40년 이상 전 세계에서 요가와 명상을 지도하며 많은 요가 지도자들을 양성했다. 런던 대학교에서 동양 및 아프리카학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년간 〈인터내셔널 요가 라이프 International Yoga Life〉를 편집하고 인도 성지순례를 이끌었다. 현재 영국 런던과 서리를 중심으로 미국, 독일 등에서 요가 코스와 워크숍을 여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과학에 근거한 명상 작용 원리



일상으로서의 명상
앤 스완슨 지음 / 심태은 옮김
시그마북스 / 2만원

"명상이란 무엇인가? 명상이란 편안한 상태에서 내 주의와 의식을 현재의 순간에 집중해 명확성과 감정의 안정성을 증진하는 수련 방법이다."

〈일상으로서의 명상〉은 과학에 근거한 명상의 작용 원리를 정리한 개론서이자 명상 수련법을 다룬 사용자 친화적 안내서이다. 책은 몸과 마음, 영혼을 치유하는 75가지의 간단한 명상을 소개한다. 수면에 도움을 주는 명상, 창의력을 불러일으키는 운동, 비행기 이륙 전의 의식적인 움직임 또는 PMS나 관절염 통증을 완화하는 시각화 등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명상법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이 책의 목표는 현대사회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짧은 명상 수련법을 소개하는 것이며, 마음챙김과 명상 기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실용적인 조언도 언급하고 있다.

책은 총 네 개의 장으로 이뤄져 있다. 제1장 '명상의 작용원리'에서는 명상이 무엇인지, 누가 명상을 해야 하며, 언제 수련하는 것이 가장 좋고, 수련 장소는 어디가 좋은지 살펴본다. 또한 명상이 현실을 헤쳐 나가고 자신을 비롯해 타인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가장 중요한 스킬인 이유에 관해서도 다룬다.

제2장 '건강한 마음을 위한 명상'에서는 이론을 넘어 건강한 마음을 뒷받침하는 수련을 다룬다. 빠른 속도로 변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은 세상에서 명상은 힘든 감정을 회피하기보다는 고요히 앉아서 그런 감정과 마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제3장 '건강한 몸을 위한 명상'에서는 의식을 더욱 세부적으로 조정해 몸이 보내는 요청과 타고난 지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명상을 소개한다.

제4장 '일상에서의 명상'에서는 바쁜 삶 속에서 1분이라도 명상을 하거나 단 한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호흡하는 요령들을 일러준다. 주변의 소리, 촉각, 자연 속에서 명상 수련을 더 잘하는 방법, 요가, 태극권, 춤 등 몸을 움직이면서 명상하는 법, 출퇴근길에서, 청소나 정원을 가꾸면서, 회사에서, 운동하면서, 심지어는 세수하면서 어떻게 명상의 힘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이 책은 자기 마음과 친해지기 위한 자기 연민서이자 간단한 명상 기법으로 사회적 어색함, 시험불안, 가족 모임 등 실제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실용적인 안내서이다.

저자인 앤 스완슨은 MS, 마사지 요법사(LMT), 공인 요가 요법사(C-IAYT), 요가 지도 전문가(E-RYT500), 세계적 베스트셀러 〈요가의 과학〉의 저자다. 메릴랜드 대학 통합의학 대학원에서 요가 테라피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최신 연구와 고대의 지혜를 접목해 실제로 쉽게 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아잔 차 스님의 '명상'



깨달음의 지혜
아잔 차 지음
김열권 옮김
싱긋 / 2만2천원

책 〈깨달음의 지혜〉는 위빠사나를 서구에 알린 태국의 선사 아잔 차 스님의 핵심적 가르침을 담은 수행지침서 〈깨달음의 지혜〉 제3판으로, 재판인 〈불교 수행〉의 개정판이다. 이 개정판은 구판과는 달리 아잔차 스님의 가르침만 모아 엮었으며 초판과 〈가르침의 정수와 질의응답 모음집〉이라는 소책자의 핵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깊고 풍부한 삶의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아잔 차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법담과 실수행, 깨달음의 과정을 담았다.

아잔 차 스님 특유의 단순 명료하고 단도직입적이면서 유머러스한 가르침은 이해하기 쉬울뿐더러 영감과 탐구심, 경탄을 불러일으킨다.

책은 제1장 '아잔 차 스님의 생애과 깨달음'을 시작으로 제2장 '수행자들의 법담', 제3장 '깨달음에 이르는 길'로 이뤄져 있다. 부록으로 '염불위빠사나' 수행 사례를 실어 수행자들의 실수행과 국내 수행계의 시야 확장에 도움을 준다.

아잔 차 스님이 수행한 위빠사나는 붓다를 깨달음에 이르게 한 수행법으로 아나빠나사띠, 위빠사나, 담마까야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그 중 염불위빠사나는 집중력을 증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염불 수행과 깨달음에 이르는 연결고리가 튼실한 위빠사나 수행의 장점을 접목한 탁월한 수행법이다. 아잔 차 스님은 모든 현상은 변하는 불확실한 것, 즉 무상을 깨닫지 못하면 그로부터 비롯되는 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아를 영구불변하는 실체로 여기는 이상 집착과 고통이 따르므로 행복이든 불행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선이든 악이든 모두 놓아버려야 한다고 설한다.

박재완 기자

염불명상 A에서 Z까지 만화로 쉽게



만화로 보는 염불명상 길라잡이
방경일 글
정기영 그림
운주사 / 2만원

염불이란 무엇이고, 염불명상이란 무엇인가? 염불명상은 왜 하는가? 염불명상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가? 염불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염불명상은 어떻게 활용 가능한가?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만화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책이 나왔다. 〈만화로 보는 염불명상 길라잡이〉이다.

책은 염불명상의 개념, 원리와 종류, 구체적 실천 방법, 그리고 다양한 활용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어서, 염불명상 입문서 겸 실천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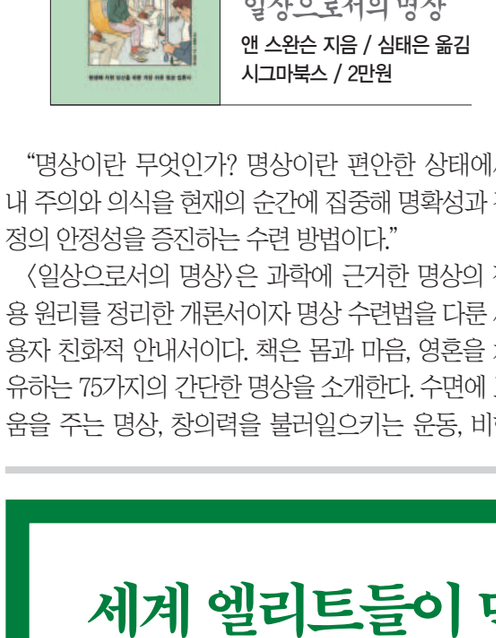
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만화로 된 부분은 염불명상의 기본적인 내용을 재미있게 보여준다. 다음으로 만화에 덧붙인 해설은 염불명상의 핵심 요소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만화 부분은 만화로서의 특색을 살려 재미있게 각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되 더 깊은 내용으로 이끄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며, 글 부분은 각 주제에 대한 세밀한 설명을 담아내고 실천으로 이끌어준다. 따라서 이 두 부분을 읽음으로써 독자들은 염불명상에 대한 이해를 넘어 혼자서도 직접 실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염불은 불교 수행의 유력한 방법 중 하나로 오랫동안 많은 대중이 실천해 왔다. 다른 수행에 비해 쉽고, 간단해서 많은 대중이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그런 이유로 더러는 하근기 수행으로 폄하되기도 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이유로 인해 오랜 기간 많은 대중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박재완 기자

세계 엘리트들이 먼저 알아본 불교의 가치!
유수의 기업에 마음챙김 명상 열풍을 불러일으킨
구글 '내면검색(Search Inside Yourself) 프로그램'의 핵심
거기에 마음의 과학 '불교'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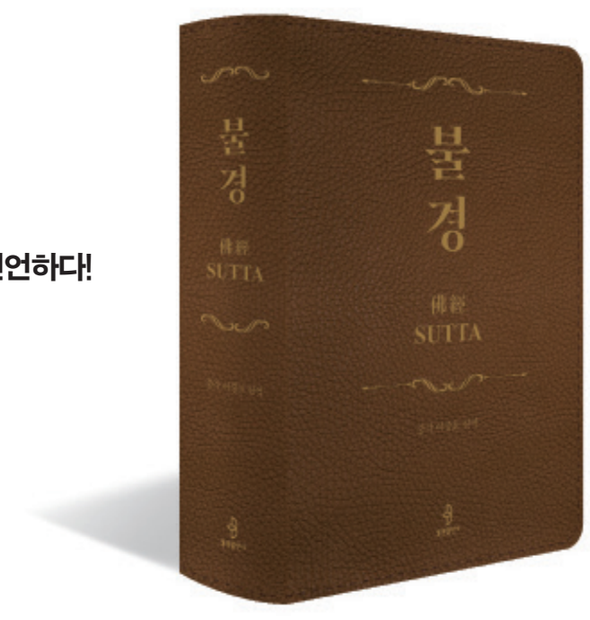


구글 엔지니어 출신 명상가가
직접 체험하고,
서양의 선승이 통찰한
'모두를 위한 불교'.
내 삶의 자유를 찾아가는 첫 걸음!

불교를 알면 삶이 자유롭다
이해하고 실천하면 행복해지는 마음의 지혜
차드 멩 탄·소류 포울 지음 | 이재석 옮김
516쪽 | 25,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기독교에 성경, 이슬람교에 코란이 있다면
불교에는 불경(佛經)이 있다"
붓다의 가르침을 집약한 세계 최초의 한글 불경(佛經)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석학
이중표 교수의
50년 염원이 깃든 역작
'불상(佛像)에서 불경으로',
불교 공부와 수행의 전환을 선언하다!



불경 佛經
중각 이중표 편역
1,448쪽 | 70,000원 | 가죽 양장

지상백고좌

청주 관음사 회주 **함현 스님**

“수행, 나를 밝히고 나를 꽃 피우는 것”



함현 스님은… 보은 법주사에서 이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했다. 종립선원 문경 봉암사 주지로서 대중들과 함께 정진했으며 현재 청주 관음사 회주 소임을 맡아 후학들을 제접하고 있다.

약 20년 전의 일이다. 당시 〈현대불교〉 신입 기자이던 시절, 조계사 신도회가 문경 봉암사로 대중공양을 가니 동행해 현장 취재기사를 써보라는 데스크의 지시가 내려왔다. 불교의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신기할 때라 주저 없이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며칠이 지나 이른 새벽 버스를 타고 달리고 또 달렸다. 1년에 한 번 문을 열어준다는 종립(宗立)선원에 도착한 기쁨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수백 명의 불자들은 봉암사 곳곳을 참배하고 담 너머 선원의 스님들이 하루빨리 도를 이뤄 중생을 제도해주기를 발원했다.

불자들이 대웅전에서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 점심공양을 하는 사이 경내를 휘젓고 다니던 그 찰나. 희양산을 뒤흔드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뭐하는 거야?” 흡사 사자의 포효 같았다. 곧바로 주지실로 소환됐다.

“여기는 모든 전각이 선원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정신없이 다니면 스님들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모르나?”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고 두 손이 모아졌다. 한참 동안 혼이 난 뒤 스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호랑이 같이 큰 눈과 목소리를 가진 주지스님의 카리스마가 대단했다. 서울로 올라와 스님의 ‘정체’(?)를 수소문했다. 바로 함현 스님이었다. 당시 선방의 중진으로 후학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스님. ‘봉암사’라는 한국불교의 상징을 지키고 있는 수좌가 바로 함현 스님이었다.

운명적 순간의 연속

시간이 흐르고 흘러 최근 스님의 근황을 다시 들었다. 스님이 ‘정토(淨土)의 종지기’를 자처한다고 했다. 오랜만에 안부도 여쭐 겸 서울 은평구의 도솔선원 문을 두드렸다. ‘함께 기뻐하다’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 ‘무디따(Mudita)’ 글씨가 걸린 벽이 인상적이었다.

스님은 20년 전과 다르지 않았다. 우렁찬 목소리와 큰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 여전했다. 다만 시커멓던 눈썹의 반이 어느덧 하얗게 변한 것에서 세월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주 관음사와 도솔선원을 오가면서 불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중들을 만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 수좌(首座)에서 염불 수행 전도사(?)로 반 발짝 자리를 옮긴 함현 스님에게 궁금한 것이 많았다. 우선 스님의 부처님 인연부터 듣기 시작했다.

“20대 초반의 어느 날 저녁에 조계사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탁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따라 가봤더니 대웅전에서 사람들이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나 말씀을 잘하시던지 스님의 법문이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법회에 나가게 됐고 인천 용화선원에서 송담 스님을 모시고 참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계사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법사스님께서 법문 말미에 ‘출가할 사람 손 좀 들어봐’라고 하시는데 대중 중 유일하게 저만 손을 들고 있더라고요.”

스님의 출가는 운명이었다. “손이 저절로 올라갔다”고 했다. 조계사 대중으로 있던 스님이 추천서를 써줬다. 한 분은 법주사 주지 이두 스님이었고, 또 한 분은 해인사의 일타 스님이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하다 옥천역에서 내렸다. “법주사 대불(大佛)을 먼저 보고 싶어서 내렸다”는 스님은 그길로 이두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 1977년의 일이다.

출가 전 송담 스님께 ‘시심마’ 받아
출가 후 해인사, 봉암사 등서 수행
서암 스님께 ‘無’자 화두 받아 정진

2022년 “정토 종지기 될 것” 선언
나이 들어 참선 어려워지자 결정해
연관 스님 원적도 결정에 영향 줘
역대 선사들, 염불정진 중요성 강조

“처음 만난 은사스님은 얼굴이 하얗고 아주 미남이셨어요. 하하. 학승이셔서 그런지 말씀도 잘하시고 편안하신 인상이어서 바로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제자들한테는 ‘중노릇 잘하라’는 당부를 자주 하셨습니다.”

스님은 바로 행자생활을 시작했다. 작은 방에서 무려 30명이 넘는 행자들이 함께 생활했다.

“하다 보니 행자반장을 맡게 됐어요.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질 일이 많습니다. 강원 학인스님들이 공부하는데 제 목소리가 방해가 됐나 봐요. 200명이 넘는 학인스님 앞에 불려가 4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혼이 났습니다. 대중공사가 끝나고 마당에 나오자마자 쓰러질 정도로 많은 경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행자를 마친 스님은 계를 받고 강원에 입학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군대에 가야 했고 제대 후에는 바로 선원에서의 정진을 시작했다.

“출가 전에는 송담 스님께 참선을 배웠습니다. ‘시심마(是甚麽)’를 화두로 받아 정진했습니다. 출가 후에는 해인사, 송광사, 백양사, 통도사, 대승사, 동화사, 봉암사 등에서 공부했습니다. 제방에 다니다가 서암 스님을 모시면서 무(無)자로 화두를 바꿨습니다. 서암 스님을 모시고 살 때 공부가 제일 잘 된 것 같습니다. 서암 스님은 항상 자비롭고 진솔하게 후학들을 제접하셨어요. 봉암사에 오시는 모습, 봉암사에서 가시는 모습만 봐도 공부가 됐습니다. 제가 좀 거칠게 여쭈어도 스님께서는 항상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님은 “성철, 서옹, 경봉, 구산, 월산, 서암 스님 등 기라성 같은 어른들이 우리 곁에 계셨다는 것은 큰 복이다. 우리 시대의 선지식들을 모시고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전했다.

스님은 선원에서 정진을 하는 중에도 이두 스님이 주석하고 있던 청주 관음사에서의 포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스님의 법명이 ‘함현(涵玄)’이 된 사연도 운명적이다.

“해제를 하면 은사스님을 모시러 관음사에 가요. 가서 이것저것 사중 일을 살핍니다. 1980년대 중반에는 은사스님께 잡혀서 총무 소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법회를 하면 수십 수백 명이 오고 그랬습니다. 법회에 오는 아이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하루는 명단을 보니 ‘현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16명이나 됐습니다. 그때 제 법명이 현정이었습니다. 은사스님께서 주신 것이죠. 법회를 한 번 열면 여기저기서 현정이를 찾습니다. 개구쟁이 녀석들은 일부러 저 들으라고 현정이를 찾았어요. 도저히 그대로는 법회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 은사스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존경하는 함허득통 선사의 ‘함’자와 은사스님께서 주신 ‘현’자를 묶어 ‘함현’으로 법명을 바꿨습니다. 하하.”

스님은 제방에서의 정진을 이어가며 2005년부터 4년간 봉암사 주지를 지내기도 했다. 봉암사 주지소임 회향 후에도 수행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일’이 생겼다.

13면에 계속

쉽고 재미있게, 염불명상 A에서 Z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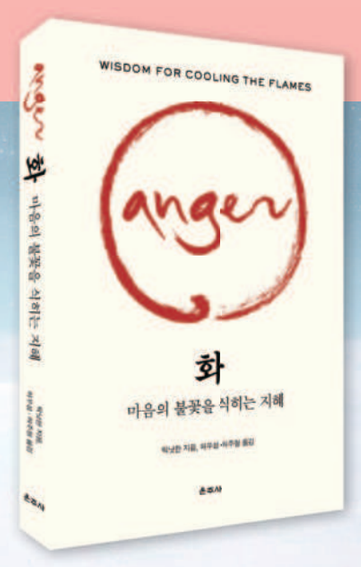
염불명상이란 무엇인가? 염불명상을 왜 하는가? 염불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염불명상의 개념, 원리와 종류, 실천방법, 그리고 다양한 활용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는 입문서 겸 실천가이드북!

방경일 글, 정기영 그림/사륙배판/192쪽/값 20,000원

틱낫한 스님의 『화』, 20여년 만에 온전하게 번역되다!

원서에 충실한 정확한 번역으로 비로소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접하게 되었다!

『화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anger



화, 절망, 좌절감 등에서 벗어나 나와 상대가 행복해지는 가르침!

‘화’의 본성을 이해하고 ‘화’에서 자유로워져야 행복할 수 있다.
‘화’는 우리가 내쳐야 할 대상도,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도 아니다.
‘화’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돌보아야 할 대상이다.

우리의 고통과 불행의 주요 원인은 외부 상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화의 씨앗’이다. 그러므로 화를 발산할 것이 아니라, 마음챙김 수행으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안아주고 미소를 보내면 된다.

틱낫한 지음, 허우성 · 허주형 옮김/국판변형/252쪽/값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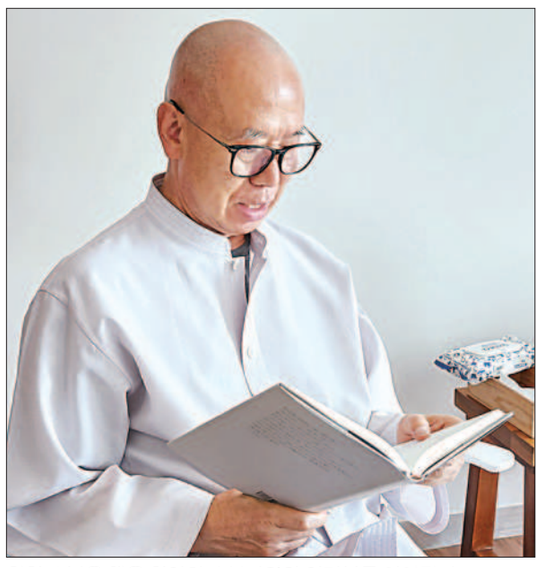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지상백고좌

청주 관음사 회주 함현 스님

“참선·염불은 ‘不二’… 지향하는 곳은 같다”

12면에 이어



함현 스님은 책을 확인하며 본지와의 인터뷰를 이어갔다.



조계종 종립선원 문경 봉암사 대웅전에서 예불을 올리는 스님들의 모습.

“정토의 종지기가 될 것”

“나는 이제부터 새살림을 차리려고 합니다. 선행 공덕을 살뜰히 키우면서 나의 이웃들을 끝없이 살려 나가는 일이 살림입니다. 나의 공성의 오두막인 극락정토를 장엄하는 정토의 살림꾼, 아미타부처님의 본원(本願)을 깊이 믿고 널리 권하는 정토의 종지기가 될 것입니다.”

선방의 상징이자 또 다른 이름으로 존경받던 함현 스님이 2022년 돌연 염불행자의 길을 선언했다. 수많은 대중들이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스님은 한발 더 나아갔다.

“비구 함현은 엎드려 발원하옵니다. 이 목숨을 마칠 때 궁극의 평안과 안락의 문이 연꽃 피듯 저절로 열려지이다. 그 문 앞에서 성중과 더불어 이 몸 맞아 정토로 인도해주실 아미타부처님께 미묘한 빛과 향기로운 소리로 찬탄하고 공양하고 예배 올리옵나니 바라옵건대, 천상·인간·아수라 세계의 항하사 중생들이 봄비 기다리는 설렘으로 아미타불께 귀의해 여덟 가지 고통 벗어나 정토에 태어나게 하소서.”

함현 스님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왜’일까?

“한참 참선을 열심히 할 때, 봉암사에 함께 살던 수경 스님과 연관 스님이 염불 수행을 하자고 했습니다. 연관 스님이 ‘참선도 해봤고 남방에 가서 수행도 해봤으니, 이제 노년에는 셋이 모여서 북을 치고 꽹과리를 두들기며 염불이나 합시다’라고 해 속으로 저는 ‘이 노장들이 미쳤나’하며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참선하기 쉽지 않은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행의 방법을 바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60여 일간 일본 시코쿠 순례를 하면서 염불 수행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겨울 안거 때 도솔선원에서 폐관 정진을 했습니다. 방 안에서 하루 8km를 걷고, 절 300배와 염불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함현 스님이 염불 수행을 확신한 계기는 연관 스님의 입적이었다. 연관 스님은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을 찾았다가 말기암 진단을 받고 스스로 곡기와 물을 끊어 2022년 6월 본래 자연으로 돌아갔다.

“연관 스님을 보내드릴 때 동료 선후배 스님들이 함께 염불을 해줬습니다. 다소 불편해 보이던 연관 스님의 얼굴이 ‘아미타불’ 염불을 하면서 맑게 변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마지막에는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이번 생의 인연을 마무리하셨어요. 연관 스님을 보내드리면서 염불 수행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정토법문은 그 실천이 쉽고 일상적이기에 이 시대의 삶들에게 크나큰 위안과 은혜로운 빛을 주는 최적의 법문”이라며 “물러남 없는 신심(信心)으로 앉으나 서나 오직 아미타불만을 염(念)하면 생각 생각이 아미타불이 되어, 붉은 지혜의 해가 솟아올라 보배 나무와 보배 연못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고 말한다.

정토신앙은 아미타불의 본원(本願)을 믿고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면 내세에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선(禪) 수행을 중시하는 한국불교에서 정토신앙은 오랜 세월 타력신앙 혹은 하근기 수행법으로 치부돼왔다. 그렇다고 수행자들이 염불을 터부시한 것은 아니다.

중국 영명 연수 선사는 “참선만 하고 정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열에 아홉이 길을 잃나니 중음의 경계가 눈앞에 나타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것을 따라가리라”고 경계하며 “참선도 하고 염불수행도 했다면 뿔까지 달린 호랑이와 같나니 현세에는 사람들의 스승이 되고 내세에는 부처나 조사가 되리라”고 강조했다.

운서 주굉 스님은 “한결같이 산란하지 않은 마음으로 염불만 하면 그가 지은 공덕의 크고 작음에 따라 결정코 구품연화대에 왕생할 것”이라고 설했다.

또 한국불교의 새벽을 열었던 원효 스님은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열 번만 하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고 가르쳤고, 근대 한국선의 중흥조인 경허 스님도 “온갖 인연 쉬고서 다만 아미타불을 염하니, 곧 그것이 여래선이며 그것이 바로 조사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부처님께서 왜 대기설법 하셨는가
중생 근기 따라서 法을 설하신 것
불자들도 근기 맞춰 수행 하면 돼
‘쉼 없이 정진하라’는 부처님 당부
출재가 모두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참선과 염불이 다른 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을 한 번 뒤집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향하는 곳은 같아요.”

다른 듯 같은 길, 참선과 염불

스님은 참선과 염불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참선과 염불 수행 방법은 무엇일까? 스님은 먼저 참선법에 대해 〈선관책진〉에서 독봉계선 선사가 말씀하신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그대가 무(無)자를 참구하려 하는가? 그렇다면 이 공안 공부의 목숨을 ‘어째서 개에 불성이 없는가’에 두어라. 그대가 ‘만법귀일’을 참구하려 하는가? 그렇다면 이 공안 공부의 목숨을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에 두어라. 그대가 염불로 참구하려 하는가? 그렇다면 이 공부의 목숨을 ‘염불하는 이놈이 무엇인가’에 두어라. 그리하여 마음을 돌이켜 스스로를 지켜보며 깊고 깊은 의심의 바다 속으로 끝없이 들어가라. 그대가 만약 화두를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면 다시 그 공안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분명하게 들어서 처음과 끝을 하나로 꿰뚫어라. 이렇게 하면 앞뒤가 절로 잡혀 몰록 의정이 맺힐 것이니, 이 의정이 끊이지 않도록 간절히 마음을 써라.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발을 들고 몸을 뒤쳐 허공에서 한 바탕 곤두박질을 치게 될 것이니 이때에 다시 와서 산승의 방망이를 맞도록 하라.”

‘행주좌와’의 여여한 염불수행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첫째, ‘행(行)’은 아미타부처님에게 연꽃 공양을 올리러 간다고 관상한다. 이 수행은 아미타부처님에게 연꽃 공양을 올리러 간다고 그리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는 수행법이다.

둘째, ‘주(住)’는 아미타부처님에게 기대어 서 있다고 관상한다. 이 수행은 아미타부처님에게 기대어 서 있다고 그리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는 수행법이다. 셋째, ‘좌(坐)’는 극락정토에 핀 연꽃 위에 앉아 있다고 관상한다. 이 수행은 극락정토에 핀 연꽃 위에 앉아 있다고 그리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는 수행법이다.

넷째, ‘와(臥)’는 아미타부처님의 무릎을 베고 있다고 관상한다. 이 수행은 아미타부처님의 무릎을 베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는 수행법이다. 좀 더 명확한 설명이 이어졌다.

“아미타불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아미타경〉을 있는 그대로 독송합니다. 주석서들을 보면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원전을 보는 게 가장 좋아요. 불교에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대기설법을 하셨느냐? 중생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불자들도 각자의 근기에 따라 참선이나 염불 등의 수행을 하면 됩니다. 활로를 구한다고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실천할 때 이뤄진다 했습니다. 바른 실천이란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집중하고 바르게 통찰하기입니다. 이는 모든 불문수행의 요체로 정토법문도 이를 여읜 특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스님의 말씀에는 거침이 없었다. ‘수행’에 대한 당부도 구체적이었다.

“수행이라는 것은 나를 밝히는 것입니다. 나라는 꽃을 피우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과 가식으로 꽃을 피워서는 곤란합니다. 수행자들이 왜 출가를 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래의 출가정신, 초발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삶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무상한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쉼 없이 정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울림이 있을까요? 부처님의 이 말씀을 출재가 모두가 꼭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에도 뭔가 모를 여운이 가득했다. 도솔선원을 나서며 〈머리 한번 만져 보게나, 극락 간다네〉 중 ‘함현 자계’의 한 구절을 가슴에 새기고 새긴다.

“이보게 함현, 이제 머리나 한번 만져 보세나! 머리를 돌려 스스로를 보아야 하네. 눈빛을 되돌려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네. 그래야 출가의 첫 뜻을 저버리지 않고 진정으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유철주** / 작가

국가유산수리기능
목조각 제 1728호
소 목 제 5972호
www.dongbangart.co.kr

동방예술원

사찰 내부불사 _ 수미단, 닫집, 목창호, 인등장, 현판, 주련

광주 화엄사 빛고을포교원 내부불사



동방조형예술원 489-30-01174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여양1로 612-18 010-7581-1010

무진 스님의 **불국토 경주 남산**에 오르다 ⑲ 늠비봉 오층석탑

▶한줄 요약
경주 남산 늠비봉 오층석탑. 경주 남산의 유일 백제계 석탑이라 소개되지만 이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도리어 괴임돌 조성을 보면 고려 중기 석탑으로 보인다. 늠비봉 오층석탑은 거란 침략을 막아낼 호국불교 의지를 담아 조성된 석탑이 아닐까하는 상상을 해본다.



'호국불교' 서원 담긴 석탑 아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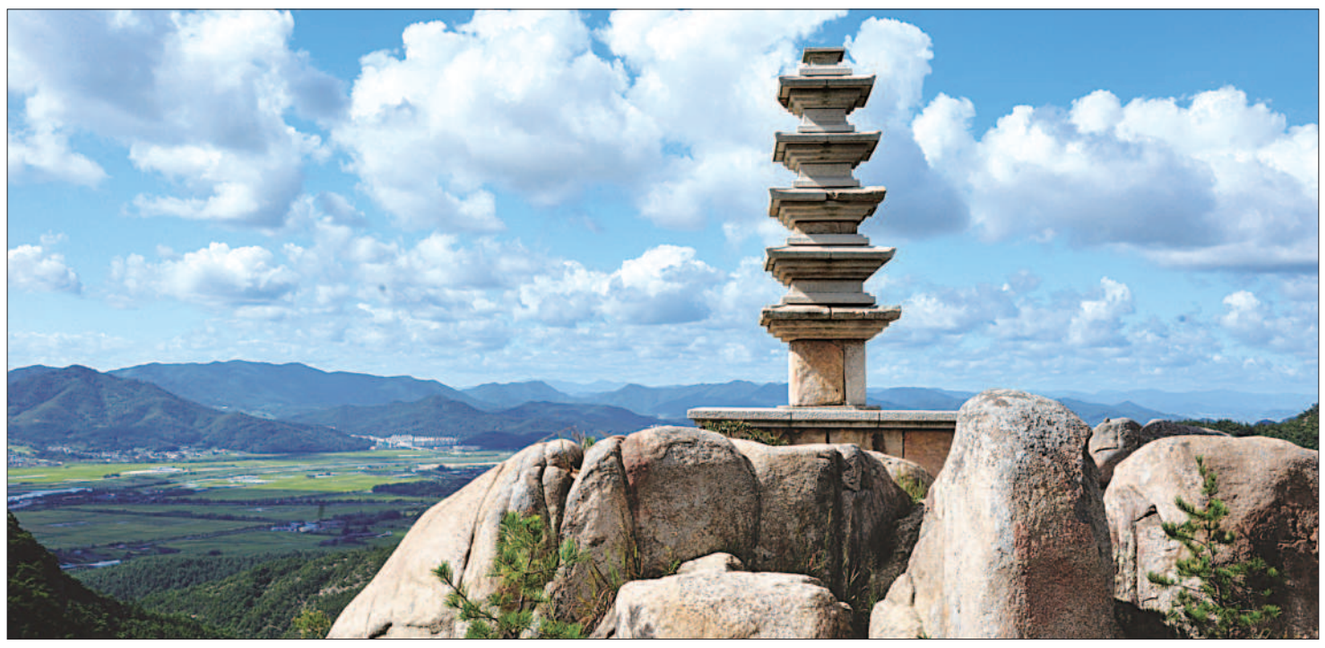
남산의 정상 금오봉과 멀지 않은 곳에는 용장사곡 삼층석탑과 같은 남산을 기단으로 경주 시내를 내다보는 멋진 석탑이 또 하나 있다. 보통 삼릉계곡을 올라 금오봉에서 용장사곡의 삼층석탑과 불상을 참배하는 코스가 일반적이다. 그렇기에 용장사곡 삼층석탑과 비견되지만 발길이 닿지 않는 것이 늠비봉 오층석탑이다. 늠비봉 오층석탑의 공식 명칭은 '포석곡 제6사지 오층석탑'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늠비봉 오층석탑'으로 불리고 있다.

포석곡은 남산 포석정에서 시작하여 늠비봉까지의 계곡을 말한다. 이 계곡을 따라 6개의 사찰터가 있는데, 제6사지는 '늠비봉 오층석탑'이 포함된 사찰터로 근래에 건립된 부흥사의 자리로 보고 있다. 부흥사는 포석정에서 남산의 비포장 소방도로(남산순환도로)를 약 1.6km 정도 오르다 보면 나온다. 부흥사에서 보면 우뚝 솟은 능선 위의 늠비봉 오층석탑이 보이는데, 직선거리로는 120m 정도 된다.

반대로 남산 정상에서 늠비봉 오층석탑을 가려면 금오봉 밑에 있는 화장실에서 남산의 비포장 소방도로(남산순환도로)를 따라 포석정 쪽으로 가야 한다. 가다 보면 상사바위가 나오고 왼쪽으로 금오정 가는 등산로 길이 나온다. 금오정이 보이고, 금오정 왼쪽의 등산로로 내려가다 보면, 훤하게 탁 트인 늠비봉 정상에 오층석탑이 웅장하게 서 있다. 6m가 가까운 높이의 오층석탑과 저 멀리 경주 시내의 환상적 경치는 '와' 소리가 절로 나온다.

흩어져 있던 탑의 부속 석재들을 모아서 2022년에 복원한 늠비봉 오층석탑은, 260m의 높이인 늠비봉의 암반을 기단으로 하여 남산 유일의 오층석탑으로 세워져 있다. 경주 남산을 기단으로 사용한 것은 용장사곡 삼층석탑과 같은 모습이다. 특이하게 기단부 판석 밑에 자연적인 돌을 알맞게 껴맞춘 그랭이 공법을 보여준다. 석재가 많이 소실되어 있어서 새롭게 재현한 부속 석재도 있지만, 경주 시내가 보이는 경관은 일품이다. 늠비봉 오층석탑은 비파곡 제2사지 삼층석탑, 용장사곡 삼층석탑과 함께 남산 능선 부근에 세워져 있는 경관이 아름다운 삼대 석탑이다.

보통 불교 상식으로 금당 앞에 탑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산에 있는 사찰에서는 전망이 좋고 산 아래가 잘 보이는 곳에 탑을 세우기도 한다. 경주 남산에서는 용장사지에서 위쪽 전망 좋은 곳에 있는 용장사곡 삼층석탑이 대표적이다. 그렇기에 늠비봉 오층석탑도 제6사지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04년 발간된 '경주 남산 정밀학술조사보고서'를 보면 부흥사 법당 앞에는 석탑의 지붕돌인 옥개석 1매와 상당수의 탑 부재가 확인되고 있다. 제6사지 금당 앞에는 석탑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부흥사의 제6사지에서 직선으로 120m 거리에 있는 늠비봉 오층석탑이 정말 제6사지인 현재의 부흥사와 관련된 석탑일까 싶다.



경주 포석곡 제6사지 오층석탑. 일명 '늠비봉 오층석탑'으로 불린다. 남산연구소 자료사진

포석곡 오르면 만나는 오층석탑
용장사곡 석탑 비견되는 '명작'
'백제계 석탑' 소개, 이해 안돼
고려 중기 괴임돌 양식 보여줘
거란 침략 막아낼 서원 담겼단
스토리텔링이 석탑 의미 살려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보면 '경주 남산 포석곡 제6사지 오층석탑'은 백제계 석탑이라고 짤막하게 안내되어 있다. 제작 시기는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라고 하는데 나말여초 시기가 된다. 그런데 어떤 모습과 어떤 이유로 백제계 석탑으로 보는지 해설은 나와 있지 않다. 2004년 발간한 '경주 남산 정밀학술조사보고서'에도 단층 기단 위의 오층석탑이 경상도 지역 신라시대 석탑 양식을 벗어난 백제계 양식이라 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늠비봉 오층석탑은 단층 기단이 아니라 용장사곡 삼층석탑과 같은 남산을 하층 기단으로 하는 2층 기단의 석탑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그럼 용장사곡 삼층석탑도 백제계 석탑이란 말인지?

오층의 석탑이기에 백제계 석탑이라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9세기 조성된 오층의 석탑은 경주에도 보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경주 나원리와 장항리의 오층석탑이 있다. 늠비봉 오층석탑이 경주 중심의 남산에 세워진 유일의 백제계 석탑이라면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클 것이다. 그러나 백제계 석탑이 8~9세기 경주 남산에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삼국을 통일한 이후 신라의 옛 영토에는 백제계 석탑이 세워질 수도 세워진 적도 없기 때문이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이후 삼한을 정벌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백제가 멸망한 660년 이후 백제의 땅에서는 불사를 일으킨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옛 백제 땅에 불사가 일어나는 것은 8세기 중반 경덕왕이 화엄종의 힘으로 지방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불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서다. 이후 원종과 애노의 내란이 시작되는 889년부터 고려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936년까지, 나말여초 시기에 거대한 석탑의 건립과 같은 불사는 없었다. 이처럼 백제계의 석탑이 나말여초 시기 경주 남산의 불국정토에 조성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백제가 석탑으로 보이는 부분은 무엇일까? 정형화된 신라 석탑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각 몸돌 탑신을 받치는 괴임돌이다. 늠비봉 오층석탑은 2층부터 지붕돌인 옥개석 위에 몸돌인 탑신의 받침으로 2단의 층급이 있는 괴임돌을 놓고, 그 위에 몸돌인 탑신을 올려놓고 있다. 통일신라시대 석탑에는 이러한 형식은 없으며, 1층 몸돌인 탑신석과 기단 사이에 괴임돌을 넣는 경우는 있다.

1층 몸돌인 탑신석과 기단 사이의 괴임돌은 9세기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성주사지의 금당 앞높이 6m 중반의 오층석탑이 있다. 석탑 1층 몸돌인 탑신석과 기단 사이에 별도의 별석 받침의 석판인 괴임돌을 넣어 놓고 있다. 10세기에는 고려 초 조성된 높이 9m의 보원사지 오층석탑도 이에 해당한다.

보령 성주사는 616년 창건된 백제의 사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주사는 중국과의 무역로의 길목인 보령에 위치하며, 백제가 멸망하는 660년 폐허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성주사지에 있는 '낭혜화상탑비'를 보면, 847년 무렵 신라 구산선문 중 성주산문의 개산조 낭혜무염(800~888)이 무너진 옛 사찰인 성주사에 거주하며 중건하고 있다. 이후 신라 문성왕은 성주사라는 이름을 내려주고 흥륜사에 소속시켜준다. 이것은 성주사를 왕실 직할 사찰로 하여 보령지역을 관리하려는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지금의 성주사지 오층석탑은 낭혜무염이 머물면서 불사를 하기 시작하는 9세기 중반 건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1998년 발간된 성주사의 발굴조사서 72쪽을 보면 백제시대 목탑의 기초 위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말한다. 성주사지 오층석탑은 847년 무렵 낭혜무염이 폐사된 사찰을 재건하면서 백제 목탑 자리에 세운 석탑이 된다.

보원사지에는 '법인국사탑비'가 있다. 내용을 보면 법인 국사 탄문(坦文, 900~975)의 부도탑은 고려 광종(재위 949~975) 26년인 975년에 건립되고, 탑비는 978년에 건립된다. 법인 국사는 화엄종 스님으로 975년 고려 광종의 보살핌으로 보원사에 내려온다.

보원사는 가야산사라고도 하며 통일신라시대부터 중국과의 무역로인 서산지역을 아우르는 중심 사찰이었다. 또한 화엄종 사찰은 통일신라 이후부터 지방을 다스리는 중심 역할을 하였다. 그렇기에 고려의 왕권을 확립한 광종이 화엄종의 대표 스님인 법인 국사를 보원사에 기거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법인 국사 이후 975년부터 대단위의 불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오층 석탑도 975년 어느 때 건립된 것으로 보인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 된다.

늠비봉 오층석탑은 성주사나 보원사 오층석탑과 같은 1층 몸돌 밑에 괴임돌을 놓은 것이 아니라, 2층부터 5층까지의 몸돌 밑에 괴임돌을 넣고 있다. 이러한 양식은 고려 중기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 서울 홍제동 오층석탑, 곡성 가곡리 오층석탑에서 확인된다. 몸돌 받침의 괴임돌은 이처럼 9세기~10세기 성주사와 보원사 오층석탑의 1층 몸돌의 받침으로 시작하여, 고려 중기 2~5층의 몸돌 받침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 오층석탑 괴임돌의 양식 변화과정이다.

늠비봉 오층석탑을 9세기 경상도 지역과 경주 남산에 세워진 유일한 백제계 석탑으로 볼 이유가 없다. 이보다는 더 멋진 이야기가 담겨 있는 오층석탑으로 보인다. 앞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것처럼, 고려 1022년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구층석탑을 조성하고, 남산의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에 명문을 새기며, 거란이란 원적이 영원히 물러가기를 기원을 하였다. 이러한 기원과 함께 귀주대첩 승리를 자축하고,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앞으로도 원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만천하가 내려 보이는 늠비봉에 오층석탑을 세운 것은 아닐까!

멋진 전설은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다. 남산 늠비봉의 오층석탑은 다시는 이 땅에 원적이 침략하지 않도록 부처님께 기원을 올린 탑이라는, 풍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불교문화유산이 탄생한들 뭐 걸릴 것이 있을까. 백제계 석탑이란 내용보다는.

참 오층석탑은 왜 오층일까? 궁금해서 7개 박사학위의 자현 스님에게 문자로 물었다. '돈대로 짓는거죠'라는 답장이다. 즉 모른다는 것이다. 이럴 때 뇌피셜을 전제로 무궁한 이야기를 펼칠 수 있다. 1년은 12달이다. 12년이 딱 떨어지려면 5을 곱해서 60을 만들면 된다. 그렇기에 60년은 환갑이 된다. 모든 우주가 한번 돌아간 것이 환갑이다. 즉 꽉 찼다는 것이다. 우주가 꽉 차게 하는 5를 상징하여 오층석탑을 세운 것은 아닐까! 문화유산의 현상으로 시대를 상상하는 나만의 재미다.

〈경기 광주 빛고운절 회주 · 조계종 교육아사리〉

삼가 합장하옵고 인사드립니다.

금번 저희들 은사스님이신
정광당 삼중대종사 입적에 즈음하여
따뜻한 추모의 정을 표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큰스님을 여법하게 잘 모셨습니다.
고마운 마음 오래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내내 평안하시길 비오며

삼중큰스님 상좌일동
마음모아 합장하옵니다.



종 단 공 고

(사)한국불교 화엄종

불기 2568(2024)년
한국불교 화엄종 총회

불기 2568(2024)년 한국불교 화엄종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24년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 소 : 한국불교 화엄종 총본산 석불사 대웅전
(전북 익산시 삼기면 진북로 273)
■ 대상 : 한국불교 화엄종 승려 및 법사
■ 안건 : 한국불교 화엄종 승려 및 법사의 재적현황 파악

*참석이 어려운 분은 063-858-5895 또는 010-2970-7459(재무)로 이메일/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모든 종무행정 소식은 알려주신 연락처로 보내드립니다.

2024년 9월 20일

한국불교 화엄종 총무원

사찰이나 펜션
전원주택의 최적지

모두가 떠나간 빈 공간에
추억의 한 페이지를 남기고
좋은 인연을 찾습니다.
서울에서 한시간 반거리

경북 봉화군 법전면 놀산리 520번지

황토주택(30평) 1채 및 황토방 1채
송이버섯이 나는 야산과 야생화 및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냉장저장고로
사용가능한 150m동굴까지 있습니다.
• 총평수 : 약 9650평
• 매매가 : 6억 5천

010-4116-1571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생활

1501호 | 15 | 전면광고

한 부처님이 출현하시면 만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이 이룩되면 곧
극락세계가 사바세계 안에 이루어진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무량수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시 • 대지 110평
- 법당 : 25평 • 요사 60. 주차가
- 매가 : 10억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법당 : 60평 외 • 요사 : 60평 외
- 매가 : 35억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 채무채권 상담합니다. 사찰컨설팅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천로
- 부처님 원불 인등 산신 용왕
-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 시설비(상호 합의)
-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010-3906-37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포교당 임대 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화곡동
- 까치산 시장과 지하철 입구 인접
- 마당있는 단독주택 방 3개(거실 법당)
- 보증금 : 1000만원/월세 80만원

스님 이민 관계로 몸만 오시면 됩니다. 법당 법구 일체, 냉장고·세탁기 등 모두 보시하고 갑니다

010-5399-1225

사찰(급)안내

- 동해안 (영덕)
- 임법당, 손 볼곳없는 깔끔한 도량
- 올대지 326평, 건물 40평 두채, 등기있음
- 법당 15평, 공양간 20평, 방사 5개 큰창고 2개, 목욕탕 3개, 야외화장실 2
- 노천 지장입불, 산신노천석불, 용궁
- 즉시법회 가능
- 1억 4500만원

010-2008-0377

사 찰 안 내

- 위 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 지 : 700평 (실사용 천평)
- 건 물 : 법당 (25평) 산신, 칠성, 용왕
- 요사채 : 슬라브 2동, 황토방 2동
- 해우소 : 1동. 차량진입, 주차장
- 금 액 : 5억

산이 병풍처럼 쌓인 도량, 남향이라 따뜻하고 앞이 탁트이고 살기좋은 도량, 큰비가 와도 물 배수잘됨. 도량에 과일나무 자두, 호두, 은행, 오디, 감나무, 매실, 두릅, 머위, 고사리 등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경북 안동시 와룡면 라소리 야산151
- 병풍처럼 아늑한 산속
- 5,429평 1억원, 전답 636평 2억원
- 길 확장, 수로 공사, 시멘트 전기, 물 관정, 농지 정리
- 직불제 매매 2억 9000만원
- 법당 석가모니불, 지장보살, 산신, 후불탱화 3점 방 4개, 기름보일러
- 비구니 스님 운영
- 비구니 스님 및 보살님 도반으로 함께 운영하실 분 연락주세요.

010-3521-5420

멋진사찰 (급) 안내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 지 : 약 175평
-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 액 1억 9000만원

건강상의 이유로 시세 확 낮춰서 올립니다.

010-3007-5611

도심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1동 678-3 동진상가 반지하
- 규모 : 60평 이상
-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 삼존불 탱화 등 불구, 집기 일체
- 시설비 절충

010-6274-0828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선암다리 5분, 김해공항 15분 동김해ic서 5분 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대출 8000만원 끼고 6억원

010-6898-91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상리면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 1000만원 (절충가능)

010-5436-580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소재
- 대구 1시간, 경산 팔공산 갓바위 30분 거리
- 경치좋고 물좋은 곳으로 고찰이 많은 불자동네
- 5분 거리내 대형마트 3곳
- 법당 · 주방 · 방2 · 화장실2 실평수 약 45평
- 비품시설 : 1500만원, 보증금 500/40
- 사주 방편으로 포교 하실 분

010-7942-9015

사 찰 안 내

- 위치 : 가야산 아래 백운동 60평
- 1가구 2주택 해당 안되는 공기가 매우청정한 토굴
- 거실, 방2, 화1 군불넣는 잘지어진 황토방1
- 가액 : 6900만원

010-4894-582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10억

010-6325-5112

사찰 전세

- 위치 : 부산
- 사찰대지 250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 연수익금 7000만원, 주차시설 10대
- 전세금 2억원

010-4561-63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 대지 : 30평
- 건물 : 3동
- 법당 8평, 주지실 6평, 용왕당 3평, 공양간, CCTV 4대
- 빈몸으로 오셔도 바로 법회 가능 합니다.
- 가액 : 6000만원

010-4416-0201

사 찰 안 내

경남 사천에 위치한
〈네이버〉 검색 **황종사**
사찰 운영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단원 합장

010-8961-54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사천시 새고개2길 47 (삼천포)
- 대지 : 265평 (법당20평 정동향)
- 요사 : 30평 (방3, 화장실2, 정남향)
- 특징 : 70년샘물, 진주남강수도 겸용 대형e마트 도보3분 위치 30대주차가능. 마당까지 진입
- 가액 : 2억4천(地價만 계산했음)

010-8868-70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동대병원 근처
- 부지 : 약 250평 (하수부지 200평 밭 이용 중), 8각 법당 (30평, 판넬), 건물 4동(법당, 요사채 등)

★들어오는 입구 터널 및 철길 제거★

- 특징 : 마르지 않는 시냇물과 2차선 도로의 100m 산속 끝집(남향). 명당중의 명당 (수월 큰스님), 수도, 전기有. 20분 간격 버스, 정류장은 도보 200m. 특히, 도보 5분 거리 슈퍼. 차로 10분 거리에는 큰 슈퍼 2개와 15분 거리의 동대병원(시장은 20분)
- 가액 : 3억 5천 (조정불가) / 부동산 사절함 / 문자로만 가능

010-8847-4610

포 교 원 안 내

- 지역 : 부산 구포재래시장 신협옆
- 상가 : 2층건물50평 옥상포함(단독)
- 법당 : 삼존불, 지장, 신중, 칠성, 영단, 장엄불상200불, 법당범종, 좌대법고
- 시설 : 친견실, 편백객실, 공양간, 수련장
- 주차 : 1층(포함) 유료 주차장운영
- 전세 : 2천/50 시설 : 3천5백 (1.2층포함)

납자 10년째 수행 중이나 사고로 인해 부득이 양도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도심 속 산사에서 법다운 법 전하는 수행납자를 기다립니다.

010-4535-256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 깨끗한 목조법당
- 매매 7억5천, 전세 4억
- 부동산 사절

010-8078-21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 대지 : 210평(2필지)
- 건물 : 법당, 삼성각, 요사채(방4개) 주차장
- 가액 : 2억 7천만원(절충 가능)

집기류, 가전제품, 모든 기물 양도.
경내 영험있는 서낭나무 있음.

010-5022-2187
010-5333-8905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절마당 닷컴을 오픈했습니다.

절집안의 필요한 종무원 구인구직 및 절부동산 안내와 이름작명을 빠르게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절마당 운영자 합장

www.절마당.com



010-5105-5000

기문둔갑 수강 모집

기문둔갑은 1세부터 90세까지 운세를 알 수 있는 것. 첫째 학생 진로 결정시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판검사, 의사, 사업가 등의 사주를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문제, 부부관계, 병고 향방을 알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스님 및 일반인 수강 가능
스님이 직접 강의합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010-3544-9777

사람을 찾습니다

법명 : 공덕심 (보살)
나이 : 78세 (돼지띠)

현재 대구에 거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분 연락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

010-3152-2732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 증 업 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제주 무료숙박 안내 (2박3일, 3박4일)

제주 풍차와 석양이 아름다운 절경
한경면 신창리에 요사채를 무료개방합니다.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림하시는 하루는 재능기부나 농어촌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신도님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제주도 한경면 신창리 62번지 / 대한불교 칠보사 주지 일허 합장

백년여행사 010-6236-1135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010-5270-8260
010-6785-1130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누구나
인생의 기로에서 지표가 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삶의
나침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창원시 · 경남 고성



상담 : 010-2090-4030

불교의식(행사대행)

49재, 천도재, 예수재, 점안식
(법문, 바라, 나비무, 법고무)

초대해 주시면 불사 행사 성취에 성심 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연암당 덕평
010-6219-4757

함께 하실 공양주 모십니다
함께 일할 거사님 모십니다
함께 수행할 행자님 모십니다

부산 만덕사

051-334-3009
010-3840-4355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와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자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 수행자를 찾아서

(대회 및 사례자들과의 즉문즉설)



불·법·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선재 불교대학) 도안·여명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 내)
☎055)633-6555 / H.P 010-3466-9991

-. 절망(지옥)에서 희망(극락, 천당)으로
-. 바른 정법(경전)으로 행할 때 분명 가피(기적)는 있다.
-. 연일 소문이 무성한 저잣거리에 나가보면 하루 종일 말 잘하는 앵무새(입보살)들과 잡귀(사주, 철학, 삼재풀이 및 기도, 인등, 산신, 성지순례, 물고기 방생, 무슨 영험도량, 신통도량, 부적 등등)에 능한 이들 외에 참 수행자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또 세계○○대회와 공영 방송에서는 스타급○○ 등이 야단법석(즉문즉설)을 할 때 여기에 조현병 환우가 있다면 어찌할 것인지 물으니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정신병원에 보내어 약물치료와 아울러 참회를 시켜야 한다고...이건 세속에 있는 이들의 할 말이지 수행을 근본으로 하는 이가 할 말이 아니다.

이미 정신을 잃어 버렸거나, 정신을 놓아버렸거나, 혼미한 이는 정상인이 아닌데 참회라니 그들의 말을 알아 듣겠는가?

부처님, 부처님 당시 수행을 근본으로 했던 그 많던 참수행자(아라한)는 어디에 갔는지…또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환우(조현병, 백혈병, 말기암환자, 전이된 암환자, 희귀병)를 만나면 어찌 합니까?

【사례 : 어느 기독인의 절규 】

안녕하세요..저는 서울에 사는 이○○(33세)입니다. 제가 말하는 직업이긴 하지만 원래는 말하는 것보다 경청하고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도 제가 말을 해야 할 때와 제가 경험한 것을 알려야 할 때는 당당하게 말하는 편입니다. 오늘 지면을 빌리게 된 것도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 사례를 알리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살아생전에 남긴 편지가 있다고 하는데 가짜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이 편지에서 와닿는 구절이 있어 알리고자 합니다.

"3천원짜리 옷의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 주고, 3천만 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 주고, 5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증명해 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증명해 주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바로 건강한 몸이요.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말고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 그대가 손에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글에서 돈보다는 생명이 우선이며, 생명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명보다 돈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살려준들 생명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을까요?

큰스님께서 환우들을 고치는 능력을 과시하려 했다면 아무나 다 고쳐주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돈의 가치를 더 소중히 하는 사람에게는 살 기회를 주지 않기도 합니다. 스님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싶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소중함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대가 없이 베풀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병을 고친 것에 대해 이야기 하실 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친다가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바른 수행하고 실천하지 않았을 뿐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이야기 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 가끔 생각날 때마다 곱씹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행자로서의 바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스님처럼 하지 못할 뿐이고 결국에는 이 말을 듣고도 실천과 수행을 하려고 마음먹는 것이 아닌 그저 또 스님께 의지하며 쉬운 길을 가려고만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은 스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고 조금씩 깨닫는 과정일 뿐 무언가를 이뤄내고 체험했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큰스님을 만남으로써 제 삶의 큰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으며, 사소한 것에도 더 행복해하고 고마워 할 줄 알게 되었으며, 모든일에 대해 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게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받은 것에 대해 잊지 않으려 노력 중이며 계속해서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큰스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던 일은 3년 전 결혼 준비했던 때에 시어머님이 기독인으로 평생을 누워지내며 원인 모를 심장 두근거림과 숨이 잘 안 쉬어진다며 유언 남기듯 저에게 자기가 없어도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라는 전화를 받고 놀란 마음에 엄마에게 부탁드려 스님이 기도해 주셨고 시어머님이 금방 회복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편(기독교)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어머님의 병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25~6년동안 불안증세와 불면증, 각종 원인 모를 문제들을 겪었으며 남편도 같은 증상을 겪고 있으며 스님을 통해 이러한 문제는 유전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달도 안된 제 딸에게도 유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님의 지도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으로서의 마음을 접게 된 계기는 아이를 가지려 마음 먹었던 날 이후부터입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 저희 엄마는 종교에 대해 강요하신 적이 없고 그저 종교는 믿는 것이 아니다. 절에 다니라는 말도 하지 않을거다. 무신론자로 살아라 라는 말만 해주셨습니다. 큰스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 이제야 무신론자로 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엄마와 같이 대형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에게 이러한 체험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목사가 능력으로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엄마도 제가 어릴 때 자주 아프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때는 저와 오빠는 어려서 잘 몰랐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식이었는데, 오래전 지인의 소개로 큰스님을 만나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엄마가 만약 큰스님을 만나지 못하여 그때 돌아가셨더라면 저와 오빠는 어찌 살았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저희 외삼촌도 조현병으로 정신병동(인천 8년) 생활을 하던 도중 현대00병원(서울)으로부터 설암 판정을 받게 되자, 조현병에다 설암까지 겹치자 정신병동에서 엄마에게 연락이 와서 빨리 데려가라고... 엄마는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 스님께 상담을 하자 스님이 데리고 오라고 하여 기도후 틈만나면 밥값한다며 마당을 쓸었습니다. 우리 외삼촌도 독실한 기독인이었습니다.

저는 작년 6월에 계획 임신을 준비했고, 7월 절에 다녀간 이후로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기간 중에 별 탈 없이 지냈으며, 입덧도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씩씩한 임산부는 처음 본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 해 1월 출산 2달 전에 마당을 쓸러 절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 절에 왔는데 출산 2달 전임에도 몸이 힘들지 않고 절에 있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출산하던 날 엄마가 출산 당일 병원에 오셔서 제 손목에 염주를 채워주고 30분후 분만 시작하겠다는 의사의 말이 들려왔고, 분만 시작한 지 5분만에 아이를 자연분만했습니다

제게는 이 모든 과정이 감히 우연이 아닌 스님의 신통 법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 후 1달도 되지 않던 날 저희 딸 기도차 스님이 직접 서울까지 올라와 주셨습니다. 다녀 가신 이후로 아이는 더 건강하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 기도 받았으니 이제 끝이야 라는 생각이 아닌 시댁도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지금처럼 건강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지식이자 유명한 00큰스님께서 사부대중 앞에 법문 시 나는 수행 결과인 수행력(법력)이 없어 환우를 만나거나 그 멀리서 찾아오면 나의 수행력 부재로 말로 위로하거나 외면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참회와 더불어 평생을 두고두고 마음의 짐이었다고 하셨다. 오늘 큰스님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는 두고두고 새겨볼 일이다. 나무관세음보살

■ **대회 일시 : 2024년 11월 3일 10:00~**

■ **참가 자격**

종파를 떠나 바른 수행 끝에 득한 법력(수행력)으로 조현병, 말기암, 전이된 암, 백혈병, 희귀병 등 완치 가능한 수행자

■ **참가할 수 없는 자**

비불교적인 것(사주, 삼재, 인등, 부적, 사업성취, 재수불공), 물고기 방생, 성지순례, 월급쟁이 공양주, 술, 담배, 화려한 불상, 건축 불사, 만년 위패, 평생 위패, 우담바라, ○○장 등 등은 일체 참여할 수 없음

■ 잡귀 및 비불교적인 것은 여러 차례 지면을 통해 알렸으니 참조 바랍니다.

■ 기도시 ○○○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신체를 압박하는 행위, 침술, 약 처방, 식이요법 등은 사절함

■ 기도 완결자는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 기도시간은 20분 내로 함. (2회까지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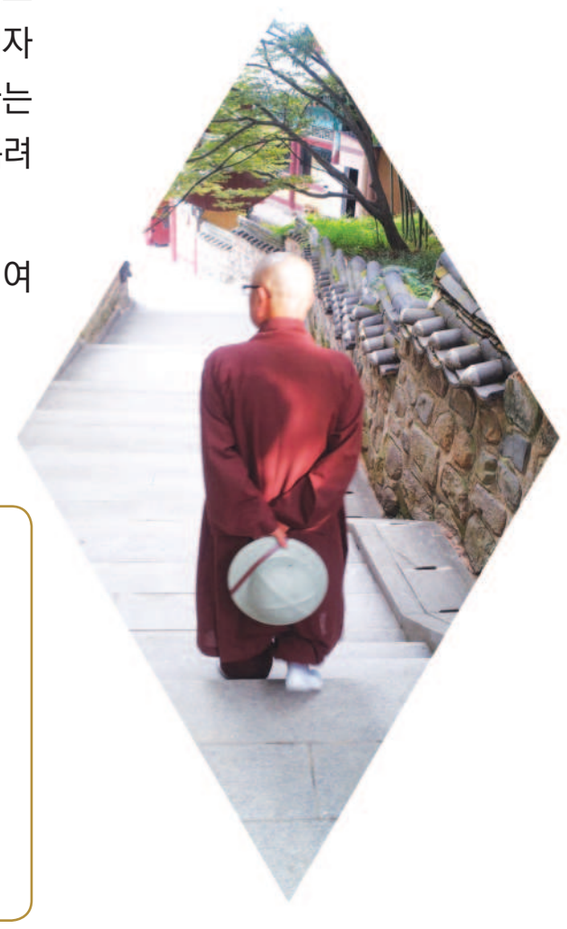
■ **결과 검증** : 조현병은 즉시, 나머지 환우는 10일 후 병원진단서(30% 이상 완치 확인)

※ 불자 여러분 말세에 바른 불교 중흥을 위하여 방송스타 성직자 유튜브 성직자, 신통방통하다는 이들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양 준비 관계로 미리 참석 여부를 부탁드립니다.

사례자 연락처

010-3466-9991 (김00)
010-4807-6932 (박00)
010-5699-3173 (박00)
010-9633-7158 (조00)
010-9108-5819 (김00)



*본 내용은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국극에 담긴 '평등'이란 화두



이안의 Media In Buddha

㊽ 웹툰 · 창극 · 드라마 〈정년이〉



2023년 국립극장에서 열린 창극 〈정년이〉의 공연 모습. 사진출처=국립극장 페이스북

12대 전국비구니 회장을 역임한 본각 스님은 '여성 수행의 의미와 가치'라는 논문에서 "석가모니에 의해 불교 교단이 만들어진 기원전 4세기경의 초기 불교에서는 남성과 동등하게 출가하는 여성 수행자가 있었고, 교단 내에서도 그 사람의 과거나 사회적 계층을 전혀 묻지 않고 남자 수행자와 평등하게 비구니로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당시 사회적으로 성차별과 신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교 수행에는 남녀가 평등했다는 것이다.

영화 〈서편제〉에는 소리꾼 송화가 아버지와 장터를 지나갈 때 국극단이 공연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새로운 장르인 국극이 대중적 인기를 얻는 시대가 되었는데도 오랜 전통인 판소리만 고집하며 자식을 닦아세우는 소리꾼 아버지 때문에 외롭고 힘든 소리 길을 떠도는 송화의 고단함과 전통이 외면 받는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렇다. '국극'이라는 이름만 보면 아주 오래된 전통문화일 것 같지만 사실 국극도 새로운 장르였던 시절이 있었다. 국극 가운데도 '여성국극'이 따로 있었고, 그 여성국극도 쇠락해서 대중으로부터 멀어졌나 했는데 여성국극이 몇 년 전부터 대중문화에 돌풍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 실재하는 국극단과 살아있는 국극 연희자들이 보여주는 공연 무대를 통해서가 아니라 포털 사이트 연재된 웹툰 한 편에서 시작된 바람은 이제 동시대 대표적 문화 현상이 되고 있다. 해당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정년이〉 방송을 앞두고 제작사와 공중파 방송국 사이에서 소송 문제가 불거질 정도다.

'정년이'는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서울의 여성국극단을 배경으로 한 웹툰의 제목이자 주인공의 이름이다. 창극 배우가 되고 싶은 목포 소녀 정년이와 선후배 동료 소리꾼들의 열망과 경쟁, 도전과 성취, 갈등과 우정을 담은 웹툰 〈정년이〉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3년에 걸쳐 네이버에서 연재되는 동안 "여성 서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찬사를 받았다.

연재 시작 이듬해에 '2020년 올해의 양성평등 문화콘텐츠상'을 수상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은 것은 〈정년이〉라는 인물과 서사, 재현 방식이 현실 사회 안에 바람직한 젠더 가치관을 펼쳐낸 공이 크다는 공적 지표일 것이다. 사회적으로 울림을 만들어내는데 재미도 있으니 팬덤이 커지면서, 지난해에는 국립창극단 최초로 웹툰을 원작으로 한 창작극으로 무대에 올랐고, 드라마로도 각색돼 10월 12일 첫 방영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만화'를 지자체의 대표 콘텐츠로 삼은 부천시에서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일대에서 열리는 올해 만화축제의 공식 포스터 주인공도 '2024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정년이'다.

> **2019~2022년 네이버서 연재된 웹툰 〈정년이〉**
> **한국전쟁 직후 여성국극단 배경으로 서사 전개**
> **"여성서사 새 지평 평가"…창극 · 드라마화 인기**

지자체가 지원하는 축제는 지역민들이 문화를 즐기는 자리이기도 하면서, 그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의 경제와 산업을 홍보하고 성장시키려는 의미도 크다. '만화! 더 큰 만남(Manhwa! Wide Open)'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만화와 웹툰이 영화, 드라마, 게임, AI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면서 더 많은 산업과의 만남으로 미래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를 바라는 지자체의 바람을 담은 주인공에 '정년이'를 내세운 것이다. 이 정도면 신드롬이다.

〈정년이〉의 인물들은 '소리'를 하지만 웹툰에서 그 소리는 말풍선 속 텍스트와 프레임 속 캐릭터의 표정을 통해 상상만 가능했다. 그런데 여태 동서양 고전이나 전통 판소리를 원작으로 한 작품을 올리던 국립창극단이 아예 웹툰에는 없던 소리를 직접 만들어 무대에 올렸다. 화제도, 흥행도 보증하는 국립창극단에서 〈정년이〉를 2023년 첫 작품으로 올리면서 웹툰을 모르던 창극 팬덤에 원작 웹툰의 애독자 팬덤이 몰리면서 창극 〈정년이〉는 순식간에 전회 매진되어 예정에 없던 추가 공연까지 이루어졌다.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려는 욕망에 온 존재를 걸고 서로 경쟁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서로 응원과 연대를 나누는 〈정년이〉의 서사와 캐릭터들은 여성의 성장 서사를 다루면서도 '여성의 적은 여성'이 되도록 만드는 비열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다.

그동안 국립창극단과 창극 〈홍보씨〉 〈패왕별희〉 〈나무, 물고기, 달〉 등을 함께 한 이자람 감독이 "만화를 볼 때 독자들의 상상력이 발휘되듯, 판소리도 관객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이라며 재미있게 작업했고, 관객이 호응해 전회 매진되었다고 해도 공연 무대는 많은 대중들에게는 멀다. 시간도 공간도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이제 김태리, 문소리, 신예은 등 당대 인기 여성 연기자들을 캐스팅한 드라마로 펼쳐지게 되었다.

여성국극의 역사는 다른 전통 예술에 비해 굵고 짧았다. 원래 소리꾼 하나가 고수의 북과 추임새만 곁들여 1인극으로 펼쳐내던 판소리가 여러 창자들로 배역을 나누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기존의 판소리를 분창(分唱)하는 형식인 창극이 등장한 것이 20세기 초반부터였고, 그 창극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새로운 매체인 영화와 경합하다가 1945년 해방 이후, 국악원에서 소리를 하던 '여성국악동호회'가 1948년에 따로 여성만 출연하는 창극을 공연하면서 시작했으니 전통 문화라고 하기보다는 당대 여성들의 새로운 문화적 트렌드였던 것이다. 소리 중심이었던 기존의 창극과 달리, 소리와 춤과 연기가 어우러진 여성국극은 한참 전쟁 중이던 시기인 1950년에 임시수도 부산의 부산극장을 중심으로 공연이 이루어졌다. 전쟁 중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으나 1960년대 이후로 쇠퇴하고, 처음 여성국극을 시작했던 주역들은 대부분 원래 시작한 자리였던 국악계로 돌아가면서 한 시대를 반짝 풍미했던 독특한 과거의 유산 정도로 여겨졌다.

젊은 남성들은 죄다 전선에 있어야하던 시기에 무대 장치, 의상, 분장, 조명과 같은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리와 춤, 연기가 어우러진 무대를 만든 여성들의 무대는 각별했을 것이다. 그리스 고전극이나 중국의 경극에서는 남성이 여성 역할을 하는 것과는 달리 여성국극은 남장 배우가 남성 역할을 맡았다. 이 남장 배우의 존재가 인기의 한 동력이기도 했다.

당시 남자 주인공 역의 임춘앵, 조금앵, 김경애, 박보아, 김정희, 김경수 등은 요즘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고, 남자 악역, 남자 희극까지 다 전문 분야가 따로 있었다. 이들 여성국극 스타들이 1962년 국립오페라단, 국립무용단에 이어 국립극장 산하 전속단체의 하나로 현재 국립창극단의 전신인 국립국극단이 창설될 때 주축이 되면서 '여성'만의 국극은 쇠락하게 되었다.

웹툰 〈정년이〉가 여성국극을 소재로 하면서도 배경이 되는 시기를 1956년으로 한 것은 막 내리막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시점이다. 국악계에 연줄 하나 없고 스승도 없는 흙수저 윤정년이 재능과 열정만 품고도 국극단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시대적 쇠락이 벌려놓은 틈새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드라마 〈정년이〉에서는 웹툰 작가가 주인공 정년이의 모델로 참조했다던 영화 〈아가씨〉의 김태리 배우가 정년이 역할을 맡았다는 인연도 재밌지만, 대중문화가 여성혐오와 여성의 성적대상화 양극단를 쏟아내는 이 시대에 '정년이'라는 캐릭터가 이처럼 하나의 신드롬이 되는 것도 재미있다. 이 관심의 바탕은 젠더 평등과 연대가 이 시대에 간절한 화두이기 때문일 것이므로.

〈영화평론가〉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㊲

1. 부처님의 십대 제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우팔리는 석가족의 이발사 출신으로 부처님 열반 직후 거행된 결집에서 율(律)을 암송하는 역할을 맡았다.
② 가섭 존자는 원리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행을 하였으며,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난 후, 칠엽굴에서 경과 율을 결집하는데 앞장섰다.
③ 아나율은 '공(空)'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한 제자로 불교가 전파되지 않았던 변방지역에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퍼뜨린 사람이다.
④ 라훌라는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낳은 아들로 남의 눈에 띄지 않을 때도 은밀하게 스스로 행할 바를 실천하여 밀행(密行) 제일이라 한다.
⑤ 아난 존자는 부처님의 시자로 기억력과 집중력이 뛰어나 부처님 열반 직후 열린 결집에서 교리에 대한 부분을 암송하는 역할을 맡았다.

해설 : 저번 문제풀이에서 연속하여 계속 부처님의 제자들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아나율은 천안제일의 제자로 그는 부처님과 같은 석가족 출신이자 부처님의 사촌동생이다. 아나율은 스스로의 게으름을 경책하고 열심히 수행정진한 끝에 제법을 참답게 아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음으로 하늘의 눈(천안)과 같은 통찰력을 가졌다하여 천안제일이라 하였다.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한 제자는 해공제일 수보리이다. 나머지 제자들의 내용은 ①, ②, ④, ⑤를 참조.

2.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21년이 되던 해에 사왓티 거리는 살인마의 출현에 공포에 휩싸였다. 그 살인마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죽은 사람의 손가락을 엮어 목에 걸고 다녔다. 이 살인마를 부처님은 교화시켰는데, 그 살인마의 이름은?

① 틱낫한 ② 박가와 ③ 달라이라마 ④ 앙굴리말라 ⑤ 암베드카르

해설 : 앙굴리말라이다. 앙굴리말라는 잘못된 스승을 섬기게 되어 연쇄살인이라는 큰 죄를 지었다. 하지만 부처님과 같은 진정한 스승을 만나 교화되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치열한 참회와 수행으로 속죄하고자 노력하였다. 초기경전에서는 큰 죄를 지은 앙굴리마라의 처절한 참회를 표현하고 있으며, 대승불교에 이르러서는 불성(여래장)이론과 관련한 〈(대승)앙굴마라경〉이 있다. 틱낫한과 달라이라마는 현대에 큰 영향을 미친 스님들이며, 박가와는 부처님, 세존에 대한 인도어 음역이다. 암베르카르는 20세기 초중반에 활동한 인도헌법학자이자 불교부흥운동을 이끈 사람이다.

3. 매우 우둔하였지만, 부처님께서 늘 티끌(번뇌)을 없애라는 가르침을 받고 걸레로 늘 쓸고 닦으면서, 깨끗해지고 더러워지는 모습을 관찰하여 깨달은 사람은?

① 수밧다 ② 앙굴리말라 ③ 니디(니이다이)
④ 마하까사빠(마하가섭) ⑤ 쭐라반특가(주리반특)

해설 : 쭐라반특가이다. 쭐라반특가는 그의 형님인 반특가 존자를 따라 출가했으나 반특가 존자는 매우 똑똑하였음으로 그에 비교되어 더 어리석음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렇듯 어리석고 우둔한 제자였으나 부처님께선 중생의 근기에 맞춘 대기설법을 해주심으로 그에게 딱 맞는 청소와 관련된 가르침을 해주어 그를 성자로 만드셨다.

4. 불교 역사상 최초의 비구니는?

① 위사카 ② 말리까 ③ 암바빨리 ④ 야소다라 ⑤ 마하빠자파티

해설 : 불교 역사상 최초의 비구니는 부처님의 양어머니이신 마하빠자파티이다. 그녀는 출가를 하고 싶었으나 부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아난다 존자가 비구니 승가를 만드실 것을 부처님께 간곡히 부탁드려 부처님은 여인의 출가를 허락하시고 자신의 양어머니인 마하빠자파티를 비구니 승가의 제일상수로 받으셨다. 야소다라는 부처님의 출가전 부인으로 마하빠자파티의 출가를 보고 본인도 출가하였다. 위사카는 보시로 장로가 된 최초의 우바이이며, 말리까는 부처님 당시 16대국 중 하나인 꼬살라 왕국의 왕비이고, 암바빨리는 유명한 유녀로 부처님께 망고나무 숲을 기증한 인물이다.

5. 부처님 당시 최초로 삼보에 귀의한 재가 제자는?

① 유마거사 ② 숫도다나왕 ③ 빔비사라왕
④ 수닷타 장자 ⑤ 야사의 아버지

해설 : 최초로 삼보에 귀의한 재가 제자는 야사의 아버지(부모님)이다. 그들은 고타마 싯다르타가 석가모니로 부처님을 이루시고(불보의 성립), 녹야원에서 초전법륜을 굴리시고(법보의 성립), 이 법문을 들은 다섯 수행자가 최초의 출가비구가 되면서(승보의 성립) 완성된 삼보에 귀의한 첫 재가자이다. 저번 호에 알아보았듯이 부처님께 최초로 공양을 올린 재가 신도는 타풋사(제위)와 발리카(파리)이나 그들은 초전법륜 전에 공양을 하였기에 삼보가 완비되지 않았었다.

정답 : ①, ③, ②, ④, ③, ⑤, ④, ⑤, ⑤, 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부처님 무지개로 나툰 가피도량'

천안 연화정사

'소원성취 도량에서 천수 감로수를 얻어가세요'



2023년 8월 22일 새벽 6시, 법화경 기도 중 보리부처님이 무지개로 나투신 천안 연화정사는 소원 성취 기도가 항시 진행되는 법화 도량입니다.
연화정사 주지 백련화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일대에서 스님으로 문수기도를 이어온데 이어 서울 봉천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천안에 연화정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새해 부처님 나투신 현장을 보시고, 소원 성취의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내방객 및 기도동참 불자님께는 직접 만든 감로수 보시합니다. 위, 간, 장 안 좋으신 분에 특효입니다. 구입 문의도 환영합니다.



천수관세음보살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신행상담 010-7455-6742 (백련화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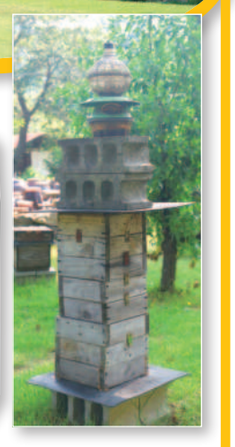


건강선물로 좋습니다

『산사품』 명품 토종 꿀

『산사품』 토종꿀은 충북 괴산의 낙영산과 보개산의 사찰주변 청정산중에서 채밀.
『산사품』 토종꿀은 1년에 1회 채밀합니다.
『산사품』은 『산사 품은 명품꿀』이라는 뜻으로 『산사품 한봉원』의 브랜드입니다.





산사품 판매로 인한 수익금은 사찰불사 및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불사에만 전액 사용됩니다.

산사품 드시고 건강하시고, 부처님 가르침속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가 격 : 100,000원/ 600그램, 전국무료배송
- 2024년 8월 26일부터 배송가능합니다. 선착순 사전 예약 받습니다.
- 주 문 : 043) 297-2514 ●입금계좌 : 농협 351-05485375-13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사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길 74

이미령의 스토리텔링 경전에세이 ⑲ 숫타니파타 ②



▶한줄 요약
숫타니파타에는 참으로 감동적인 싯구가 가득하다. 하지만 그 가운데 단연 압권이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소의 뿔 경'이다. 이 경은 41개의 시로 이뤄져 있는데 그중 한 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림 · 최주현

숫타니파타의 '무소의 뿔 경'
'무소의 뿔처럼~' 구절, 유명
온전한 자기 자신 마주하려면
오롯이 혼자되는 시간 가져야

블로그 세월 20년

블로그를 시작한 지 제법 오래됐습니다. 2004년 9월부터였으니 20년 세월입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친구들과 소소하게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였지요. 그러다 어느 사이 거의 내 일기장처럼 블로그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가족과 있었던 일, 갈등, 길에서 만난 풍경과 사람들을 관찰하며 품은 느낌, 읽은 책, 읽고 있는 책,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푸념과 은근한 자랑 등등 주제와 소재를 가리지 않고 블로그에 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왜 이토록 블로그에 열을 올리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잠든 밤 시간에 컴퓨터에 글을 올리는 내 자신에게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칭얼거리고 응석을 부리고 그들의 '우쭈쭈'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어떤 글감을 만나면 지체하지 않고 블로그에 올려서 사람들의 공감을 받는 내 모습에 아연실색했습니다. 문장을 가만히 머금고서 전후 맥락을 이어가고 깊이를 더하도록 다듬어야 하지만 블로그 포스팅은 순간의 감흥에 젖어 한풀이하듯 올리면 그것으로 끝! 날 좀 알아달라는 투정, 이웃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성마름, '나 이런 사람이다'라는 은근한 자기과시….

이런 일이 이어지다보니 홀로 풍경을 바라보아도 블로그에 올릴 내용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조용히 적막을 즐길 곳에 머물러도 이런 내 모습과 심정을 사람들에게 이러저러하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것일까요? 생전 보도듣도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정작 내 가족에게는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면서, 또 그럴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왜 바깥세상을 향해 끝없이 내게 공감해달라고 칭얼거리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이 들면서 블로그를 향한 내 충성도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 관심사인 책과 불교에 대한 글 말고는 소소한 일상의 기록을 올리는 일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SNS 늪에 빠진 사람들

사설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블로그 사랑은 그래도 양반입니다. 주변에는 SNS에 빠져서 인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의 장면부터 먹은 음식, 입은 옷, 심지어 자기 집의 온갖 광경들을 사진 찍어 올립니다. 또는 남의 SNS를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친구도 없고, 인심도 흉흉해서 세상과 소통하기를 포기하거나 기대를 반 접어버렸다는 사람들도 홀로 늦은 밤, 몇 시간을 SNS에 빠져서 지냅니다. 문을 닫고 들어앉은 자기만의 공간 속에서도 세상을 향해 쉬지 않고 접속합니다. 그러면서 외롭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암만 생각해도 두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두렵냐고요? 혼자라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남들은 무엇을 하며 살까, 남들도 나처럼 지낼까, 나는 남들만큼 사는 것일까. 내 인생의 기준이 내게 있지 않고 바깥에 있기 때문에 행여 그 기준을 채우지 못했을 자신이 속상하고, 이런 속상한 자신을 어떻게든 포장해서 바깥에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익명의 사람들이 24시간 날 훔쳐보는데 일단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안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홀로입니다. 홀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홀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고, 홀로 책임을 지고 감내해야 하고, 홀로 늙어가야 하고, 홀로 병들고, 그러다 홀로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내려갑니다. 그렇게 홀로인 것이 외롭고 힘겨워 친구를 찾고 배우자를 찾고 가정을 이루고 돈을 모으고 업적을 쌓지만 끝내는 홀로입니다. 그걸 찌르르하게 절감하면 외롭다는 생각이 엄습해도 거뜬합니다. 인생은 외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인생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숫타니파타의 저 명문장이 등장합니다.

홀로 부처이신 연각불

모든 경전 가운데 가장 먼저 성립됐다고 하는 숫타니파타에는 참으로 감동적인 싯구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단연 압권이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소의 뿔 경'입니다. 무소의 뿔이란 단어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코뿔소의 외뿔이란 뜻으로 친근합니다. 이 경은 41개의 시로 이뤄져 있는데 그중 한 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혼자서 가라고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아난다 존자가 연각불에 대해 질문을 하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답을 하는 형식이 있음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연각불도 '불' 즉 우리가 아는 부처(佛)가 맞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리킬 때는 '위없는 바르고 완벽한 깨달음을 얻은 자(無上正等覺者)'라고 하는데, 연각불은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스승 없이 홀로 깨달은 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연각불이나 같지만, 이후의 행적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신의 깨달음을 세상에 나눠주려고 남은 생애를 중생 속에서 보낸 분이지만 연각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홀로 깨달음을 이루고(연기법 하나를 깨달았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깨달음의 경지에 홀로 머물다가 삶을 마친 부처입니다.

그러니 그토록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홀로 부처'라 해도 좋을 연각불의 경지를 들려주는 것이라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 없는 세상에 태어나 홀로 수행하느라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니 자신과 함께 수행의 길을 걸어갈 친구를 찾았을 테고, 세속의 삶이 그리울 때도 간혹 있었을 테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덧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고서 홀로 수행자로 살아가다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혼자서 가라, SNS를 끄고

누군가가 곁에 있어서 함께 하면 좋겠지만 그런 친구가 생기고 교제가 생기다보면 정작 애초의 목표보다 그 사람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 집착으로 인해 괴로움이 반복되니 이런 일을 잘 살펴서 꿋꿋하게 자신의 목표를 향해 홀로 가기를 권합니다.

"교제가 있으면 애착이 생기고/애착을 따라 이러한 괴로움이 생기니/애착에서 생겨나는 위험을 살펴/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2번째 게송)

좋은 벗을 사귀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그런 행운을 얻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나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거나 하다못해 엇비슷한 사람을 '벗'이라 합니다. 이런 벗을 사귀어야 내가 성숙할 수 있는데 행여 만나지 못했거든 차라리 홀가분하게 여기며 혼자서 마음공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친구를 얻은 행복을 기린다./훌륭하거나 비슷한 친구를 사귀되/이런 벗을 만나지 못하면 허물없음을 즐기며/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13번째 게송)

일상에서 늘 스스로를 잘 지키고 보듬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곁눈질하게 되고 괜한 망상에 휩쓸립니다. 곁눈질한다는 것은 자기 삶을 누군가에게 기대려는 마음입니다. 일상의 매 순간 자신을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두 눈을 아래로 하여 새기며 경솔하게 걷지 말고/감각기관을 지키고 정신을 수호하며/번뇌로 넘치게 하거나 번뇌에 불타지도 말고/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29번째 게송)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고, 탐욕스런 세상에 머물러도 그에 물들지 않고 인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물에 때 묻지 않는 연꽃같이/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37번째 게송)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결코 부정적인 느낌인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나 자신과 온전하게 마주하는 시간일 수도 있지요. 그럴 때 내가 보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싶으며,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그 사이에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알게 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아니면 절대로 나는 나를 알지 못하니 지금 당장 휴대폰을 끄고 혼자 있어 보기를 바랍니다. 〈경전이야기꾼, 불교강사〉

스님! 나이가 들어가면 염불이
조금씩 힘이 들지요! ….. 이제 2m 떨어져서 작은 염불 소리에도
법당을 감돌고 휘도는 소리가 스님의 귀에 울려 퍼짐으로 염불이 신명 넘치는 마이크를 지금 소개합니다.

방문 마이크 테스트시 광고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구망신?!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마이크 : 이태리 성악전문 수입품(Schoeps Martin) (마이크소리 테스트비용 한잔!)

마이크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귀 법당시설 마이크와 본사 견본 마이크 양손 비교시 장난감 수준차이 반드시 확인!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1/3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79만원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가격 ₩ 79만원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대행 스님

삼세심이 일심인 줄 알면 그 일심이 어디에 있는고?

일체가 한마음 한뜻으로서 천 지 인이 다 공용, 공체 하면서 우리는 혼연일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색상이라는 것은 너 나가 있으니 오래도록 못 만났습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하지만 우리 색상이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색상이 실체라는 것을 또는 실질적으로 이 색상이 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인간의 모습은 허무하다고 버리면서까지 이 도리를 알려고 애를 쓴다면 그거는 극히 오산일 것입니다.

수많은 스님네들과 더불어, 인도로 중국으로 또 중국에서 인도로 법을 구하러 다니면서, 또는 좌선을 하면서 얼마나 모습을 망가뜨리고, 그 모습을 망가뜨림으로써 세세생생에 윤회가 되면서 얼마만큼 돌았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 너무 실감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뀜으로써 옛날의 명주를 말입니다, 지금은 실크라고 한다면 어찌 그것이 틀리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발전을 한 것입니다.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그것이 명주가 아니라는 말은 못 하시겠죠? 우리는 시대가 바뀌는 대로 방편도 바꿔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요, 부처님의 법이요, 부처님의 활용이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태초가 있고 불법이 있고 부처님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없다면 태초가 어딨으며 우주가 어딨으며, 실감할 수 있는 실체가 어디 있으며 상대가 어딨으며 세상이 어딨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알아야 하며 그 자신의 본능에 의해서, 우주의 본체는 어디 있는가? 바로 천지인이 근본이라면 그 천지인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처님 앞에 가야만이 부처님이 계신 줄 아는 그런 마음은 여간 어리석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부처님이 가르치실 때에 '관세음보살'이니 '지장보살'이니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것은 이 손가락을 쳐들고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생활을 하면서 똑바로 관해 보고,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행하라. 그것이 즉 보살이니라.' 하고 일러 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맹종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매달리고 있다 이겁니다. 상대성, 즉 말하자면 그 이름, 물컵의 이름을 듣고서 "컵이여, 목마르니 물 좀 먹게 해 주시오." 아무리 빌어도 내가 목마른데 목을 축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인간이 질서 또는 계율, 법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름이 아니라면 모두가 서로 상부상조할 수 없으니까 지어 놓은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야 할 때는 이름을 부르지만 물을 떠 먹는 것은 이름이 없습니다. 물을 떠 먹는데 "컵아, 나 너한테 물 떠 먹는다." 이러고 부릅니까? 컵을 그냥 들어서 목마르면 물 따라 마시는 것입니다. 지금 컵의 이름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수없이 흘러 내려오면서 경을 안 본 사람 없습니다. 불자다 하면 경을 안 본 사람이 없고 세상을 살았다 하면 세상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양이나 또는 법칙이나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도리를 너무도 잘 압니다. 효도도 할 줄 알고 충성도 할 줄 알고, 나쁜 것도 알고 좋은 것도 알고, 이렇게 첨단을 넘어갈 수 있는 고등 동물의 인간 자체가 만약에 컵의 이름만 가지고 매달린다면 물은 누가 줍니까?

여러분한테 이거 한번 질문할까요? 어느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디다. 그때 나는 그게 뭐 말라빠져 죽은 건가 하고 생각했지만 이 손가락으로 컵을 가리키는 데 컵만 보지 말고 내가 목마르면 물 떠 먹을 수 있게끔 가르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얘야, 공양을 들여오면 군말을 하지 마라. 짜면은 물 타 먹고 싱거우면 간장을 넣어 먹어라." 그게 그냥 보편적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에 그 뜻을 보니 이것은 우주 이 세상 모두가, 사생이 돌아가면서 살아나가는 법칙의 긍정적인 말입디다. 긍정적인 법입니다. 만약에 "얘, 짜다. 물 가져오너라." 이랬다면 벌써 삼백 년이 흐르고 말아요. 이거 한마디라면 우리 생활하는 데에 얼마만큼 지침이 될지 모릅니다. 또 이게 "싱겁다. 간장 가져오너라." 이런다면은 벌써 이거는 삼천 년이 흐르고 만다 이 소립니다. '들어와도 삼십 방망이, 나가도 삼십 방망이' 한 소리가 바로 그 말의 뜻이라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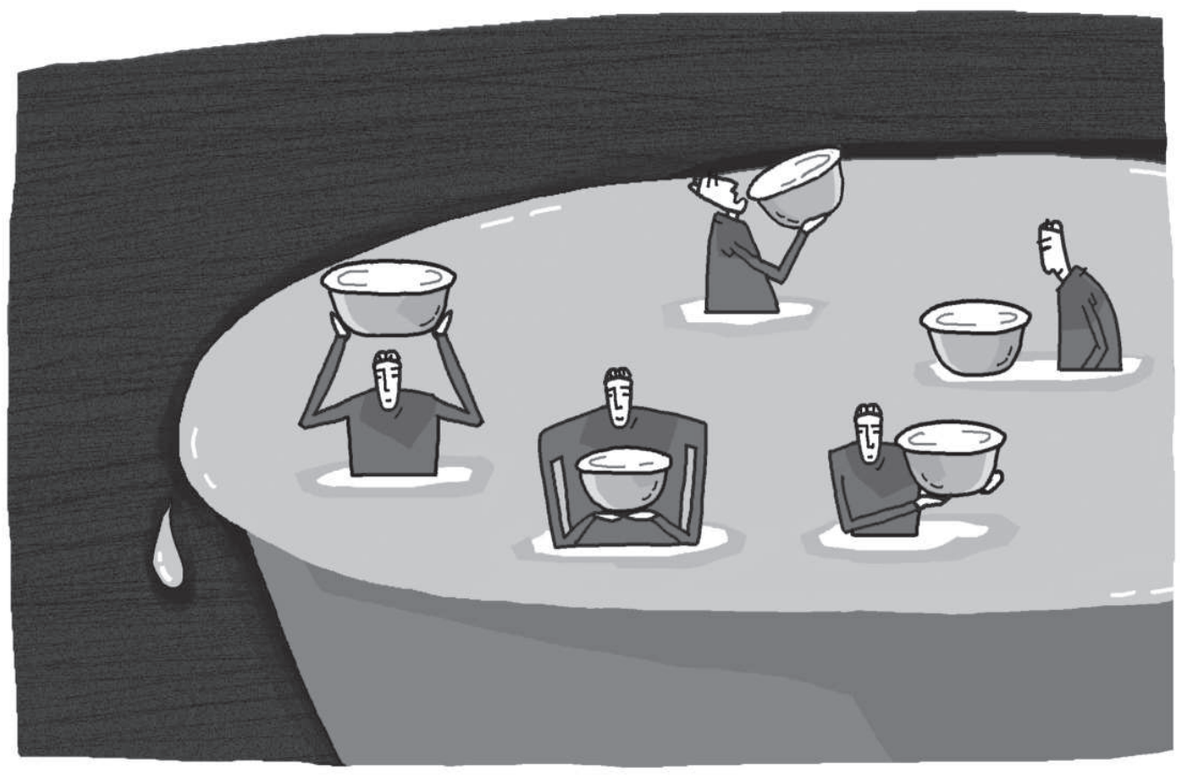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면 간은 누가 타 먹느냐? 누가 간을 맞춰서 먹을까요? 짠 것도 아니고 싱거운 것도 아니라면 그것은 다 놔라 이랬습니다. 짠 것도 놓고 싱거운 것도 놔라. 놓으란다고 불교가 그냥 맹종하고 부처님 앞에 그저 타신을 믿으면서, 나 아닌 대상을 놓고 믿으면서 극진히 정성을 들인다 한다면 그건 자기를, 자신을 모르면서 맹종하는 것입니다. 그건 노예입니다. 이 세상의 노예입니다. 자기 자신이 간을 타서 맞게 먹을 수 있어야 그것이 참사람이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서 계율이 따로 없고 스스로서 질서도 없고 스스로서 법칙도 없다 하는 거죠. 그렇게 없기 때문에 철두철명한 것입니다. 철두철명하기 때문에 진리는 고정됨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삿갓을 쓰고
죽장을 짚고 땅을 디뎠으니
바리때 하나면 족한 것을.
허허! 무엇을 더 바라랴.
'허허!' 하고 하늘 쳐다보니 청정하고
내려다보니 땅은 잔잔하더라.
산천초목은 우거져서 무성하나
물은, 바닷물은 잔잔하게 흐르더라.
그러나 쳐다보고 울고 내려다보고 웃는
그런 맛은 어디로 가고
사생의 눈물은 바다를 메우고
바다를 메우는
그 한 방울의 눈물은 어디 있는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만 생명이 있고 사는 법칙이 있는 줄 아시는 분은 없겠죠. 사생이라는 그 자체가 천차만별로 돼 있지마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살생이 아니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 쫓기고 쫓는 게 아니라 사생이 모두 쫓고 쫓기면서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나만이 생명이 있고, 나만이 살고, 나만이 친척이 있고, 나만이 형제가 있고 자식이 있겠습니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간을 타서 맞게 먹을 수 있어야 참사람이다

☞ 19면에서 계속

까? 아마도 여러분이 내면세계의 그 마음을 찾아서…, 찾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있기 때문에 발견하라는 거죠.

이름해서 만약에 우리가 삼세심이라 하면은 일심이요, 일심이 드는 데는, 이름으로써의 방편을 말하자면 '삼중천'에 이른다.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과거에 살던 그 이치가 꼬리를 물고 현실에 물려 있고, 현실에 사는 꼬리가 바로 미래에 얽혀 있으니 어찌 삼중천이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삼세심이 일심인 줄 알면 그 일심이 어디에 있는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간장 얘기 한 거나 똑같이 만약에 '이것이 틀린가 옳은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삼중천을 뛰어넘을 수 없어서, 하나가 어디로 간 건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하나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삼중천이라 이름한다면, 방편으로서 사왕천이다 합니다. 사왕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삼중천에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왕천이 바로 일심으로서의 원심력을 얻는다면 이 사방을 다 지배하고 들이고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조들이 우스갯소리로 "너, 개구리탕만 할 줄 알았지, 용탕은 할 줄 모르는구나." 이런 말들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아까 실크 얘기도 했지만 불법을 믿는 사람들은, 불교국이다 이런다면 항상 그게 자비라나요? 칼을 가지고 들어와도 가만히 있는 것이 자비라나요? 그게 아닙니다. 또 칼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나도 칼을 가지고 대결을 해야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삿갓 쓰고 주장자 짚고 땅을 디뎠고 바리때 하나면 족한 것을." 했죠. 그걸 뜻으로 보십시오. 만약에 구지 스님이 손가락을 하나 들었다면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그 뜻을 말한다면 머리로 하늘을 받치고, 주장자는 기둥이 되고, 땅을 디딘 평발은 주춧돌이 돼서 바리때를 들이고 낼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법륜을, 사무 사유의 법륜을 그냥 굴리면서, 체계 없으면서도 질서 정연하게 체계가 있고 스스로서 법칙이 있고 한 것을, 그대로 자유스럽게 여러분이 중용을 할 수 있다,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진정한 자비가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중에는 불법이란 무조건 자비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도,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끼리끼리 자기가 죄지은 대로 감옥에 넣습니다.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끼리끼리 돌아갑니다. 상점에 놓여 있는 것도 끼리끼리 놓여 있듯이, 인간의 마음도 그렇게 천차만별로 차원에 따라서 알맞게 자기 환경에 따라서 집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부는 모두가 부처님이 가르친 것을 질서 정연하게, 스스로의 법칙을 그대로 활용하라는 거지, 너는 그대로 고립돼서 무(無), 공(空)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 붙여서 사왕천이라 한다면 무명천도 있고, 무명천이 있다 하면은 생사천이 있다. 그 생사천은 누가 다루나? 만법천이 다룬다. 만법천은 누가 다루나? 여래천이나 도솔천이나 도리천에서 다룬다, 모두를. 우리가 옥황상제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가 있을까? 대법원장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데에 따라서 너무나 철두철명합니다. 스스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자비요, 살려도 자비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생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만법천에서 생사천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사실은 뭐냐? 여러분 과거에 살던 그 자체가 지금 현실에 살고 계십니다. 과거에 살 때에 사신 대로, 차원대로, 그릇대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릇대로 출현하신 거라면 바로 우리가 옷을 벗을 때도 생사천에서 벗게 하고 또 내보낼 때도 생사천에서 내보낸다 이겁니다. 자기 차원대로 말입니다. 금이면 금대로 만나게 하고 은이면 은대로 만나게 하고, 까마귀면 까마귀대로 만나게 하고 말입니다. 또 오무간지옥에 갇힐 거라면 아주 무명천에다 가두고 말입니다.

무명천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너무나 마음에 복수심이나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를까 봐 가둬 두는, 영혼을 가둬 두는 감옥입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잘 보세요. 감옥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감옥이 왜 생겼겠습니까? 천차만별로 그렇게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감옥이 생긴 거죠. 현실에 있기 때문에 바로 무의 세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배하는 것은, 만법천에서 내보내면 생사천에서 가려서 내보낼 때에 오무간지옥으로도 보내고, 칼산지옥으로도 보내고, 무명천으로도 보내고, 또 화탕지옥으로도 보내고 여러 군데로 분리해서 다 보내는 것입니다. 묘한 것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이 따로 없으니 현실에서 잘 관조하라고 했습니다. 천차만별로 사생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 공양을 들여오면 군말을 하지 마라.
> 짜면은 물 타 먹고
> 싱거우면 간장을 넣어 먹어라.

어느 스님이 길을 가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지저거리고 있더랍니다. 무슨 소리를 하나 그러고 들어 보니까 "스님, 스님! 제가 까마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가 지금 오백 년이 됐습니다. 한 번 까마귀로 모습을 받으니 거기에서 벗어날 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스님이 제 모습을 한 점이라도 잡숴 주신다면 저는…." 이 까마귀 모습을 벗겨 달라 이거거든요. "너는 까만 짓을 잘해서 어떻게 희게 만들 수 있겠느냐?" 하니까 "비록 거죽은 까마나 속살은 하얗습니다." 이러거든.

여러분도 참 거죽으로는 못생기고 못났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마음이 아름다웁고 착하고 슬기롭고 지혜롭고, 내면적으로 언제나 자기를, 자신을 믿고 만법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아마 거죽은 비록 그럴지언정 속은 하얄 겁니다. 백옥 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즉시에 까마귀 모습을 벗겨 줬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길 하면 옛날 얘기처럼 들으시는데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옛날이나 미래나 그렇게 꼬리가 꼬리를 물고 연결돼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항상 "공했다, 공했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난 게 주인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성신이…, 그 행동 하나하나 하고 마음 찰나찰나 바뀌면서 돌아가는 것이 공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질서를 가르쳐서 질서를 지킵니까? 사생 그 자체, 까마귀 얘기 한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인연을 만나서 서로 고생을 하고 이러는 것도 당연하지마는 고(苦)를 누가 갖다 준 게 아닙니다. 알로 나는 거, 태로 나는 거, 화해서 나는 거, 질척한 데서 나는 그 사생이 어떻게 해서 사생으로 빠지나? 인간이 까마귀가 될 수 있고, 부모가 죽어서 까마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람이 어느 날 한 마디를 잘못해서 백 마디를 잘못 하게 되고, 만 마디, 천 마디를 잘못하게 돼서 독사지옥에 떨어졌더니, 독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니 아무리 내가 사람이라고 부르짖어 봐도 누가 독사라고 그러지 사람이라고 대해 주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귀먹고 눈 뜨지 못한 사람들은 까치 소굴에 들어가서 까치 새끼로 태어날 수도 있으니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잘못하면 새 종류로 아마 태어나겠죠.

마음을 독하게 써서 독사지옥으로 떨어지고 이러는 것이 독사지옥으로 떨어지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서 그렇게 고를 당하고 그렇게 쫓기면서 쫓으면서 땅꾼한테 붙들려 다닙니다. 이거 한 가지 말을 했다고 그래서 고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일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어났더니 아, 몇 달 만에 다 큰단 말입니다. 사람은 어른이 되려면 십 년, 이십 년, 삼십 년 이렇게 가지만 아, 그거는 단번에 어른이 되거든. 금방 크면 금방 모가지 졸려서 죽고, 걸렸다 하면 죽고 몇 번이나 죽음을 당합니까?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그러니 얼마나 그것은, 독사보다도 더 무서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닭 사다 잡수시죠? 여러분이 닭이나 생선이나 꿩이나 무슨 돼지를 보세요. 돼지만 하더라도 돼지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일 년 이태 삼 년만 산다 해도 몇 번 죽음을 당할까요. 커서도 당하고, 작아서도 당하고, 근수만 나간다면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있느냐? 돼지에서 또, 또 출현을 하게 되죠. 그거 벗어날 수 없죠. 아주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 습을 익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모든 양면을 다 놔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공부를 하는 데는 시공을 초월했기 때문에 부처도 뛰어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채식을 해야만 공부를 한다 이러거든요. 물론 공부할 때는 채식 아니라, 채식도 없죠. 먹으려고만 생각한다면, 죽지 않고 먹으려고만 생각한다면 공부를 못 하니까, 물론 육식보다도 아무거나 먹고 그냥 공부하게 되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사생의 어떠한 것들은, 돼지나 소들은 사람들도 되니까요. 짐승이다 사람이다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빨리빨리 돌아가는지, 한 찰나 찰나 돌아가거든. 사람이라도 사람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돼지도 돼지로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사생 가운데 한 점의 고기를, 이런 공부 하는 사람한테 한 점을 공양하기가 천년 만에 한 번 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 뜻을, 그 도리를 아시겠습니까? 예전에 경허 스님이 돼지 다리를 뜯고선 술을 한 병들이를 자셨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걸 흉을 볼 텐데, 그분은 돼지 한 마리 하면 돼지 속의 돼지의 생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건 인연에 따라서 만남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두서없는 얘기 같지마는 진리는 순서 없는 게 진리니까요. 허허허. 돼지 속에도 생명들이 인연에 따라서 드는 겁니다. 이거 잘 들어 보셔야 돼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8년 9월 18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010-7384-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㉔ 나이 많은 수행자에게 죽음을 설한 부처님

노년기 마음건강 열쇠 '사랑'

"내가 죽을 때 곱게 죽어야하는데…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박말순 할머니(86세·가명)는 한숨을 내쉰 후 가만히 침묵을 지켰다. 지팡이에 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곧게 세웠지만 고개는 푹 숙인 채였다. 고생으로 패인 주름과 입가에 자글자글한 잔주름은 할머니가 울 때마다 한꺼번에 움직였다.

할머니는 우울감을 호소하며 아들의 손을 잡고 상담실을 처음 찾았다. 걸음을 내딛기 어려워 아들의 부축과 지팡이에 의지해 겨우 의자에 앉았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지난 삶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20살이 되기 전에 이른 결혼을 했다. 가난했던 친정 식구에게 짐이 될까 봐 전전긍긍하며 급히 선을 보고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다. 남편은 결혼 후 잦은 바람으로 속을 썩였고 시어머니의 호통을 견디며 7명이나 되는 시동생을 건사해야 했다. 자녀는 총 5명이었고, 지금은 대부분 교수와 의사이지만 홀로 아이들을 키운 것과 다름없는 고통의 길이였다. 그나마 자녀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할머니의 표정이 환해지곤 했다. 자랑스러운 자녀이고 할머니의 심정을 누구보다 이해하는 자식들이었지만, 할머니는 몸이 아프고 나서부터 "내 삶이 너무나 불쌍하다"며 "남편은 끝까지 내가 소중한 것을 모른다.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이렇게는 안 살았을 텐데"라며 슬퍼했다.

할머니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지난 삶에 대한 후회로 고통스러워했다. 하지만 다행히 치매 증상이 없었고 기억력이 뛰어났다. 상담 기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회상치료를 진행했다. 회상치료는 내담자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사건과 의미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단순하게 과거를 떠올리는 것을 넘어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 삶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새롭게 개념화한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회상치료는 노년기에 적용한다. 다른 발달과정에는 회상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회피하는 태도로 여기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은 자신의 삶을 통합하고 죽음이란 큰 과제를 수용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가치를 인정받고 잘 살아왔다는 만족감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노년기의 생애 과업은 '자아통합감'이다. 노년기에 '자아통합감'을 얻지 못했을 경우 대부분은 좌절하게 되며 죽음밖에 남지 않은 인생으로 쓸모없고 가치 없게 자신을 평가한다.

상담을 진행하며 할머니는 최선을 다해 살아온 자기 삶에 대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시간과 함께 흘러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만남과 인연도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결과가 됐다"고 했다. 지나간 삶을 수용할 때 남아 있는 시간의 가치에 대해 깨닫고 죽음 불안 등을 다룰 수 있다.

지난 삶 수용하는 자아통합감 필요
120세 웃따라 비구니 탁발의 의미

'자아통합감'은 발달심리학 대표학자인 에릭 에릭슨(Erik Erikson, 1902~1994)의 성격발달 8단계 중 인생의 마지막 단계, 노년기의 발달 과업이다. 생의 마지막 발달 단계에서 지나온 삶을 재정립하고 통합해 자신의 삶을 후회 없이 수용해야 인생을 행복하게 마무리한다. 이 시기에 자아통합감을 가지지 못하면 절망하게 되고 후회와 우울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를 학자들은 연구했고 그 결과 자아존중감과 건강 상태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주는 큰 변수로 지금도 연구되고 있다.

자아존중,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라. 그들은 선한 일에 앞장서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한다. 바로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다.

〈법구경〉에 120세가 될 때까지 탁발을 계속한 웃따라 비구니가 나온다. 웃따라 비구니는 탁발 후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비구에게 자신의 모든 음식을 공양 올린다. 웃따라 비구니는 반복해서 비구에게 자신의 공양을 올렸고 네 번째 되는 날 사람으로 붐비는 곳에서 부처님을 만난다. 웃따라 비구니는 뒤로 물러서다가 흘러내린 가사 자락을 밟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해 뒤로 굴러 넘어지게 된다.

이때 부처님이 다가가 말했다.

"비구니여, 그대의 몸은 이제 나이가 들고 다 낡아서 얼마 가지 않아 흩어질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잔인하게 들리는가? 하지만 웃따라 비구니는 부처님의 게송을 듣고 수다원과를 성취하게 된다.

웃따라 비구니가 120세가 될 때까지 탁발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끝까지 수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말이다. 웃따라 비구니는 탁발하며 계를 지키고 자신의 공양을 모두 아낌없이 나누는 공덕의 삶을 실천했다. 120세면 걷기도 힘든 노구(老軀)이고 분명 몸도 아주 아팠을 것이다. 탁발하기 위해 걸어야 했던 길은 다른 이보다 멀게 느껴지고 지쳐 고통스럽고 힘겹지 않았겠는가? 힘들게 탁발한 음식을 모두 공양 올린 웃따라 비구니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믿음, 존경과 환희 그리고 사랑이다. 그런 웃따라 비구니는 죽음이 두려웠을까?

"이 몸이 늙어 시들어가면, 병들이 득세하여 저항력을 잃어간다. 세포가 파괴되어 썩어 문드러지면 생명은 죽음으로 끝을 맺으리"

부처님의 게송이다. 죽음으로 생명이 끝나는 그때까지 사랑과 자비의 수행을 멈추지 말라.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통합감'도 넘어서는 삶의 큰 의미를 선사할 것이다.

*사례는 내담자 보호를 위해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리했습니다.



홍재화의
걷기삼매경

⑱ 발목의 구조적 특성

발목 건강 챙겨야 잘 걷는다

인간은 두 다리로 걷기 때문에, 발목은 체중이 가장 많이 실리는 관절이다. 발목 부위의 주요 뼈는 거골(발)과 경골(정강이)과 비골(다리)이다. 경골과 거골 사이의 관절은 작은 비골과 거골 사이의 관절보다 더 많은 무게를 지닌다.

그런데도 무릎 관절과는 달리 상당히 유연한 운동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발목은 뼈와 뼈를 연결하는 밧줄 역할을 하는 조직인 인대로 둘러싸여 있다. 또한 발뒤꿈치인 종골 밑에는 지방층이 있어서 체중이 가해지면 내측 및 외측으로 변형돼 높이가 약 25% 감소되면서 지면으로부터 오는 반작용의 힘을 분산시킨다.

발목의 운동역학

발의 가장 기본적 기능은 걷고, 충격을 흡수하고, 몸이 앞으로 나가게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발은 모양과 뼈의 연결 부위를 변형하면서 운동역학적으로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낸다.

또한 보행과 달리기의 밀기 단계(push off phase)에서 생기는 큰 추진력에 견딜 수 있을 만큼 발은 견고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발은 관계된 관절들, 결합조직들, 그리고 근육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충격 흡수와 전진을 위해 유연성과 견고함을 둘 다 갖고 있어야 한다.

건강한 발의 감각기능들 역시 하지의 보호와 안내에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제공된다. 그 발 중에서 발목은 상체의 하중을 발바닥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발목의 움직임은 3개의 축으로 움직인다. 위아래, 좌우, 그리고 사선 방향으로 움직인다.

김세연의 KSNS에 의하면 인간의 발은 걸어갈 때 전방, 좌우로 움직이는 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다. 평지 바닥이 아닌 울퉁불퉁한 자연적인 지면에서도 균형을 잡을 수 있고, 네 발을 가진 동물보다 더 튼튼하게 두 발로 서서 다양성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구조이다.

걸을 때 발목 중심에 힘이 걸린다. 이 힘은 엄지발가락 안쪽을 향해서 나누어져 있고, 그 힘은 다시 발목 바깥쪽으로 이동되어 큰 삼각형 형태로 힘이 분산되어 있다. 발목 바깥쪽에는 보조 힘점이 있다. 발목에 연결되는 근육은



발목 중심을 축으로 하여 좌우, 상하 그리고 사선으로 회전하는 힘을 쓰도록 한다.

현대 문명의 인도는 자동차 도로처럼 평지가 되어 발바닥이 약해져서 쉽게 발목을 삐게 된다. 특히 뒷굽이 높고 뾰족한 여자 구두, 앞이 좁고 바닥이 딱딱한 구두는 맨발보다 발목 근육 사용만큼의 강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약한 발목의 원인

발목 관절은 모든 주요 관절 중에서 가장 강하고 많이 움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자주 부상을 입는 부위이기도 하다. 그리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골절과 염증이 생긴다. 발목이 약해지는 일반적인 원인은 다음 몇 가지이다.

골관절염-연골이 파괴되어 발목이 약해지는 진행성 상태

당뇨병-신체가 당분을 분해하고 처리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종종 발목의 순환과 힘의 손실로 이어짐

뼈 골절-발목이 바깥쪽으로 뒤집어지거나 안쪽으로 발목이 돌아가 꺾이는 충격으로 발생

발목 부상-진행 방향의 급격한 선회가 자주 일어나는 운동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발목 염좌-발목이 갑자기 강하게 구부러지거나 비틀릴 때 발생하는 부상

열악한 아치 지원-발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아치를 허용하지 않으면 발이 안쪽으로 구부러져 종종 발목에 통증과 쇠약을 유발함. 아치 부분을 보강한다는 신발 또는 보조재로 인한 경우가 많음

신발 뒤꿈치-뒷굽이 뾰족한 신발. 쿠션은 높고 부드럽지만 신발의 뒷굽이 닳으면 걸을 때 발목을 흔들리게 함. 이런 미세한 발목 흔들림이 지속될 경우 발목 인대 및 근육의 손상이 올 수 있음

발목 강화하기 위한 방법

발목은 여러 개의 근육과 인대로 이루어져 있고, 활동 영역이 매우 넓다. 발목의 기본 운동 축은 세 방향이다. 위아래, 좌우 그리고 안팎 사선이다. 만일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임이 불편하다면 그 부위와 반대편 근육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또한 이 세 축으로 움직임이 원활하다면 발목은 건강한 것이다. 발목 강화 운동도 이 3축으로의 움직임을 반복해서 한다면 발목 부분의 모든 근육과 인대가 강해지는 것이다. 그 방법도 어디서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의자에 앉아서 두 발을 모아서 몸 쪽으로 끝까지 당겼다가 아래쪽으로 끝까지 밀기, 두 발을 빠른 속도로 좌우로 끝까지 움직이기 그리고 두 발을 안쪽 사선 위아래로, 바깥쪽 사선으로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한다.

〈비바미(Viva!me) 대표〉



전법 일기

‘낙하산’은 고공낙하의 생명줄 장병에겐 군종장교가 ‘낙하산’

두 번째 소임지는 특수전학교.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의 특전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군사학교이다. 다음 부대에 배치 받기 전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하루에 3k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등 단련된 체력을 가지고 두려움과 새로운 도전이라는 기대감으로 특수전학교로 향했다.

이곳에서는 공수교육훈련이라는 첫 번째 관문이 있다. 특전사 요원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다. 공수교육훈련은 특전부사관 후보생뿐만 아니라, 육사 생도, 3사생도, 학사 장교, 특전용사 등 다양한 신분이 교육훈련을 받게 된다. 이 부대에 가기 전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되새기며 그 마음을 다잡았다. 그 생각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도망이었음을 3주간의 공수교육훈련을 마치고 알았다.

3주간의 공수교육훈련에 입교하게 되면 신분이 무엇이든지 모든 사람이 훈련생으로 통한다. 군종장교 또한 예외는 없다. 특수전학교에 전입을 7월 중순 공수교육훈련에 입교하였다. 더운 날씨 속 입교 첫날 오전부터 뜀뛰기 5km가 진행됐다.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지만, 교관들과 공수 동기들이 독려를 해주었다.

돌아보면 아침의 뜀뛰기 5km가 가장 걱정이었지만 지나고 나서 달리기의 취미를 붙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2주간 지상에서 열심히 뛰고 구르며 몸에 익히는 교육이 계속해서 진행됐다. 지상훈련 중 꽃인 착지동작은 다리가 땅에 닿기만 하더라도 착지동작이 나올 수 있도록 2만번 이상의 착지 연습을 반복 숙달을 하였다. 입교하기 전 호국백마사 간부 신자의 조언이 떠올랐다.

“공수교육은 체력보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굳게 지니시면 버텨 내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어느덧 2주간의 지상 훈련을 마치고 자격강하 4회를 하는 3주차가 되었다. 첫 번째 강하 하던 날은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은 날이다. 지상에서 300m 높이에서 낙하산에만 의지하여 스스로 뛰어내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낙하산이라는 것이 나를 지탱해주어 뛰어내릴 수 있게 해주었다. 이것이 군종장교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다. 사회에서의 낙하산이라고 하면 부정적 바라보는 시각이 짙은데, 이면으로는 군인들에게 낙하산 같은 존재가 바로 군종장교이다.

말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모습에서 우러나온 무형전력 강화였다. 위험성 훈련과 대부분의 훈련 때 앞서 안전기도와 격려를 하는 것은 물론 동반강하를 하며 동질감 형성을 통한 무형전력 강화에 앞장서야 함을 잊고 있었다.

이는 부처님의 혜명을 받아들여 사명감을 가지고 장병 중심, 현장 중심의 존재감 있는 군종활동을 통해 장병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군종 법사로서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됐다.



수종 스님
육군 32사단 호국대원사 주지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⑨ 진묵대사의 오도송

천지자연과 하나됨을 노래하다

하늘을 이불 삼아 땅 위에 누웠노라

하늘을 이불, 산을 베개 삼아 땅 위에 누웠노라(天衾地席山爲枕)
달빛 등불 구름 병풍 아래서 바닷물을 술로 생각하고 마시네(月燭雲屛海作樽)
거나하게 취하여 벌떡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니(大醉居然仍起舞)
긴 소매 곤륜산에 걸릴까봐 저어되네(却嫌長袖掛崑崙)

임진왜란이 끝나고 처절하게 고통 받는 민중을 구원한 조선의 소석가(小釋迦) 진묵 대사의 오도송이다. 그가 남긴 유일한 이 깨달음의 노래가 부여 무량사 법당 앞의 주련(柱聯)으로 걸려있다.

진묵 대사(震默大師, 1562~1633)는 김제군 만경면 불거촌(佛居村)에서 태어났다. 불거촌은 진묵 대사와 같은 고승을 낳았다 하여 붙인 이름이다. 어린 나이에 전주 봉서사에 출가하였다.

진묵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서산과 사명과 같이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한 호국불교의 대열에 서지 않았다. 전란 후 인구는 3할이 감소했고, 토지는 7할이 황폐화된 나라에서 굶주리고 헐벗은 민중들의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해준 대승보살이었다. 부처의 자비를 현실사회에서 몸소 실천한 민중들에게 희망의 등불이었다. 명리와 격식의 옷을 벗어버린 걸림이 없는 탈속(脫俗)한 자유인으로 진정한 출가 수행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고려 말 나옹 선사와 더불어 석가모니의 후신불로 평가받고 있다.

임진왜란 고통 받던 대중 치유
오도송 ‘호연지기’ 詩 중 절창
민중 희망 주는 제2 진묵 기대

진묵 대사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의 기록이 없다. 구전으로 전설과 설화문학으로 전해오다 그의 사후 200여 년이 지나 조선말에 초의 의순 선사(1786~1866)에 의해서 그의 삶의 궤적을 모아 최초로 편찬한 〈진묵조사유적고〉에 의해서 진묵 설화가 문자화되었다.

진묵 대사의 오도송은 승속을 망라하여 대장부의 호탕한 마음인 호연지기를 읊은 시 가운데 최고 절창이다. 기구(起句) “하늘을 이불 삼고 산을 베개 삼아 땅 위에 누웠노라”는 깨달음의 마음이 천지자연과 하나가 된 우주심, 대아심(大我心)의 경계를 읊은 것이다.

고려 때 혜심의 〈무의자시집〉(우리나라 최초의 선시집)의 “하늘을 천막 삼고, 땅을 자리 삼아, 산으로 병풍 삼고 바위로 벽을 삼는다(天幕山爲席 山屛石爲壁)”의 시구를 용사(用事)하였다. 진묵 대사의 우주 천지심은 중국 위진남북조시대 승조 스님이 〈장자〉를 읽고 “천지와 땅은 같은 뿌리이고, 세상 만물은 하나”이라고 용해·요약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진묵 대사의 고향 김제 금산사에서 깨달음의 사회화를 주창하고, 지구촌공생회를 창립하여 동남아와 아프리카 주민에게 우물물을 파줘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세계일화(世界一花)의 모습을 보여준 월주 스님의 좌우명이기도 한다.

오도송은 불립문자를 주장하여 고정관념이나 격식에서 벗어난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일반 한시처럼 운율이나 고사(故事) 등에 얽매이지 않고, 구애되지 않는다.

승전결구에서 “바닷물을 술동이 삼아서 마시고 취하여 춤을 추니 긴 소매가 중국에서 제일 높은 곤륜산에 걸릴까 봐서 염려된다”고 대장부의 자적(自適)하고, 걸림이 없는 무애심(無碍心)을 읊고 있다.

우리 사회가 출산율이 급격이 감소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어렵다. 나라의 위기요 불교의 위기이다. 지금 국민은 한 마음으로 공명조(共命鳥) 의식으로 고통 받는 백성과 함께 하여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제2의 진묵을 소망한다.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두 명의 출재가자 부고에 부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뒤 두 명의 부고가 들렸다. 한 명은 ‘사형수들의 대부’ ‘재소자들의 부루나 존재’로 불렸던 삼중 스님이었고, 다른 한 명은 ‘영원한 재야’라는 별명을 가진 불자 정치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었다. 스님과 재가자의 부고를 정리하고 나니, ‘가장 낮은 곳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삼중 스님은 1976년부터 대구교도소를 시작으로 재소자 교화 활동을 펼쳤다. 당시에 교도소에는 목사와 신부들은 선교를 했으나, 스님은 전무했다. 대구교도소에서 법사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삼중 스님은 한달음에 달려가 법사 직을 수락하고 교화활동을 펼쳤다.

말년에 삼중 스님은 심부전증으로 인해 이틀에 한번 혈액투석을 하면서도 사형수들을 위한 전법·교화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장기표 원장은 1966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으나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그는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을 시작으로 민청학련사건, 청계피복노조 사건, 민중당 사건 등으로 9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12년간 수배 생활을 하는 등 1970~80년대 수차례 투옥과 석방을 거듭했다.

1990년대부터 7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모두 낙선했고, 세 차례 대선에도 출마를 선언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는 ‘신문명정책연구원’을 만들어 마지막까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 등에 집중해왔다. 고인이 말년에 주장한 ‘신문명적 정치’의 기반에는 불교가 있었다.

삼중 스님은 300여 명의 사형수를 만나 그들의 마지막 길을 지켰고, 장기표 원장은 재야에서 민중들과 민주주의를 꿈꾸며 함께 거리에서 투쟁했다.

모두 가장 낮은 곳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 두 출재가자의 삶에서 종교인이서 있을 자리를 만났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찰나 실수로 부서진 어깨뼈와 무너져버린 고향의 가족

네팔노동자 바하두르씨, 가족 생계 위해 농장 · 공장일 등
수술 후 월세방 더부살이…남은 건 병원비와 빚 7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한걸음 더 불자답게

현불논단



석길암 교수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우린 많은 이들과 만나고, 많은 이들과 대화하고, 많은 이들과 삶에 대해 공유한다. 불자이든 불자가 아니든 이러한 삶의 기본 방식이 다른 것은 아니다. 그 다를 수 없는 삶의 방식과 순간순간의 시간 모두에 '불자답게'라는 기준을 가져다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무심코 살아가는 삶의 중간 중간에 잠깐의 방점을 찍을 필요는 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있는가' 혹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삶의 반성이 일어난다면 스스로 불자라고 칭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돌아오는 흔한 답변 중의 하나가 그럴 틈이 없다는 것이다. 굳이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세상이 변해가는 속도의 빠름을 쫓아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소통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속도에 있어서도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또 요구한다. 스마트폰이 주는 편리함이 소통의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민을 오히려 스쳐 지나가는 단편적인 정보의 하나로 여기게끔 만들어도 의식하지 못한다.

서로의 생각, 서로의 말, 서로의 행동을 누적된 정보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순간, 진지하게 삶을 대하는 태도는 사라져 버린다. 우리 대부분은 누적된 데이터가 제공하는 정보에 휩쓸려버리기 때문이다. 고민이나 판단의 틈, 여지가 사라져 버린다. 그런 세상 속에서 불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순간에 필자가 떠올리는 것은 부처님의 전법선언이다.

法 전하고 전해받는 모임, 법회
대법회 계기로 불교적 디테일이
불자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기를

"비구들이여, 법을 설하라.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법을 설하고, 의미와 표현을 구족한 법을 설하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梵行)을 드러낸 법을 설하라."

〈상윳따니까야〉에 나오는 전법선언의 마지막 부분이다. 도대체 훌륭하다 혹은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을 훌륭하다, 좋다고 하는 것일까? 전하는 내용의 훌륭함에 초점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전해받는 내용의 훌륭함에 초점이 있는 것일까? 둘 다 훌륭해야 한다고 말하면 정답일 것이다. 하지만 전법은 전하는 것이고, 전해받는 대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법을 전하고 법을 전해받는 모임, 그것이 법회이다. 달리 말하면 법회는 소통이다. 소통은 주제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다. 불교도 대법회는 현대인의 바쁜 삶, 속도에 지친 삶에 대한 자기성찰과 여유를 요구하는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틈, 여지를 요청하는 시대의 요구에 충실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틈, 여지를 만들어주는 불교적 디테일이 필요하다. 이번 불교도 대법회를 계기로 불교적 디테일이 불자들의 삶 속으로 조금씩 스며들기를 기대해 본다. '존중, 멈춤 그리고 관심'이다.

'일당백' 도심 포교당이 필요하다

세간과 출세간



박수호 교수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90%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은 전법의 대상이 대부분 도시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은 도심 포교당을 다시 소환하고 있다.

산업화 이후 발전하기 시작한 현대 도시는 정치와 경제를 넘어 교육, 문화, 보건의료 등 모든 분야의 중심이 됨으로써 인구를 더욱 집중시키고, 공간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인구, 주택, 실업, 교통, 환경, 범죄, 공동체 해체, 인간소외, 빈부격차 및 빈곤 등 다양한 도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정보화와 세계화의 파장 속에서 현대 도시의 기존 특성들은 더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몇 가지 새로운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인구천만 명이 넘는 거대도시인 메가시티의 등장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메가시티는 서구처럼 도시들 사이의 기능적 분화를 통한 유기적 결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자원과 기회를 흡수한다. 도시 규모에 따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마저 퍼지고 있다.

대다수 도시인이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것도 특기할 사항이다.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공동체성을 담보하려고 하지만, 아파트가 그 자체로 계층적 지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계층 간 격차나 불평등의 문제는 더 커지고 있다.

인구 1천만 이상인 메가시티 등장
도시인 맞춤형 포교프로그램 개발
포교당 수보다 접근성 용이가 중요

도시는 역사적 구성물이다. 제한된 공간에 다수의 인구가 모여 사는 곳이라는 도시의 정의는 변화가 없지만, 도시 인구의 구성 비율이나 특성, 도시의 기능과 경제 구조, 위상 등은 늘 변화해 왔다. 도심 포교당은 그런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포교의 관점에서 도시인들의 종교적 욕구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절 인연에 맞는 적합한 포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또한 도시인의 종교적 욕구 충족은 결국 포교 프로그램에 달려 있다. 따라서 도심 포교당은 소재한 도시 주민들의 종교적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포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다만, 인구 대비 포교당 수가 적다고 하여 무조건 포교당을 늘릴 필요는 없다. 출가자가 급감하는 현실 속에서 포교당이 많아지는 것은 관리 부실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이 더 크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전제하면, 꼭 도심이 아니어도 사람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곳이면 어디든 도심 포교당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교회나 성당처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심 포교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이 쉽게 찾아오고, 지역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진정성을 갖고 도시와 도시인의 문제 해결에 나서는 일당백의 도심 포교당이 절실하다. 요컨대 핵심은 우수한 포교 역량이 응집된 효율성 높은 도심 포교당을 만들어 내고 늘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社 說

갈항사지 석탑, 환지본처 이뤄져야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남면 오봉리 옛 갈항사터에 동·서로 세워져 있던 두 탑으로 2단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석탑이다. 탑의 기단에 '통일신라 경덕왕 17년(758)에 언적 법사 3남매가 건립했다'라는 내용이 이두문으로 새겨져 있어 제작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어 가치가 크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도굴해 반출을 시도했지만 발각돼 1916년 경복궁으로 옮겨져 관리돼 왔다. 이후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함께 이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박물관 정원의 장식으로 사용 중이다.

요즘 김천시는 갈항사지 석탑 이전 추진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김천시는 지난 9월 3일 '국보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김천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오는 11월 중 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2025년에는 갈항사지 주변 토지를 매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천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과 김충섭 김천시장이 9월 23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한 이유도 갈항사지 석탑의 김천시 이전에 대한 지지를 구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김천시 이전 계획안을 보고 받고 환지본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도 9월 10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에서 '갈항사지 삼층석탑 김천 이전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갈항사지 석탑 이전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기실, 다시 불교계와 지역으로 돌아와야 할 성보문화유산들은 일본, 미국 등 외국에만 있지 않다. 국내 박물관에도 상당 수 존재한다. 고려 초기 법인국사 탄문 스님이 조성한 보원사지 철조여래좌상의 경우 조선 후기 이후 주민들이 봉안당을 만들어 모시던 것을 1918년 일제에 의해 경성(현 서울)으로 이운됐다. 당시 기록에는 이운의 모습이 마치 군대 작전을 방불케 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보원사지 철불은 경복궁에 전시됐고, 현재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 중이다.

고려시대 범종 중 가장 오래된 범종인 '천흥사명 동종'도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 중이다. '천흥사명 동종'의 경우 사찰이 쇠락하며 조선시대 남한산성에서 시각을 알리던 역할을 하게 됐고, 1910년에는 이왕가박물관의 소장품이 됐다. 해방 이후 이왕가박물관이 1969년 국립박물관으로 흡수되며 자연스레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이 됐다.

국립중앙박물관 내 수장된 불상, 석탑 다수 존재
보원사지 철불 등 일제강점기 이탈… 환수 필요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문화강국이며, 문화유산 보존·관리 역시 세계 수준이다. 더 이상 서울 중심으로 문화유산이 소장·전시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일제에 의해 본래 자리를 떠난 불교문화유산을 지역과 불교계에 돌려주는 것은 이제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다. 지자체와 지역불교계도 환수할 성보유산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하계연수교육 성료

재단법인 일붕선교종은 9월 24~25일 양일간 충남 아산 도고교원연수원에서 '2024년 종도 하계연수교육'을 성료하였기에 이를 알립니다.



불기 2568년(2024) 10월 2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10월 2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10월 2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30주년 기념식

30 생명의 빛 희망의 빛

일시 | 불기 2568(2024)년 **10**월 **12**일(토) 14:00

장소 | **동국대학교 중강당**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1길 30)

행사안내

1부 오프닝 공연
기념사 및 격려사
표창장 수여
비전 선포식
본 행사의 1부는 TV, 라디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2부 문화공연
감사인사

지난 30년 동안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많은 이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미래를 함께 축복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하시어,
30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문 의 02-734-8050

※축하 화환 대신 쌀로 보내주시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좋은 날 잘 사용하겠습니다.